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幕 禮

古 代 그리스·로마 헤어 스타일의 造形的
傳 承 과 現 代 的 再 現 方 案 에 關 한 研 究

-쉬농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ancient Grecian and Roman hair styles and their influence on current styles, including a proposal for their fusion into current forms with a focus on Chignon styles.

2005 年 12 月

漢 城 大 學 校 藝 術 大 學 院

뷰 티 藝 術 學 科

헤어디자인 專 攻

尹 聖 喜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幕 禮

古 代 그 리 스 · 로 마 헤 어 스타 일 의 造 形 的
傳 承 과 現 代 적 再 現 방 안 에 관 한 연 구

-쉬농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ancient Grecian and Roman hair styles and their influence on current styles, including a proposal for their fusion into current forms with a focus on Chignon styles.

위 論 文 을 藝 術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5 年 12月

漢 城 大 學 校 藝 術 大 學 院

뷰 티 藝 術 學 科

헤 어 디 자 인 專 攻

尹 聖 喜

감사의 글

다소 어린 시절 가고자 희망했던, 그러나 다소 뒤늦은 나의 대학원공부. 학교수업은 매시간이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한 정말 가슴 벅차던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격적인 일은 일과 수업의 힘든 시간들을 모두 견뎌 끝내고 그런 중에도 나만의 논문을 쓰게 됐고, 이 한 권을 남기고서야 이렇게 떠나는구나하는 아쉬움과 지치고 힘든 인내의 ‘시간터널’을 지나온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이었다.

내 푸른 대학시절의 사랑스러웠던 모교인 이화여대의 도서관과 지금의 나의 집과도 같은 푸근한 느낌의 한성대 도서관, 거대한 여의도 국회 도서관 등을 구슬땀을 흘리며 오가던 기억들, 스스로 부족한 자료를 찾아가며 공부하는 혼자만의 길을 걷는 듯한 느낌에서 이제 나만의 미적(美的)인 관념들을 총정리 하는 의미 있는 한 권의 결실을 만나는 기쁨이란....

정말 산고(産苦) 끝에 나온 분만된 내 아기를 보는 것과도 같은 행복의 순간이다. 남이 굳이 안 가려는 길, 그러나 내가 노년 때 까지도 꼭하고 싶어하던 그 ‘매력적인 길’을 가고자했던 나만의 포부가 과연 논문으로까지 이어 질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미용의 길이었지만, 미용을 시작하던 당시 아장아장 3세와 4세이던 나의 아기들이 벌써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 되었다. 급기야는 목전(目前)에 논문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부끄럽지만, 혹시 나를 필요로 하는 주변의 힘든 분들에겐 부족한 기술로서나마 희망과 사랑과 봉사를, 학문적으로는 미약하나마 다리의 역할이 되고 싶다는 욕심으로 미용과 본 논문을 임하였었다. 그리고, 여기엔 나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라 머릿속의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꽂차있어 가졌던 미용에 관한 생각들이 한성 대학원 수업과정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탐구하는 자세로 인해 하나씩 재정립이 되어져갔고, 지금의 논문을 완성하는 양분을 마련해 주신 것도 새삼 감사하다.

늘 맘 따뜻하신 김 삼진교수님, 지도해 주신 김 막례 교수님, 조언을 사랑의 맘으로 아끼지 않으신 신 인숙 교수님, 개인적으로 격려도 해 주신 김 주숙, 장 상숙, 최 근희, 유 지연, 이 인화, 원 진희, 김 민정 교수님들을 비롯, 주위 분들 모두께 감사의 맘을 꼭 전하고 싶다.

끝으로 나를 끝까지 믿지만 안타깝게 지켜봐주신 나의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스런, 그러나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이 엄마로 인해 자신들 뒷바라지를 못받아서라도 말없이 힘들어했을, 그러나 나를 응원한 나의 든직한 아들 중호, 가녀린 딸 유진에게도 내 진심어린 고마운 맘과 사랑을 꼭 전한다.

여기까지도 오게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다.

앞으로도 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흥미로움과 새로운 발견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II. 고대에 대한 문화적 이해	6
1. 고대 이집트의 헤어와 복식을 중심으로한 특성 고찰	6
2. 고대 그리스	10
1) 문화적 특징	10
2) 복식과 헤어스타일의 특징	11
3. 고대 로마	15
1) 문화적 특징	15
2) 복식과 헤어스타일의 특징	15
III. 재현에 관한 이해	19
1. 20C 현대의 특징	19
2. 옛것을 재현(再現)하는 이유	29
1) 재현(Historicism)의 정의	29
2) 고대 그리스· 로마 풍 재현의 사례연구	31
IV. 고대스타일의 현대적 재현을 위한 조형적 접근	47
1. 그리스·로마식 헤어스타일의 유형별 연구(쉬움을 중심으로)	47
1) 타(他) 올림머리 스타일과의 비교 고찰(考察)	47
2) 올린 방법에 의한 유형 고찰	56
2. 고대 그리스 · 로마식 스타일 재현에 필요한 조형적 접근	57
1) 기초 조형의 원리	58

2) 조형 구성의 원리	61
3) 텍스춰에 의한 기법연구	65
V. 연출 위한 도구 및 사례고찰	69
1. 셋팅을 이용한 웨이브 연구	69
2. 아이롱을 이용한 웨이브 연구	71
3. Hair-filler 사용과 피스, 헤어악세서리, 헤어제품	72
4. 골격 유형의 분석	76
5.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분석(分析)과 디자인 전개	76
VI. 재현을 위한 작품의 연구와 해설	79
1. 설계를 위한 전개 방법	79
2. 작품 제작 의도 및 해설	82
VII. 결론 및 제언	98
참고문헌	103
부록	109-111
ABSTRACT	112

표 목 차

<표1> 20C 현대의 헤어스타일과 실루엣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29
<표2> 타(他)올림머리와 의 비교	48
<표3> 고대 그리스·로마식 취농과 우리나라 개화기 시기 올림머리의 유형 비교와 재현 여부	55
<표4> 셋팅·와인딩 방향에 따른 볼륨감의 차이	70
<표5> 취농 헤어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이미지 평가 형용사	81

그 립 목 차

<그림1> 고대 이집션의 패션	7
<그림2> 고대 이집션의 두식	8
<그림3> 향유를 머리에 든 이집트 여인	10
<그림4> 도릭 키톤(좌)와 이오닉(우)키톤	13
<그림5> 길게 늘어 뜨린 머리 스타일	13
<그림6> 헬레니즘 시대의 여인들의 머리와 장식	14
<그림7> 카울(Caul)	14
<그림8> 로마인의 머리와 장식	15
<그림9> 로마의 스톨라와 팔라	17
<그림10> 이집트의 긴 머리 핀	18
<그림11> 로마의 긴 핀	18
<그림12> 고대 로마의 컬이 많은 여인	18
<그림13> 로마 여인의 컬	18
<그림14> 18C 뽕빠두르형	18
<그림15> A.D 2C 단순해진 로마 여인의 취농	18
<그림16> 가리마를 하여 곱슬거리게한 로마의 여인	18
<그림17> 20세기 실루엣 주기의 재현 및 변화	20

<그림18>1900년의 실루엣	21
<그림19>1911년의 실루엣	21
<그림20>1901년 아르누보양식 외출복과 두식	22
<그림21>20년대의 플레퍼 스타일	22
<그림22>1931년 실루엣	22
<그림23>영화<백금발의 여인>(1931)의 진 할로우	22
<그림24>1911년 원통형 드레스와 두식	23
<그림25>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	23
<그림26>1947년 뉴 룩(New Look)	24
<그림27>1908년 Paul Poiret 의 디자인과 두식을 그린 일러스트레이션, 뿔 이리브의 그림	24
<그림28>50년대 포니테일 스타일	25
<그림29>프렌치 브레이드(French Braid)	25
<그림30>60년대 비히브스타일	26
<그림31>부핀트 스타일	26
<그림32>마를린 몬로 스타일	26
<그림33>1960년대 실루엣	26
<그림34>1970년대 실루엣	26
<그림35>1975년 실루엣	26
<그림36>70년대 파라 포셀(Farrah Fawcett)	26
<그림37>80년대 데이빗 보위, 앤드리지너스	26
<그림38>칼라가 낮아도 머리가 짧은 혼용의 90년대	28
<그림39>칼라가 낮을때 머리가 긴 90년대	28
<그림40>칼라가 높아도 머리를 낮게 드리운 형	28
<그림41>유행주기	31
<그림42>50년대의 오드리 햅번	31
<그림43>햅번식의 20세기 복고풍, 엄 정화	31
<그림44>전통 한복과 머리 형의 재현	31
<그림45>16세기 쉬농 헤어스타일	31

<그림46>20세기의 머리	31
<그림47>유행의 진자-오던 길을 되밟는다	36
<그림48>17세기(1630) 여자의 머리	36
<그림49>로맨틱 시대의 복식과 여성머리(1830)	36
<그림50>재현된 머리 양식	36
<그림51>12세기 금줄과 진주로 실크 bag위에 얹어 놓은 그리스적 쉬농을 전승한 망(網) 스타일의 중세 여인과 오하라 비교 ...	37
<그림52>1799년, 그리스·로마의 부활	37
<그림53>18C말의 그리스식 엠파이어 스타일의 재현	37
<그림54>19C 크리놀린 시대의 헤어 양식	38
<그림55>뿌아레의 헬레닉 드레스(좌)와 조세핀 튜닉(우)	40
<그림56>비오네의 그리스풍 헤어 스타일	40
<그림57>로마 여인의 머리	40
<그림58>고대 그리스의 비너스	40
<그림59>비교를 위한 그림<그림56>의 헤어스타일 클로즈업	40
<그림60>1차 세계대전 이전 실루엣	41
<그림61>엠파이어스타일(Empire Style)의 드레스와 헤어스타일	41
<그림62>그리스의 늘어뜨린 형 재현 사례	41
<그림63>로마의 컬이 많은 머리의 재현	41
<그림64>그레이스 켈리, 1955	41
<그림65>로마머리의 재현, 1945	41
<그림66>B.C. 1500 고대 그리스 여인의 머리	42
<그림67>그리스식 늘어뜨린 머리형 국외	42
<그림68>그리스의 늘어뜨린 머리를 재현	42
<그림69>쉬농의 다양한 연출들의 사례	44
<그림70>그리스·로마식 재현-2000년대의 미국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킷먼	44
<그림71>2005년에도 끈을 한 그리스의 여인을 재현한 영국의 해리포터 주연, Emma Watson	44

<그림72> 진행	49
<그림73> 지배성(원포인트 쉬닝)	49
<그림74> 좌우 대칭적 디자인	49
<그림75> 콘헤어	49
<그림76> 비대칭(상)과 리듬(하)의 예	49
<그림77> 묶음점	50
<그림78> 묶음점을 가질 수 있는 방향들, 측면	51
<그림79> 묶음점을 가질 수 있는 방향들, 정면	51
<그림80> 10대의 묶음점 연출	52
<그림81> 20대 묶음점 연출	51
<그림82> 30대 묶음점 연출	51
<그림83> 묶음점에 따른 쉬닝의 이미지 변화표	52
<그림84> 묶어서 늘어뜨린 형	56
<그림85> 우리나라 엮은 머리 형	56
<그림86> 우리나라 챙머리(펌프도어형)	56
<그림87> 현대의 펌프도어	56
<그림88> 로마의 엮은 머리	56
<그림89> 소라머리	58
<그림90> 아프로 헤어스타일	58
<그림91> 펑크스타일	58
<그림92> 동일 인물에 칼라가 주는 다른 이미지1. 동일 인물에 칼라가 주는 다른 이미지2	60
<그림93> 동일한 인물에 다른 텍스춰라이징으로 인한 다른 이미지	60
<그림94> 활동적 느낌의 웨이브	60
<그림95> 레오나르도의 비트루비우스의 비례론에 대한 도해도	61
<그림96> 인체의 황금비	61
<그림97> 두상과 얼굴의 분할과 비례 연구	61
<그림98> 쉬닝의 계획적 위치와 사이즈 결정 제안	61
<그림99> 연구자의 두상에 황금비율 적용 제안	62

<그림100>땡기의 종류	65
<그림101>꼬기(Twist)기법/ <그림102>루프(Loop)말기/	68
<그림103>매듭(Knot)짓기/<그림104 >롤(Roll)말기/	68
<그림105>겹치기(Overlap)	68
<그림106>쪽진 형	69
<그림107>묶어서 늘어뜨린 형	69
<그림108>엷은 머리 형	69
<그림109>셋팅된 정면	70
<그림110>벽돌 쌓기식 셋팅와 뒷면 모습	70
<그림111>스파니엘 컷 헤어에 셋팅 후면	71
<그림112>스파니엘 컷 헤어에 셋팅 측면	71
<그림113>베이스의 개념들	71
<그림114>소두마끼	71
<그림115>우찌마끼	71
<그림116>C컬과 일러스트	72
<그림117>S컬과 일러스트	72
<그림118>아이롱의 S자컬 제작과정	72
<그림119>아이롱 완성 컬	72
<그림120>헤어피스	73
<그림121>Wiglet	73
<그림122>브레이딩 피스	73
<그림123>브레이딩된 피스를 사용한 연출	73
<그림124>헤어피스 응용	74
<그림125>brown 헤어 filler	74
<그림126>사용될 바비핀과 U핀, 핀셋류	74
<그림127>나비모양 U자핀	74
<그림128>현대의 일자형 비너	75
<그림129>그리스의 비너 식 핀	75
<그림130>두상의 골격(Skull)	78

<그림131>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그림들	78
<그림132> `아방가르드한' 이미지	79
<그림133>쉬농(Chignon)스타일의 이미지 맵(map)	80
<그림134>벽화에 그려진 Minoan여인의 모습	84
<그림135>.작품의 일러스트	84
<그림136>작품 I	84
<그림137>화병에 그려진 그리스 고전시대의 헤어스타일	85
<그림138>현대적인 사이드로의 변형 묶음 점 착안	85
<그림139>캐주얼한 느낌의 쉬농 연출	86
<그림140>작품 II	86
<그림141>작품 III	87
<그림142>작품 IV-A의 모티브가 된 그리스 여인 조각상	88
<그림143>조각상의 재현	88
<그림144>작품 IV-A	89
<그림145>그리스적 모티브	89
<그림146>현대적 느낌의 밴드 연출 착안	89
<그림147>작품 IV-B의 후면	89
<그림148>작품 IV-B의 측면	89
<그림149>작품 V의 모티브, 그리스의 비너스	90
<그림150>조각상에 보여진 비잔틴 시대의 여인의 머리	90
<그림151>작품 V	91
<그림152>로마의 컬이 많은 여인의 머리형	92
<그림153>내추럴 이미지에의 응용 이미지	92
<그림154>이국적인 느낌의 응용 이미지	92
<그림155>작품 VI	92
<그림156>VII-A모티브, 로마 여인의 쪽진 머리	93
<그림157>작품 VII-A	93
<그림158>작품 VII-B의 모티브, 화병에 그려진 그리스 고전시대의 두식과 발형	94

<그림159>황금 면적 분할의 변형 범위	94
<그림160>두상에서의 황금비율을 쉬농의 사이즈에로 도입	95
<그림161>작품 VII-B에 대한 연구자의 일러스트	95
<그림162>작품 VII-B	95
<그림163>로마의 쪽진 여인의 조각상	96
<그림164><그림 163>으로 부터의 쪽진 형의 영감	96
<그림165>작품 VIII-B에 대한 연구자의 일러스트	96
<그림166>작품 VIII-A (다른 색의 구슬 연출)	97
<그림167>작품 VIII-B (같은 흰 색의 구슬 연출)	97

부 록 목 차

<부록1> 현대 20세기의 헤어스타일과 실루엣의 변천과정	109
<부록2> 프렌치 트위스트 스타일	110
<부록3> 고대의 모티브의 현대적 응용 사례	110
<부록4> 앰파이어 스타일의 그리스적 헤어스타일과 실루엣	110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인류에게 있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의지는 아주 오랜 세월동안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태초부터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누구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미적본능으로 미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미용문화의 기원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 민족마다 풍습, 생활습관, 역사와 생활환경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꼭 언제부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약 4 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보다도 이전의 인류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1) 최초의 메이크업은 15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가 열대지방에서 북방으로 이주했을 때 이루어졌다. 이들은 험거운 동물 가죽 망토를 걸치고 몸 위에 그림을 그렸다. 이 시대 메이크업은 계급의식과 장식품으로 그리고 성 발달의 신호로서 시작하였으며, 신체적 표시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질서를 확립하는 일부가 되었다. 머리장식에 있어서 다양한 문양의 머리빗이나 토기, 금, 은 등의 장식들이 사용되면서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후 신체에 행하는 신체장식은 복식과 함께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었다.²⁾ 복식의 동기는 오랜 세월동안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으며, 정숙성이론(Modesty Theory), 이에 대립되는 비정숙설(Immodesty Theory) 즉, 이성유인설(異性誘引說)과, 장식설(裝飾說), 보호설(保護說) 등이 있다. 인간이 치장하고 입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설들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지듯 확대되고 의미되어지고 또 존재해 온 것이다. 인간은 역사의 시작 이래로 머리카락이나 때때로 콧수염을 변화시켰고, 수염을 염색하거나 곧게 피거나 땅거나, 가루를 뿌리는 등으로 그 방법이 다양해졌다.³⁾ 아주 먼 옛날부터 미용은 다양한 재료와 기술과 문화적, 시대적, 공간적인 요구가 가져온 가치에 의해 인간의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온 생활이나 마찬가지로였다고 볼 수 있다. 헤어만이 가지는

1)한 혜숙, 「서양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191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 문화 과학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5, p. 2.

2)한 혜숙, 앞의 논문 p. 2.

3)정 현진 외 5인 공저(共著). 『미용문화사』, (서울: 광문각, 2004), p. 4.

인간의 신체의 일부이면서도 변화무쌍한 변화가 가능한 유일한 신체부위이기 때문에 항상 흥미를 유발하는 재료(材料)로서도 헤어이 존재한다. 머리카락은 삼손의 신화에서처럼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감으로 인해 헤어의 생명력을 암시했고, 때론 여성의 긴 머리카락은 여성에게 아름다움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종교에 따라서는 머리에 과장하는 것은 죄악시되기도 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헤어의 이면을 보게 된다. 헤어는 미용의 소재이면서 미술 조각품과도 같은 빛과 공간의 개념도 갖고, 동시에 시대상, 사회상을 나타내는 복식의 일부로서도 자리매김을 한다. 헤어는 복식이 가지는 특성을 발맞추어 가고 있는데, 헤어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 역시 복식처럼 유행성을 가진다. 인간의 두발(頭髮)은 그자체로서 혹은 의(依)와 더불어 복식이 가지는 제반 기능을 다해 체온을 유지 시켜주며, 신분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인간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두발(頭髮)은 복식 의장학적 견지에서 실루엣을 결정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⁴⁾ 실루엣과 헤어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헤어스타일이 가지는 특성중의 또 하나는 바로 조각의 형식을 취하며 마치 건축양식을 다루듯 3차원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헤어는 3차원의 구조로 선(모발)의 조합이며, 면과 입체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형성은 헤어 자체를 예술적 소재로 연출하고 있다.⁵⁾ 모든 조형(造形)은 ‘인간 의식의 투영(投影)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같은 시대의 조형에는 가끔 유형(類型)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동일 시대의 조형상의 비교는 양식의 비교로서 지금까지 여러 번 등장하였다. 복식과 미술은 아주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전혀 다른 성질의 부분도 많다.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라고 볼 수 있다. 소재(素材), 기교(技巧)상의 차이가 얼마나 조형(造形) 그 자체의 표현을 지배하며 의식을 특징짓는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가령 미술을 순수하게 회화나 조각으로 한정하여 복식과 비교한다면, 복식이 색(色)과 형(形)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조형이라는 점은 미술과 유사하다. 그러나 알몸의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 자체를 직접 소재로 하는 것은 이들 조형과 다르다. ⁶⁾

4) 김 인숙, 「서양 고대 사회의 髮形과 頭飾에 관한 고찰」, 복식 3호 (서울: 1980), p. 95.

5) 박 하나, 「구성주의 조각을 응용한 헤어조형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의상 디자인 전공 석사 학위 청구 논문, 2005, p. 1.

6) 조 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7), p. 90.

그러면서도 헤어는 미술처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 속이지만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기도하다. 신체의 일부인 헤어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내는 삼차원적(三次元的)인 건축(建築)인 것이다. 아이디어 발상에 근거한 디자인의 원칙이 따르고 미적인 개념과 동시에 두상위에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의복을 디자인하는 일은 건축하는 과정과 비교했던 것은 사실이다. 골조로서의 인체는 디자이너인 예술가에 의해 공간예술로 환원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조형적인 특징을 지닐 수 있다.⁷⁾ 헤어에서도 이런 조형적인 특징이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서 현재 까지 이르면서 다양한 디자인과 양식으로 변천하였지만, 지금에 까지 이른 가장 오랜 헤어스타일의 역사속의 한 부분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헤어스타일의 다양하게 변화된 형태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그 당시 실루엣과 어떻게 어우러져 다양하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현재까지 우리에게 또다시 활용되어 갈 수 있는 헤어스타일 및 장식들을 재조명하고자한다. 현재의 창작은 과거의 유행 속에서 다시 짚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헤어의 역사속의 아이디어 발상을 통한 재현과 창작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도인 당시 시대적인 특성과 실루엣, 유행성에 따른 헤어의 모습이 가진 조형성에 관한 기초원리에 입각한 조형적 표현을 가지기 위한 테크닉 원리를 소개하고, 두상의 골격 관찰과 얼굴형에 어울리는 form과 연령에 따른 묶음 점에 맞춰 헤어스타일로서 더욱 역사속의 헤어로 인해 새로운 발상을 얻어 새로운 스타일을 창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론에선 문화적인 이해를 돕고자 고대 그리스에 문화적 영향을 준 이집트의 헤어스타일과 복식을 먼저 살펴보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그리스와 로마가 가진 문화적 특징과 복식과 헤어에 관한 특징을 다뤘고, 현대에 우리가 재현을 하게 되는 이유와 사례를 그 다음 장에서 다뤘다.

7) 이 근영, 「현대 복식에 있어서의 예술성의 개념」, 숙명 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복식 의장학 전공 석사 학위 청구논문, 1989, p. 132.

네 번째 장에선 현대적으로 조형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그리스·로마식의 유형별 연구의 단계로서 먼저 쉬농을 타(他) 올림머리와 형태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올림방법에 따른 유형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로마식의 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조형적인 원리와 텍스춰라이징에 따른 기법을 살펴보았다.

다섯 째 장에선 연출을 위한 도구와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여섯 째 장에선 재현을 위한 작품의 연구와 해설을 언급했고 마지막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과정 중엔 20 세기의 10 년 단위로 특징적인 시대적 배경과 헤어스타일이 갖는 상관적인 특징을 실루엣을 통해서 비교해 보고자한다. 21세기 초를 사는 현대인들이 옛것을 재현하는 의미를 보는 과정에서 현대만의 특징적인 내용도 살펴보았다.

타(他)올림 식 머리와 쉬농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념의 정리·헤어디자인 조형의 원리적인 것과 외관의 특징적인 이미지 분석을 통한 작품 제작으로 그리스·로마식의 재현을 응용범위로까지 도출(導出)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기타 재현의 사례들의 그림 자료로써는 서양의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시대적 영상물속의 인기 영화 주인공들이 연출한 헤어스타일과 수식(首飾)들을 비롯한 대중적인 패션 아이콘⁸⁾인 국내외 여배우들의 헤어 연출사례로 시대적으로 재현된 사례 등을 살펴보고, 해외 패션 아이콘인 유명 여배우들의 영화나 영화제 관련해 등장했던 쉬농 스타일을 이미지화 한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고대 그리스·로마적인 요소의 우리도 모르게 많이 접근해오고, 애용해왔음을 느끼고, 현대적 디자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 헤어스타일의 가능성과 오래된 고전적인 테마로써 그 속에서 전달되는 시대정신을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로서 전달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서양의 미용 문화를 볼 수 있는 국내외 고대의 서양 복식사 및 미용문화사, 재현과 복고풍에 관한, 그리고 헤어 조형에 관련된 논문문헌자료, 헤어관련 향장 지(紙)와 국내외의 스타일 잡지, 영화 관련 및 쉬농 스타일에 관한 외국 인터넷 사이트와 외국 영상필름문헌의 그림 자료, 기법에 관한 미용관련 자료 등 과 연구자의 일러스트와 디지털 사진 작업을 통해서 고찰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8) 패션 아이콘: 패션 스타일과 삶의 방식,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당대의 미의식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의미한다. 대체로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그 인물의 대표적인 패션 영감을 주고, 대체로 급변하는 여성복의 유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 (이화 여자대학교 가정대학원 의류직물학과 박사 학위 청구논문, 2005, p. 182.에서 정의를 인용함)

연구의 범위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근간(根幹)이 되어온 이집트와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로마, 이를 이어받은 비잔틴문화 영향권까지로 정하고, 현대의 범위에서 서양의 20세기는 1899년부터 1999년까지 100년간으로 잡고, 21세기는 2000년-2005년 현재까지로 본다. classic 하면서도 대중적이고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바탕으로 포커스를 맞추었다.

II. 고대에 대한 문화적 이해

1. 고대 이집트의 헤어와 복식을 중심으로 한 특성 고찰

고대문명의 발상지중 하나인 이집트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하며 그 중심부에 위치하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독특한 문화를 가진 문명 국가였다. 이들은 B.C. 4000년경 까지 많은 도시국가들이 나타났다가 B.C. 3000년 경 햄(Ham)족에 의해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 되었는데 이집트는 고왕국의 10-11왕조(B.C.3000-2100), 중왕국시대의 11-17왕조(B.C. 2100-1580), 신왕국시대의 18-30왕국(B.C. 1580-31년)으로 지배되었으며 B.C. 525년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에 정복되었다.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이 3,000년의 문명을 과시하는 이집트는 건조(乾燥)·온열(溫熱)한 기후이기 때문에 청결을 중시하였으며, 통형(筒形)의 개방적인 형태의 의복을 착용하였던 민족국가였다. 이집트의 여인들은 상하 계급을 막론하고 간단한 차림을 하였고, 비교적 짝 끼는 쉬스 가운(Sheath Gown)을 입었다<그림 1>. 이것은 나중에 언급할 엠파이어 스타일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의복은 남녀가 모두 남방 형으로서 흰색 마직(Linen)을 사용했다는 것은 다름없었으나, 남자의 요의(腰衣)는 활동적인데 비해 여자들의 요의는 극히 비활동적이었다. 이는 당시 이집트에서는 여자들을 존중하여 노동을 별로 시키지 않았던 생활 상황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하겠다.⁹⁾

농경생활을 하며 정착하였고, 그들의 종교는 태양신을 가장 숭배하였고, 이집트의 왕은 신이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력을 같은 영원불멸의 왕이 된다고 믿었다. 이들 사후세계를 믿어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의 내부에 함께 묻힌 부장품과 벽화를 통해서 복식과 장식품, 문양, 일상생활 등이 후세에 전해지는데, 내세(來世)에 대한 신앙심은 태양신, 뱀, 독수리, 소뿔, 로터스(Lotus) 등의 상징적인 장식품으로 많이 애용되었다. 남자들은 띠를 허리에 매고 부인은 가슴높이에 매었다.

이들의 노출과 복식이 점차 신분의 상징요소가 되면서 권위를 상징하는 다양한 장신구가 발달되었다.¹⁰⁾ 왕과 귀족은 놀라우리만큼 아름다운 장식품을 사용하였고, 이런 것들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한 태양, 나일 강, 독수리, 무당벌레, 연(漣), 앙크 등의 상징물들이 자주

9) 유 송옥, 「고대 이집트 복식에 관한 연구」, 성대논집 (17), 1972, p. 249.

10) 한 순자, 서 옥경, 이 민주 공저(共著), 『서양 복식 문화사』, (서울: 예학사 2001), p. 17.



<그림1>고대 이집션 패션. 출처: The mode in costume
, p. 4.

사용되었다.

사제들은 순결(純潔)의 상징으로서의 종교상의 이유로, 남녀모두 열을 피하기 위해서 또 청결을 좋아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거나 자른 후에 목욕 및 세탁을 자주하였다. 부유층 남녀들은 가발(wig)을 착용했는데, 맨머리는 귀족이나 왕족의 표시였으므로, 일반 대중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다.¹¹⁾

왕은 스펅크스 머리형태인 크라프트(Kraft:머리수건)를 써서 권력을 나타내며 인공수염(Postiche)도 달았다. ¹²⁾ 가발 사용은 B.C. 2686-2181년 경인 멤피스시대(이집트 최대 번성기인 제 3 왕조에서 제 6 왕조까지)에서 부터 강요되었다.¹³⁾ 이집트인은 철저한 위생(衛生)관념(觀念)과 방서(防暑)의 목적으로 머리를 짧게 깎거나 아주 밀어 버린 후, 전체가발을 썼다¹⁴⁾

11)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N.Y: Crown publishers, Inc., 1970, p. 15.

12) 한 순자, 서 옥경, 이 민주 공저(共著), 앞의 책, p. 21.

13) 정 현진 외 5인 공저(共著), 『미용문화사』, (서울: 광문사 2004), p. 23.

<그림 2>.

남자들의 가발의 크기와 모양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나타냈고, 지위를 나타내는 외부적인 표시로 신분이 낮은 일반 계급은 짧은 머리의 가발로 종려나무, 파피루스 등을 사용하였고, 신분이 높은 귀족 신분은 인모(人毛)로 된 긴 가발을 사용했다. 이에 반해, 여인들의 가발은 태양열로부터 보호하고 시원하게 하고자 모자대신 쓴 이유, 술이 별로 없는 머리를 가리기 위함이란 이유 외에도 이집트 상류사회의 여인의 아름다움에 공헌했는데,



<그림2>고대 이집션의 두식. 출처: Taschen. p. 27.

중대 이집트왕국에서는 가발이 짧고 네모졌지만, 차츰 복잡하고 세련되어져갔다. 여자들의 가발은 빗과 조화, 작은 생화, 색 리본, 옥석(玉石), 화환(花環), 금실로 짜여진 금관 등으로 장식했고, 가발은 새털로 장식되기도 했다. 이집트여인들의 특징적인 머리 장식에는 Vulture cap, Cone, Cow horn등이 있고, Vulture cap은 날개를 핀 독수리모양을 하고 있는 황금제 관으로서 이것을 쓰면 머리 전체를 덮었다. 당시 독수리는 전쟁 시에 왕을 보호하는 신성한 새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장식이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¹⁵⁾. 왕은 개인의 환생(還生)과 재생(再生)을 준다고 믿었던 것으로 추정

14) Miila Contini, 『Fashion』, (N. Y: Crescent Books. p. 34)

되는 뱀의 뱀 머리 장식을 왕관과 Girdle 양옆에 달아 권위를 나타냈는데¹⁶⁾, 독사(Uraeus)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게 된 것은 뱀이 허물을 벗고 다시 살아남으므로 언제나 생명을 새롭게 한다는 생각에서 뱀이 개인의 환생(reincarnation)과 재생(rebirth)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다.¹⁷⁾ 밴드를 앞에만 대었는데, Uraeus는 보이지 않고 뱀의 몸만이 장식되어있다. 그 후 Ramses II (B.C. 1292-1225)는 고제국의 Mycerinus왕이 썼던 것과 똑같은 관을 썼는데, 이는 신제국 이후 ‘복고풍’으로 돌아가려는 경향 때문인 것 같다.¹⁸⁾ [연구자가 복고풍이란 단어에 ‘가점(加點)']

가발의 색은 주로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푸른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으로 염색하여 사용하였다.¹⁹⁾ 가발을 뒤로 늘어뜨리고 때로 옆머리는 짧아서 빗이나 머리띠로 고정시켰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긴 머리를 좋아하였으나 때로는 유행에 따라 남자 같이 짧은 머리를 한 여인들도 더러 있었다.²⁰⁾

가발 정수리에는 13 cm의 원뿔 모양의 향이 나는 기름 덩어리가 얹혀 있었는데 <그림 3>, 이것은 주위 더운 공기의 열기와 몸의 열기로 서서히 녹아내려 머릿속으로 파고들어 어깨로 흘러내리면서 피부는 윤이 났다. 대머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두피 케어도 했고, 물감도 써서 흰머리를 감추기도 했다.²¹⁾ 이 밖에 권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고자하는 여러 종류의 관이 만들어져 신분을 나타냈고, 황금제(黃金製)의 것은 왕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청동이나 금, 나무 등으로 약 20 cm 정도 되는 긴 머리핀과 딱딱한 나무, 뼈 등으로 만든 빗을 사용하였는데, 이 긴 머리핀은 장식적인 것과 더불어 머리를 빗거나 고정(固定)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10>.

15) 김 두임, 앞의 논문, p. 8.

16) R. Tu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N.Y and London: Charles Scribner's sons)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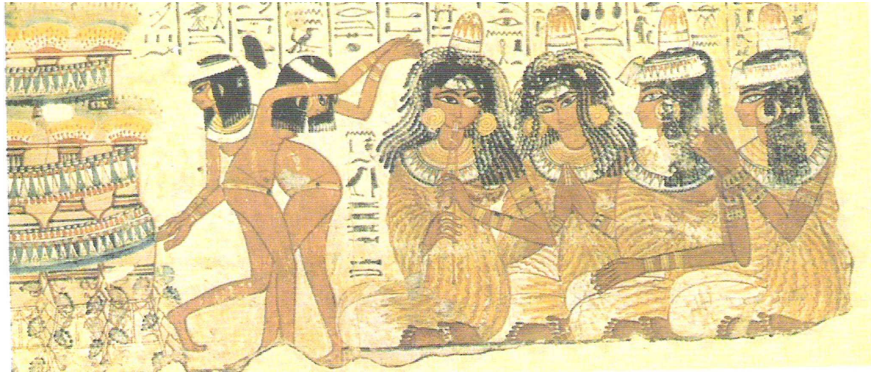
17) G . E 케인즈, 『역사철학 : 역사 순화론 속에서의 동양과 서양의 만남』, 이 성기 옮김, (서울: 대원사, 1990), pp. 20-22에서 인용

18) 김 인숙, 「서양 고대 사회의 발형과 두식에 관한 연구」, 복식 3호,(서울:1980), p. 56.

19) 정 현진 외 5인 공저(共著), 『미용문화사』, (서울: 광문사, 2004), p. 20.

20) 김 두임, 앞의 논문, p. 5.

21) 정 현진 외 5인, 앞의 책, p. 20.



<그림3> 향유를 머리에 든 이집트 여인. 나크트 무덤의 벽화, 미용문화사 p. 20.

2. 고대 그리스

1) 문화적 특징

그리스는 B.C. 2000년 경, 아리아인, 이오니아인, 아카이아인, 도리아인이 남하하여 크레타의 전성기 문명을 흡수하면서 미케아 문명을 발전시켰다. 인간미의 완벽한 전형의 재현으로 서양문화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온 도리아인, 이오니아인 등의 부족이 결합하여 이룬 도시국가(폴리스)로 복합적인 문화를 동시에 나타냈다.

B.C. 1100년경부터 기후가 온난한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으며 문명이 시작되었다. 동방 여러 나라에 접하여 동방문화를 형성하기에 적당한 지역이었다. 그리스 문명은 이러한 도시국가의 민주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많은 인종으로 이루어진 노예제도에 의해서 상공업, 수공업, 직물업, 장신구, 귀금속 업이 발전했고, 그 소유자인 자유시민에 의해 부를 축적하면서 귀족문화를 형성하였다.

인간적이며, 합리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리스 문화는 인간의 능력, 특히 이성을 중시한 문화로 이것은 그리스인들의 도시국가 생활에서 생겼다. 종교, 학문, 예술 등 그리스인들의 빛나는 문화는 그들 개개인의 천부적인 재질이 그들의 개인생활보다는 자유시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생활, 즉 폴리스 생활을 통해서 발현된 것이다. B.C. 4세기 중반의 알렉산더 대왕(Alexandors, 재위 B.C. 356-323년)의 동방 정복으로 그리스문화에 동방의

여러 요소가 혼합된 문명으로 형성된 헬레니즘 문화가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도록 전파했다.

2) 복식과 헤어스타일의 특징

그리스문명과 복식의 발전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1)알카익 시대 (Archaic period) B.C. 1200-B.C. 480
- (2)고전시대 (Classic period) B.C. 480-B.C. 330
- (3)헬레니즘시대 (Hellenism period) B.C. 330-B.C. 146

B.C. 12-11세기의 그리스인의 2차 침입으로 인한 미케네의 멸망을 시작으로 알카익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각각의 고전시대와 헬레니즘 시대적 구분은 페르시아전쟁과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거점으로 한 시대적 구분으로 정하도록 한다.

알카익 시대에는 그리스인의 창의력 있는 예술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크리티의 문명으로 영향을 받은 복식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한 형태에서 초기복식이 시작되어 여성복식은 꼭 맞는 허리와 원피스로 짜여진 관모양의 옷이 착용되었으며 길이가 길어서 어깨에서 발목까지 편안하게 두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복식은 페플로스(Peplos)라 불리며 이는 키톤의 전신 형태라고 본다. 이는 B.C. 1200년에서 B.C. 600년까지 착용되었으며 후에 이오닉 키톤과 도릭 키톤으로 발전하게 된다.²²⁾

고전시대는 자연주의가 결실(結實)을 이룬 시대이며, 이 시기의 복식관은 인공적인 방법이 지양되고 인체의 비례미와 드레이퍼리가 가장 강조된 시기이며 인체와 복식의 자연스러움이 표방된 시기이다. 이오닉 키톤, 도릭 키톤의 혼합된 착용과 자연스런 드레이퍼리의 극대화가 여성복에 나타난다. 고전시대 후기에 들어서면 인체의 자연스런 의복의 우아함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high waist line 이 첫 등장하면서 헬레니즘시대를 맞게 된다.

헬레니즘시대의 복식은 고전시대 양식의 기반으로 동방적인 요소가 융

22) 이 현주, 「고대 그리스와 신고전주의 시대의 여자 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복식의장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1988, p. 24.

합되어 주름의 양과 모습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수평, 사선과 수직선의 변화감 있는 형태의 커다란 드레이퍼리가 나타난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마케도니아의 지배 하에 있었지만 높은 문명의 그리스 복식은 마케도니아의 복식은 물론 로마의 복식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고, 서양문화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크게 공헌하게 된다.

그리스 의상에는 균형미와 완성미를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정신이 보이는 것으로 전체적인 비율과 균형, 조화로서의 실루엣(silhouette)을 중시했다. 즉, 전체적인 미를 추구하던 그들은 의상의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려 하지 않고 의상 전체에 관심이 가도록하는 균형미를 연출하였다.²³⁾ 그리스 복식의 조형적 특성은 드레이퍼리 성이며, 시대마다 나타나는 비례미, 소재와 색채, 문양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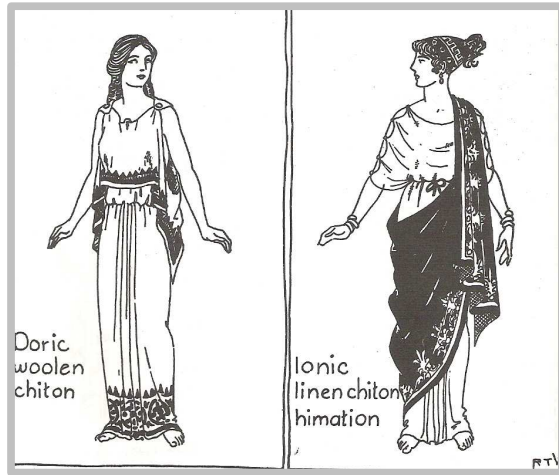
당시 여인들의 지위는 낮았으며, 집에서 직물(織物), 바느질, 요리, 음악을 배우면서 여인들은 제일(祭日)이나 종교적 행사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복식은 도리아인의 실질적인 특성이 나타난 도릭 키톤이 있으며 <그림 4, 좌>, 기본적인 형태는 장방형(長方形)의 천을 반으로 접어서 몸에 두르고 양쪽 어깨를 핀으로 고정시킨 후 허리를 끈으로 한번 묶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살려 여러 번 묶어 준 것인데, 도릭 키톤은 두꺼운 모직을 소재로 만들었으며 실용적이고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스파르타적인 기질이 반영되어 있고, 이오닉 키톤은<그림 4, 우> 얇은 아마나 리넨을 소재로 하여 소매 양쪽을 각각 핀으로 고정시켜 섬세하고 우아한 아테네 풍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주름이 많아 우아하고 여성적이다. 착용 방법은 입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달랐다. 키톤은 상하를 ‘황금비율(Golden Section)’로 나누어 ‘비례와 균형’을 추구하였다. 이외에 방한용(防寒用)으로 히마티온(Himation)이라는 고대 드레이퍼리(drapery)형의 겉옷을 입었다. 의복의 소재는 모직이나 마직물이 사용되었고, 이외에 동방으로부터 수입한 면, 실크, Muslin등도 사용되었다. 의복의 컬러는 키톤은 흰색이 주된 색이고, 반면 히마티온은 푸른색, 자색, 장미색 등의 여러 색상이 쓰였으며, 자색은 귀한 색으로 사용되었다. 그리스 여인들의 의복은 ‘자연스런 인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세부적 장식보단 ‘전체적 비례와 균형, 조화’를 중요시하여 보석사용을 절제하였고, 옷감의 유연성(柔軟性)

23) 한 순자, 서 옥경, 이 민주 공저, 앞의 책, p. 33.

24) 조 신연, 「고대 그리스 복식의 조형미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 디자인전공, 1998, p. 12.

으로 동적(動的)인 미를 표현하려했다. 그리스의 옷은 그리스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모습의 자연적 비율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²⁵⁾

헤어스타일은 전기에 여자들은 앞머리는 곱슬거리게 curl을 하고 옆에는 작은 고리모양을 만들었으며, 1) 뒷머리는 길게 길러 풀어 내리거나<그림



<그림4>도릭 키톤(좌)와 이오닉(우)키톤. 그림 출처: The mode in costume p. 16.



<그림5> 긴 머리 스타일. 그림 출처: The mode in costume. p. 16.

5>, 타래머리를 했으며, 2) 웨이브진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 늘어뜨리거나 3) 목덜미에서 묶는 형태였다. 후기에는 긴 머리를 뒤통수에서 바깥쪽으로 틀어 올려 그물망(nets), 스카프, 리본으로 묶었다.²⁶⁾ 머리형태가 후기로 갈수록 정교해서 B.C. 4세기 절정에는 머리를 목덜미위로 올려 Chignon²⁷⁾하고 이것을 여러 색상의 스카프나 금실로 짜서 그 사이 사이 진주를 끼워 만든 망(網)으로쌌다. 핀(pin)과 베일(veil)도 장식품으로 사용되었고, 핀은 약 10-12cm길이로 만들어 금박(金箔)을 입히거나 옥석을 박아 뒤로 모아진 머리위에 꽂았다²⁸⁾<그림129>.

25) 마를린 혼, 루이스 구렐, 『의복: 제 2의 피부』, (서울: 까치, 1988), p.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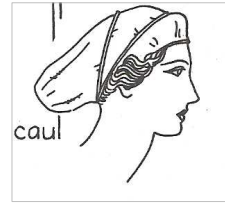
26) 한 순자, 서 옥경, 이 민주 공저, 앞의 책, p. 34.

27) Chignon: 쉬농(Chignon)이란 불어로서 남성형(m.)명사로 쓰이며, 사전적인 의미는 ‘뒤통수에 틀어 올린 머리’, ‘쪽 땀아 내린 머리’, ‘뒷머리에 땀아 붙인 쪽’, ‘모발의 매듭이나, 곱슬털이 닿는 정수리부분이나 목덜미 부분’, ‘작은 망사나 그물 같은 것으로 뒤에 땀아 붙인 쪽’, 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성행되었던 여자머리모양으로 머리를 땀거나 목뒤에서 묶은 형태)란 다양한 유사한 정의가 있다. 그리스의 남성과 여성들은 머리띠를 했고 긴 머리 스타일을 묶거나 느슨하게 늘어진 상태를 유지했다. 보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curling irons를 하였다. 대체로 올린 머리의 응용스타일로서 오랜 이집트시대부터 있어왔으나, 현대적으로 재정의 되어져 내려져 불리워진 것이다.

신체엔 균형 있는 육체미를 나타내려고 했고, 헤어에서는 머리를 장식 하



<그림6> 헬레니즘 시대의 여인들의 머리와 장식. 출처: 미용문화사. p. 27



<그림7>카울(Caul). 출처: The mode in costume, p. 17.

는 것으로는 화환(花環), 관(冠), 금속제(金屬製)의 세환(細環), 천 장식, 장식망(網)으로 보석을 넣은 호화로운 것이었다²⁹⁾ <그림 6 >.

베일(veil)은 마(麻), 비단, 모(毛) 등으로 만들었고, 백색이 가장 많이 쓰여졌다. 당시 귀족부인들은 옥석(玉石)으로 장식된 관(冠), Tiara, Stephane, Djadem 등을 이마위에 높이 써서 상아(象牙)나 나무로 만든 빗을 머리 뒤에 꽂거나 좁은 끈으로 고정시켰다.³⁰⁾

짧은 머리는 애도를 표시 할 때나 노인, 노예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부정한 여자의 경우 벌의 의미로 남편이 머리를 깎는 등 머리의 아름다움을 중히 여겼다.³¹⁾ 금발을 좋아하여 상류층의 경우 머리를 황금색으로 물들게 하거나 표백을 하였다. 머리장식엔 실용적 기능을 중요시해 머리띠, 스카프(scarf), 넷(nets), 카울(Caul)<그림 7> 등을 많이 사용되었고 머리를 늘어뜨릴 때 머리끝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작은 주머니를 묶어 놓은 경우도 있었다.³²⁾

28) 김 두임, 앞의 논문, p. 16.

29) 이 정옥, 최 영옥, 최 경순 공저(共著),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9), p. 66.

30) Carolyn G. Bradley, 『Western World Costume an Outline History』, (New York: Appleton-E-Crofts, Inc., 1954), p.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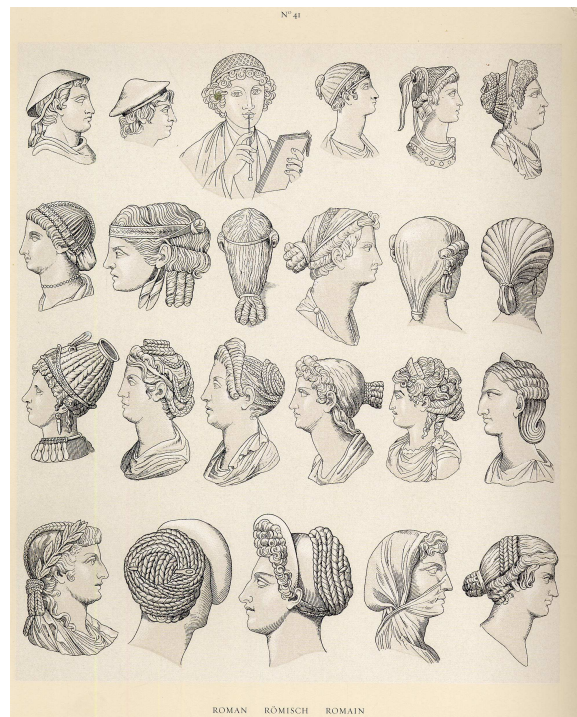
31) Mila contini, op. cit., p. 34.

32) 이 현주, 「고대 그리스와 신고전주의 시대의 여자 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 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p. 51.

3. 고대 로마

1) 문화적 특성

로마시대의 편년은 왕정시대와 공화시대(A.D 753-729), 제정시대(A.D. 29-B.C. 400)로 나눌 수 있다.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일찍이 주변지역과의 문물교류가 활발하여 외래문물의 수용(受容)에 관대하였다. 또한 그리스의 문화를 토대로 헬레니즘, 에트루리아, 이집트 등 선행 문화를 흡수하여 고대의 문화를 중세에 남겨주었다는 것이 큰 유산이다. 로마는 ‘현실적, 물질적, 실용적’ 문화를 이루었다.



<그림8>로마인의 머리와 장식, Taschen, p. 68.

2) 복식과 헤어스타일의 특성

의복자체가 신분의 의의를 갖게 되므로 복식에 대한 여러 규칙이 생겨났으며 권의나 권력을 갖는 아름다움은 있어도 그 자체의 순수한 미는 소멸(消滅)되었다³³⁾. 당시의 조각, 건축, 문학작품 등에서 볼 때 그리스의 드레이퍼리형 의복을 계승하였으나, 현실성을 가미하여 장방형의 큰 모직인

33) 한 순자 외 2인, 앞의 글, p. 38.

초기엔 남녀모두가 토가(Toga)를 입었었는데, 반원형, 타원형, 팔각형의 천을 접어 몸을 감싸 앞으로 늘어 뜨려 입었으며, 그리스의 히마티온보다 주름이 많고 장대해 로마의 권위와 박력을 보여주는 사회적인 역할을 했다. 후기엔 점차 갈수록 복잡해지고 형식화된 공식복으로 남자들만 착용하였다. 여성은 점차 부드러운 스톨라를 입었으며, 외출 시엔 그리스의 히마티온과 비슷한 긴 솔형태의 Palla를 머리에 둘렀다<그림 9>. 로마의 문양으로는 인동 넝쿨, 아칸서스, 월계수 등의 그리스 문양이 더 복잡하고 화려하게 도안되었으며, 머리모양은 그리스와 비슷하였는데, 로마초기의 여자들은 쉬뇽(Chignon) 형태와 뽕빠두르(Pompadour) 형태의 머리 모양<그림 14>이었으며, 머리에 리본, 화환, 장식 망 등으로 장식하였고, 머리장식으로 보석장식의 스테판(Stephan)도 착용하였다.³⁴⁾ 그러나, A.D. 2C경엔 단순한 형태로 변하였다<그림 15>. 또, 유행에 따라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양쪽을 곱슬거리게 하였거나<그림 16>, 머리전체를 켄(curl)을 하였다<그림 12, 13>. 머리를 뒤에서 땡아 위로 올려 고정시키거나 땡은 머리를 둘둘 감은 정교한 것도 유행하였다.³⁵⁾ 머리쓰개로는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Petasos가 Petasus 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것도 그리스의 영향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상류사회는 숙련된 노예에 의해 빗겨졌으며 향유와 머리 분(粉)을 이용해 항상 윤기가 나도록했으며, 특히 금발을 좋아해 물들였다. 하루계급은 노랑이나 청색으로 했다. 머리장식으로 그리스 여인들이 썼던 스테판(Stephane), 디아템(Diadem) 등을 더욱 장식하였으며, 보라나 적색으로 된 띠를 머리에 둘렀다.³⁶⁾ 이후엔 아름다운 빗이나 핀을 꽂았으며 때로는 망(網)으로 싸기도 했다. 당시 장식품으로 쓰이던 금, 은 상아로 만든 핀 끝에는 비너스나 큐피드의 형태를 만들고 그 속에는 향수를 넣었다³⁷⁾<그림 11>. 그런데, 이것은<그림 10>의 이집트여인의 비너 식 핀과 흡사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의 긴 핀 끝의 장식은 특유(特有)의 문화적인 요소를 각각 가미(加味)한 것으로 보이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로마 말기엔 교회에 들어 갈 때 머리에 Veil을 썼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모든 여자들 간에 보급되어 종교의식이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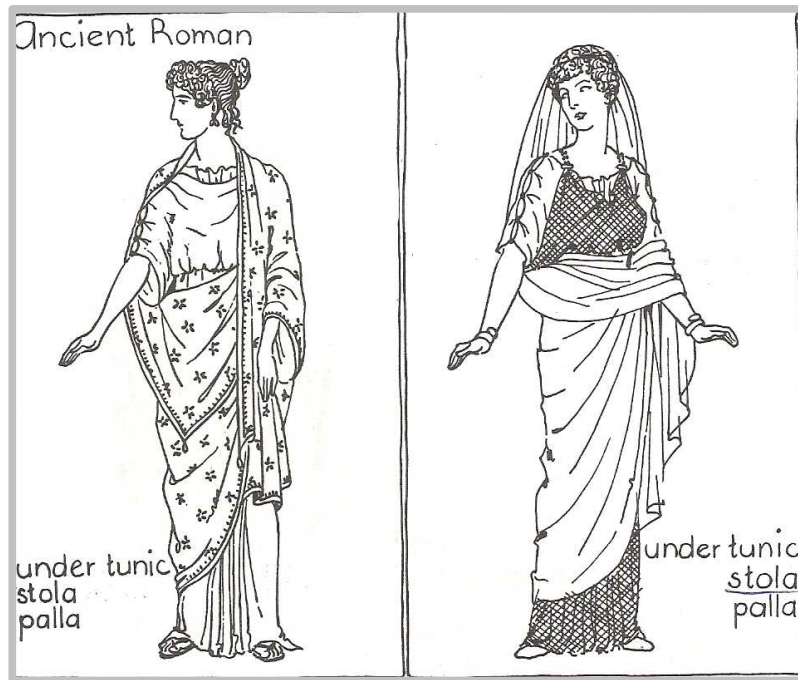
34) 한 순자 외 2인, 앞의 글, p. 41.

35) 김 두임, 앞의 논문, p. 21.

36)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n, Abrams, Inc.,1966), p.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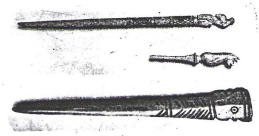
37) Lester,Oerke, op.cit., p. 119.

철하였던 중세에 와서 절정(絶頂)에 달하였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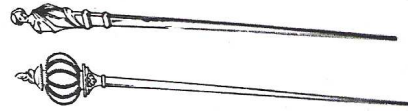


<그림9>로마의 스톨라와 팔라. 출처:The mode in costume. p. 22.

38) 김 두임, 앞의 논문, p. 23.



<그림10>이집트의 긴 머리 핀, Accessories of dress p. 117, fig 141.



<그림11>로마의 긴 핀. Accessories of dress p. 119, fig 149.



<그림12> 고대 로마의 곱슬이 많은 여인. The mode in costume. p .23



<그림13>로마여인의 곱

<http://www2.ac-toulouse.fr/col-jmoulin-toulouse/coif1.htm>



<그림14>18C 뽕 빠두르형. 출처: 미용미학과 미용 문화사, p. 118.



<그림15>A.D 2C 단순해진 로마 여인의梳理. Survey of historic costume, p. 69.



<그림16>가리마를 하여 곱슬거리게한 로마의여인. Taschen, p. 67.

Ⅲ. 재현에 관한 이해

현대적인 재현을 의미짓고, 그 사례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재현된 사례에 관해 논해볼 20세기 각 10년마다의 시대의 특징과 헤어스타일과 연관해 실루엣의 변화를 먼저 알고자 20세기 현대의 decade 별 시대적 특징을 재현에 관한 고찰의 과정 중에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20C 현대의 특징

<그림 17>는 20세기의 실루엣과 헤어의 변화를 보여준다<부록1 참조>.

매 해의 유행은 과거의 것을 기초로 하여 이전 스타일의 자연적인 발전 또는 수정이라고 볼 수 있다.³⁹⁾ 점선이 그려진 선을 통해서 스커트 기장의 길이 변화와 시대마다의 헤어스타일의 변천과, 라인들의 변화, 두식 및 모자의 크기, 변화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다른 각각의 아이탬들도 이와 같이 변천을 여러 개의 실선으로 한꺼번에 이처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불황이나 호황, 전쟁전이나 후이나에 따른 착식의 변화를 연도의 흐름과 함께 동시에 볼 있는 것이다. 나중에 있을 20세기의 실루엣에 관한 법칙과 관련된 특징을 언급을 하고자 이 그림을 실었다. 여기서 우선 차례대로 10년 단위로 보기로 하겠다.

1) 1900년대.

1900년대 ‘뽕빠두르 스타일’<그림 14>이 유행하였는데 18세기와 달리 느슨한 형태가 유행하였고, 앞머리는 이마위로 빗어 올렸고 뒷머리는 뒤에서 올려 높이 고정 시켰는데(쉬농), 가끔은 rat이나 switch 같은 인공 패드를 머리속에 넣어 부풀리는 효과를 주었다. 부풀릴때는 백코밍(Backcombing) 효과를 주었다. 앞머리는 이마 너머로 넘겨지거나, 펴프되어지고, 패드나 쉬농은 이마 가까운 곳이나 머리꼭대기, 목의 중간이나 낮은 곳 등 다양하게 부착되었다. 아르누보의 풍요로움이나 곡선미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8>. 20세기 이전보다는 무척 단순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과잉 장식적 헤어에서 단순 형태로 가는 첫 단계라고

39) 마를린 혼, 루이스 구렐, 이 화연 외 옮김, 『의복: 제 2의 피부』, (서울: 까치가정학, 1987), p.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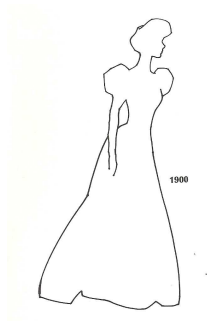
<그림 17> 20세기 실루엣 주기의 재현 및 변화. 『의복: 제2의 피부』, p. 252 인용.

볼 수 있다.⁴⁰⁾

2) 1910년대.

‘아르테코의 시대’로서 기계적이고 기하학(幾何學)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따라서 여성적이기 보다는 단순함을 강조한 디자인이 등장한다. 아르누보적인 S자 실루엣에서<그림 20>, 아르테코 적인 로우 웨이스트의 직선형 실루엣이 나타나고<그림 19>, <그림 24, 27>에서 보듯 뿔 뿌아레의 디자인엔 그리스의 요소가 나타나 간결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에 그리스식의 헤

40) 이 귀영, 「큐비즘을 응용한 헤어스타일의 조형성 연구」, 대구 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02, p. 18.



<그림18>1900년의 실루엣.



↑

<그림 19>1911년의 실루엣

어스타일을 모방하여 등장한다. 1912년에 이르러 기능주의적인 성향으로 변화된다. 1914년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세계 패션계를 침체 시키고, 호블 스커트와 같은 tunic 형의 스커트가 등장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현대화가 진전되어 skirt 가 짧아진다. 여성이 과잉장식에서 벗어나 기능적이고 스마트한 짧은 머리를 하는 계기가 1차대전 후 직업을 가진 여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시기에 나타난다.

3)1920년대

‘보이쉬(Boyish)<그림 25>시대(1920-1925)’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프랑스에선 가슴과 hips를 강조하지 않고 허리를 조르지 않는 스타일로 남장을 모방한 가르송느(Garçonne)스타일이 1926-1929년까지 유행하고, 미국에선 젊음을 추구하여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 유행인 자유분방한 말괄량이란 의미의 플래퍼 스타일(Flapper style)<그림 2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매가 없고, 가슴이 파이고, 불규칙한 스커트 길이 등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스타일로 허리선은 로우 웨이스트(low-waist)에 짧은 머리의 조화가 20년대 특징이었다. 영화산업의 발달로 스타의 패션을 모방하는 풍조와 머리를 짧게 한 Bob 스타일의 유행하였다. 모자의 크기도 작아지고 장식도 적어지게 되고 5 cm 정도의 핀을 제외한 핀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장식적이던 빗과 핀이 실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다.

4) 1930년대

‘ Military look의 시대’다. 1929년 뉴욕시장의 대폭락을 계기로 세계공황이 일어나고 전쟁 후 세계경제에 대파탄을 물고 오자 일자리를 잃은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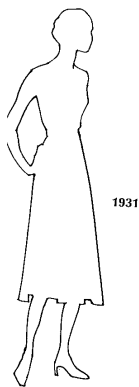


<그림20>1901년 아르누보양식 외출복과 두식. 출처: 조 규화. 복식미학.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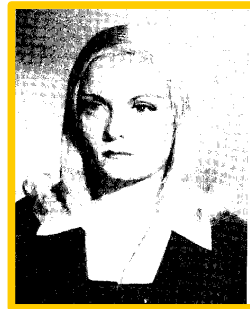


<그림21>20년대의 플레퍼 스타일. 출처:의복-제2의 환경. p. 111.

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 왔고 여자다움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스커트의 길이가 다시 길고 전체적으로 날씬한 실루엣으로 허리선이 다시 부활하였다<그림 22>. 1936년 스피크만(Speakman)이 아황산수소나트륨을 이용하여 100℃ 전후의 가열이 필요했던 시술 온도를 실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충분한 웨이브가 형성될 수 있는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라는 영구적인 웨이브 만드는 방법이 창안됨에 따라 당시 세계불황인 것과 맞물려 일반



<그림22> 1931년 실루엣



<그림23>영화<백금밭의 여인>(1931)의 진 할로우. 출처: 미용문화사, p.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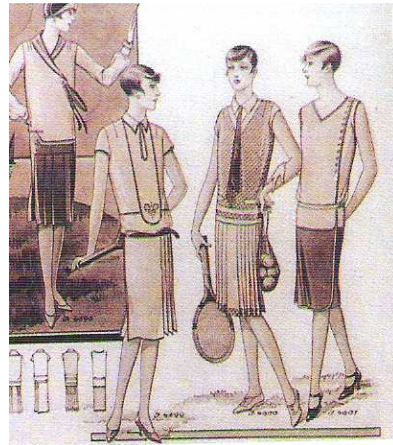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었다. 20년대의 단발에서 성인스런 분위기로 변화되고, 염색이 보편화되고, 여성스러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은 진 할로우(Jean Harlow)<그림 23>의 금발을 동경하여 헤어 브리치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할리우드 배우들이 유행을 이끌었다.

5) 1940년대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서서



<그림24>1911년 원통형 드레스와 두식. 출처: Poiret. p. 120.



<그림25>보이쉬 스타일.Fashion of the Roaring 20's, p. 73.

히 유행되고 있던 밀리터리룩이 전쟁이 끝난 1946년까지 계속되어 널리 세계여성복식으로 유행되다가,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뉴룩(New Look)의 발표로 억눌려온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출하여 각계의 찬사를 받았다 <그림 26>.

이러한 뉴룩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에도 등장하였다. 의상과의 조화를 위해선 볼륨을 되도록 작게 표현하고 긴 머리를 잘 빗어 뒤쪽으로 붙여 프렌치 트위스트 스타일로(<부록 2> 참조) 창조되었고,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헤어가 다시 짧아지며 두상을 작게 표현하여 셋팅과 퍼머넌트가 유행하였고 **쉬농(Chignon)**이 인기가 있었다.



<그림26> 1947년 뉴 룩. 복식미학, p. 308.



<그림27>1908년 Paul Poiret 의 디자인과 두식을 그린 일러스트레이션. 뽀리브의 그림, 출처: 조 규화, 복식미학, p. 58.

6) 1950년대

‘라인(line)의 시대’였다. 유럽의 문화권에서 미국 문화권중심으로 넘어간 시기이다. 전쟁 후 냉전체제는 적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경제의 발전과 자본축적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이런 경제적인 호조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향으로 패션의 산업화를 촉진시켰다. 1950년대엔 수많은 라인들이 여성 실루엣으로 발표되어 ‘라인(line)의 시대’라고하며, 라인으로 인한 실루엣의 변화는 허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슬림 웨이스트, 하이 웨이스트, 로우 웨이스트순서로 경과하면서 복식사적인 회전을 보였다.⁴¹⁾ 포니테일 스타일<그림 28>, 숏트 컷을 물을 말라 부풀린 듯한 버블 스타일(Bubble style), 헵번식의 짧은 머리와 마를린 몬로 스타일<그림 32>이 유행하였다.

7) 1960년대

‘영(young)패션의 시대<그림 33>’였다. 히피(Hippie)문화, 아프로 스타일(Afro-style)유행하여 흑인 특유의 머리를 장식없이 그대로 빗질하여 부풀

41) 김 미진, 「복고적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 디자인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학과 의상전공 석사 학위논문, p. 13.

린 것이 유행하였다. 부푼트 스타일(Bouffant)<그림 31> 은 머리길이 에 상관없이 사용되었다. 비달 사순의 기하학적 컷이 등장했다. 재키(Jackie)의 비히브(Beehive) 스타일이 백코밍으로 60년대 유행하게 되고<그림 30>, 가발과 피스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림28>50년대 포니테일 스타일 In vogue, p. 144.



<그림29> 프렌치 브레이드, 출처: 메이컵과 패션 p.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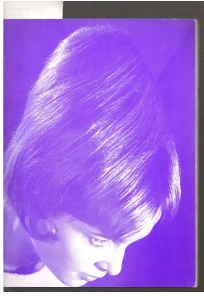
8) 1970년대

‘펑등과 팬츠의 시대<그림 34>’였다. 여성들 사이엔 자연스런 형태를 선호하여 자연스럽고 간결한 머리형이 어필되는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기도 했다<그림 35>. ‘점점 복잡해지는 생활양식과 여성들의 활동영역의 확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연스러움이 강조된, TV드라마 미녀삼총사에 등장한 파라 포셀트(Farrah Fawcett)식의 길고 자연스런 웨이브가 유행<그림 36>하였고, 70년대 후반 핑크 룩의 등장하여 스파이키 헤어가 등장하였다.

9) 1980년대

‘민속복식의 시대’였다고 말해진다. 앤드러지너스(Androgynous)<그림 37>식의 표현으로 성별이 구별되지 않았고, 영국 다이애나 비의 머리가 유행하기도 했다. 퍼머넌트의 전성기라 할 만큼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 시대이고 뉴웨이브의 영향으로 특이한 머리모양과 컬러가 유행했다. 디스코 머리형인 프랑스식으로 땀은 스타일인 프렌치 브레이드가 유럽에서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유행되고 있었다<그림 29>.



<그림30>60년대
Beehive스타일.
Haircults, p. 43.



<그림31>Bouffant 스타
일. Haircults, p. 41.



<그림32> 마블린 몬
로 스타일, 네이버 검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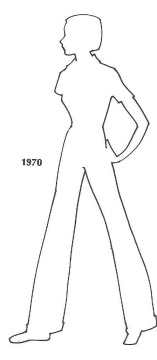
10) 1990년대

과거로부터의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융합(融合)하거나 받아 들여 표현하는 시대 라고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변화가 용이(容易)한 헤어가 표현되고 과감하고 파격적인 색상과 형태가 개성에 맞게 창조되고 얼굴과 전체적인 이미지 창조에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시기이다.



<그림33>♂

<그림33>1960년대 실루엣



<그림 34>♂

<그림 34>1970년대 실루엣



<그림35>1975년

실루엣



<그림36>70년대
Farrah Fawcett,출
처: 네이버 검색



<그림37>80년
대, 데이빗보위,
앤드리지너스.

출처: Hair cult
P. 66.

어떤 유행의 형식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것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혼합하여 수용, 발전하는 특성을 지닌다. 95년에는 로맨티시즘과 바로크, 로코코 스타일이 재현되기도 했고, 97년엔 19C 로맨티시즘이 부활하는 동시에 앰파이어스타일(Empire Style)이 재현되기도 했다.

1900년대를 거쳐 21세기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화에 따른 타문화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해 다양한 문화와 정보의 공유로 인해 민속적, 시대적,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한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헤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유행의 주기가 짧아지고, 상이한 스타일의 동시대 공존과 혼합으로 오늘날 미의 재창조에 기여하며 독특한 스타일을 가능하게 했다. 20세기 들어와서 헤어스타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다양한 개성의 표현욕구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20세기의 패션의 유행의 법칙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20세기유행이 갖는 유행의 특성이 과거 16-19세기와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본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연구 고찰과정 중의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림 17>에서 보듯이 20세기의 복식은 실루엣과 더불어서 변화된 머리를 갖고 있는데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50년대 특징인 수많은 라인들(H, A, Y라인 등)을 디올이 발표하면서 이러한 건축적인 실루엣을 완성하기 위해서 머리의 크기가 작아졌어야 했다.

이러한 라인을 보여주기 위한 실루엣에서는 머리가 짧아지거나 올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슬림 하고 보이시한 실루엣에선 짧은 Bob컷이 어울렸다.

이것은 유 근순(柳根順)씨(1984)의 홍익대 산업미술 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의상디자인전공 석사학위 논문인 「칼라와 헤어스타일의 관계에 관한 고찰(16-19C Paris를 중심으로)」에서 언급한 것과 **다른 법칙이 통용**된다는 것이 **20세기가 갖는 특이점**이다.

유 근순(1984)씨는 16-19C엔 ‘collar가 높아질수록 머리는 짧아지고, collar가 낮아질수록 머리가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그의 논문 p. 2.를 인용한 것이다. 즉, 깊게 파인 neckline에 머리는 작게 올려 빚은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특이하다고 했고, 그 대신 호화로운 목장식으로 보충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넓게 파인 neckline에 어깨까지 부드럽게 내려오는 긴 듯한 머리형이 매치되었다는 것이 이전 논문의 고찰된 물의 내용이었다. 그럼으로써 collar와 hair style의 종류 및 변천과정을 연구해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처음으로 재정립한 아주 흥미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물이 그 연구 범위 밖의 다음 세기부터는 <그림 38, 39, 40>에서 보듯이 이런 물은 현대 20세기 실루

옛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칼라가 낮아도, 높아도 아무 상관관계가 현대복식에선 나타나지 않고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볼륨 있고 여성스런 실루엣을 강조하고자하는 라인에서만 머리를 올리거나 짧은 머리 길이로 권장되어진다는 점이다. 특히나 90년대엔 ‘혼용’과 ‘공존’의 시대이다. 따라서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를 사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선 현대에 결혼식에 나타나는 로브 데콜르페(Robe de collete)⁴²⁾ 실루엣에서조차 전혀 어색함을 찾을 수가 없다<그림 38, 39>.



<그림38>칼라가 낮아도 머리가 짧은 혼용의 90년대. 다음 검색



<그림39>칼라가 낮을때 머리가 긴 90년대. 다음검색.



<그림40>칼라가 높아도 머리를 낮게 드리운 형. 다음검색.

20세기를 살펴보는 실루엣의 고찰과정 <부록1>에서의 발견된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즉, 16-19세기에 보였던 ‘칼라가 높아지면 머리가 높아지고, 칼라가 낮아지면 머리길이가 길어진다’는 ‘반비례 조화이론’이 20세기에 적용이 안되고, <표 1>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위와 반대로 의도성을 갖고 매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매니쉬 룩(Mannish Look)이 그런 것인데, 대조되는 성질의 것이 강조되는 효과를

42) 로브 데콜르페(Robe décolleté): 일반적으로 이브닝드레스에 많이 파인 가운이나 등 일부를 노출시킨 보통 소매가 없고 옷자락이 길게 끌리는 야외복의 격식을 말한다. 피복백과사전. 피복문화 협회 편.(조화 44년), p. 543.

가져온다. 예를 들면 매니쉬(Mannish) 스타일로 인해 남성복처럼 옷을 입은 여성의 여성성이 더욱 돋보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한다.

실루엣	매치 아이템.	느낌	이미지	헤어스타일
직선적(H)롱&슬림 ■ (튜블러, 시미즈, 실린더 실루엣)	슬랙스&롱스커트. 60년대 미니 스커트와 20년대 Boyish, Flapper, Garçonne 패션 무릎길이나 샤넬라인스커트	수평적 연장선	남성적	Bob style, Short Cut
Flare라인. 볼륨선(O.A.S)있는 부드럽고 둥근 (●◆) 라인 예: 	그 외 미디엄 롱 스커트	비수평적 확장	여성적	올림머리, 롱헤어

<표1> 20C 현대의 헤어스타일과 실루엣과의 상관관계

이밖에도 머리모양이 정교해지면 머리모양의 유지가 모자로는 어렵기 때문에 모자의 사용은 감소된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의복의 신체보호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여성의 자아실현과 개성의 표현으로 표출된다.

2. 옛식을 재현(再現)하는 이유

1) 재현(Historicism)의 정의

복식은 착용하는 시대의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다양하게 변화하며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복고풍 패션(Retro Fashion)’이란 말로 현대복식에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회귀는 유행이 갖는 표현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복고(復古)의 재현은 과거에 대한 향수(鄉愁)의 표현으로 패션의 주기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복고(復古)의 사전적인 의미는 ‘옛것으로 돌아감’을 뜻하며, 복고주의는 지난날에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말한다. 43) 복고 패션은 영어로 ‘Retro fashion’이라고도 하며 이는 ‘회고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의 약어에서 출발한 용어이다.44)

재현(Historicism)이란 고대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본 복고풍의 유형으로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과거의 양식을 재현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복고풍의 재현(再現)이라고 해서 그대로 완전히 그 모습을 그대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요소들에서 해체, 축소, 확장, 과장, 등을 하여 새로운 예술로서 창작을 할 뿐이다. 새로운 창작에 시대미를 가미하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복고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과거양식의 스타일의 재현으로 고대에서 19세기까지의 복식사를 기반으로 한 스타일의 재현, Ecology 적인 전원적 목가적인 재현, Ethnic적인 민속복을 바탕으로 한 현대패션으로의 재현의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은 한 세기 내의 유행 스타일이 10년 내지 그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45) 50년대의 할리우드 스타일<그림42, 43>의 재현 등을 두 번째 관점의 예로 들 수 있다.

복식사에서 보면 다음 사례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각각의 세기엔 복고풍이 부활하곤 하는데, 20세기 말도 특히 1982년 패션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받아 들여 과학기술에 지배받는 기능성을 초월하여 과거의 모드를 현대에 가져와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려는 시도로 복고풍이 등장하기도 했다.

20세기에 복고풍이 등장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고갈, 향수, 자연에의 동경 등으로 불러일으켜진 것이다<그림 44>.

43)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어문각, 1992)

44) 조 규화,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1995(편)), p. 104.

45) 김 미진(1999), 「복고적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 디자인 연구-버슬 스타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석사학위 논문,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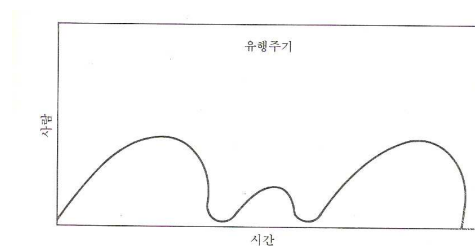
<그림 42>조선일보 웰빙특집 2005년 11월 23일자, D1.



<그림 43>해변식 복고풍의 엄정화. 출처: 다음 검색 <그림 44> 전통 한복과 머리형의 재현 Daily Zoom 2005년 10월 21일자 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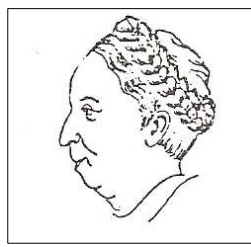


<그림 44>습



<그림 41> 유행주기. 의복-제2의 피부. p. 253

<그림 42> 50년대의 오드리헵번



<그림 45>16세기 쉬농스타일. 황 의선, 앞의 논문 부록.



<그림 46>20세기의 머리.Pivot Point. long hair design.

둘째, 일정한 주기성을 갖는 유행<그림 42, 43, 47>의 하나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다.<그림 48, 49, 50>도 비슷한 유형의 응용 형으로 재현된다.

셋째, 전에 없던 새로운 것, 첨단적인 것을 창작하여 유행시키면 다음에는 옛 것을 다시 내놓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맘에 들게 하여 역사적인 회귀를 유도 한다⁴⁶⁾<그림 45, 46 >.

넷째, 새로운 유행이 고갈되었을 때 새로운 모티브로서 과거의 것에서 따와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낯설지 않게 접근하고자 복고풍을 유행시킨다. <그림 43, 44, 46, 47, 50>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46) 조 규화,(1994), p. 248.

2) 고대 그리스·로마 풍 재현의 사례연구

복고의 재현이란 과거의 요소와 양식을 절충하여 현재 인간의 감정과 정서, 시대상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으로 새로운 양식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지나온 사례를 통해 재현의 의미와 현대까지 전승되어져야 하는 이유를 더욱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재현된 사례로서는 그리스·로마의 양식을 중세에 전달에 기여하고 그리스적 요소를 많이 가진 비잔틴부터 20세기까지 시대들과 최근 2000년대의 복식과 헤어요소로써 대표적인 그리스·로마식의 재현 실례들만을 살펴본다.

(1) 비잔틴의 그리스·로마 적 요소

서로마가 멸망한 5세기 후반부터 (A.D 476년) 르네상스 이전 1000년간을 중세라고 한다. 중세는 금욕적인 정신의 영향으로 육체를 많이 가리었고, 그로 인해 헤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잔틴은 복식사에서도 **고대와 중세를 구분 짓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현대 피복의 기초를 제공한 시기이다.⁴⁷⁾

비잔틴시대에는 그리스·로마와 같은 켈이나 웨이브는 사라지고, 머리 자체의 형태보다는 머리를 감싸는 형이 주를 이뤘다. 초기에는 머리를 땡아서 늘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리본을 묶는 형식에서 후기로 갈수록 터번이나 베일로 머리카락을 싸서 장식하는 수식이 발달하였다.

비잔틴의 문화 복식 예술은 동로마에 남아 있던 헬레니즘적 요소를 기반으로 기독교적인 요소, 동양의 문화를 융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의 초기의 의복으로 로마처럼 Stolla 와 Palla를 입었는데, 차츰 기독교의 영향으로 신체를 가리는 형으로 바뀌어 튜닉위에 팔리움(Pallium)을 입어 어깨에 고정시키는 식으로 변하였고, 서로마 제국이 망한 후 서유럽은 게르만적인 요소를 반영했지만, 중세 초기의 프랑크인의 망토(Manteau)는 **그리스 복식과 유사한 drapery**를 나타내준다.⁴⁸⁾ 10 세기말 상류 귀부인들 사이에는 긴 머리를 좋아 하여 자르지 않고 이때 머리를 길게 땡아 뒤로 늘어 뜨렸다.⁴⁹⁾

47) 이 춘희, 西洋 被服史, (서울: 益文社, 1976), p. 30.

48) 유 순례, 「고대 그리스 복식의 조형성」, 숙명 여대 의류학과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1983, p. 56.

49) Lester, Oerke, op. cit., p. 9.

11세기, 12세기 절정에는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된 로마네스크(Romanesque)문화가 일반화되었다. 'Romanesque'란 '로마 풍'이라는 의미이지만 11, 12 세기에 나타난 이 양식은 로마와 게르만의 여러 요소가 혼합된 것이라도 본다. 신체를 많이 가리는 의복 뿐 아니라, 머리형태와 장식에도 현저한 특징이 나타난다.⁵⁰⁾ 이시기엔 재단법을 발달과 함께 인체 곡선을 나타내는 실루엣이 등장한다. 고대 그리스 드레이퍼리 에서 보여주는 slim-line의 실루엣에서 상체와 허리가 꼭끼고 스커트가 넓은 X자 실루엣이 등장한다. 이 실루엣이 이후 여성의 패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체미(人體美)의 인식**으로 **그리스정신**을 또 한번 보게 된다.⁵¹⁾

(2) 중세 고딕의 그리스·로마 적 요소

12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껏 길게 땡아 늘어 뜨렸던 머리를 위로 올려 꼭 붙게 **망(網)**으로 짰으며 두개의 띠 바베뜨(Barbette)와 필렛(Fillet)를 사용하여 머리를 둘렀다. 그런데 여기서도 망(網)을 이용한 스타일은 그리스에서도 보았던 것이다<그림 51>. 이는 또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타렛 오히라의 쉬농의 재현에서 이러한 모티브로서의 **망(網)방식**이 종종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부록 3> 참조

고딕시대의 고딕양식은 중세인의 생활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시기였고 여성의 머리형태는 본격적인 발달을 보게 된 게 이 시기이다. 당시의 여성들의 의복은 고대복과 같이 가느다란 체격(體格)에 아름다운 인체곡선(曲線)을 나타내었다. **그리스인들의 인체미(人體美)**에 대한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3) 근세(近世)의 그리스·로마 적 요소

르네상스시대는 15세기 중엽(中葉)부터 17세기 초기(初期)까지를 가르치며 북유럽은 16세기에 시작되므로 지역차가 크다. 인간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전환은 머리형태와 장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근세는 두식과 발형에 있어서도 그리고 복식사상으로도 가장 우아하고 미적인 면이 강조

50) 조 규화, 『서양 복식사(5)』, (트릴론 섬유, 1978), p. 20.

51) 유 순례, 앞의 논문, p. 57.

된 아름다운 복식이 등장한 시기이다.

18세기는 로코코시기로서 ‘로코코(Rocco)’란 Rocaille에서 온 것으로 르네상스이후 정원을 조개껍질이나 돌로 장식한 ‘인공 암굴’을 말한다.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시대였고, 유물론의 방향으로 사조가 기울어져, 향락이 이 시대의 인생의 주목적이었고, 17세기에 비할 수 없이 특히 남성들에게겐 가발이 성행하였고, 머리치장은 더욱 복잡하여 여자들도 커다랗고 복잡한 머리형을 보전하기위해 가발을 사용하였다. 시대의 중반에는 **그리스의 복고(復古)풍**이 머리스타일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4)근대(近代)의 그리스·로마 적 요소

서양사에서 19세기는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혁명으로 근대화가 형성되고, 기능성인 의식을 반영하는 복식문화 또한 시민 복식으로 정착되어 가는 시기로 이와 함께 머리모양이 다양한 스타일로 나타나게 된다.

이시기엔 short hair 가 유행했고, short-cut 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적 스타일(Grecian style)**의 변형을 취하였고, Braid, Jewels, Djadem,을 사용하며, 터번이 유행하였다. 18세기 과장된 머리형태가 점차 낮아지며, 프랑스혁명 이후 고대 풍을 동경하게 되어 단순한 긴 튜닉 형을 입었다.

① **엠페이어(Empire)스타일(1789-1875):** Napoleon I 세 황제즉위식-25년까지를 ‘엠페이어시대’ 라고 하는데, 나폴레옹 시대 조세핀왕비가 즐겨 입던 스타일로 프랑스 복식계에 성취된 하나의 스타일의 기초를 이룩하게 되는데, 바스트 라인 밑에서 절단되어 발목까지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이 그리스 여인들과 비슷한 실루엣을 즐겼고, 찰스 10세 때 까지 큰 유행 없이 지속되어왔다<그림 52>.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이 애용되는 스타일이다. 헤어스타일은 **곱슬거리는 컬을 부분적으로 늘어뜨리고 나머지 뒷머리를 뒤쪽으로 묶는 자연형태가 나타나도록 다듬는 그리스시대의 헤어스타일이 복고풍으로 유행하였다**<그림 53>,<부록4>. 19세기 전반엔 18세기의 과장된 머리형과 장식이 점차 낮아지고, 단순해지기 시작하여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여 지는 것과 비슷하게 머리를 **곱슬거리게 curl을 하여 뒤로 늘이거나 Chignon을 하여 금속제의 망(網)으로 싸기도 했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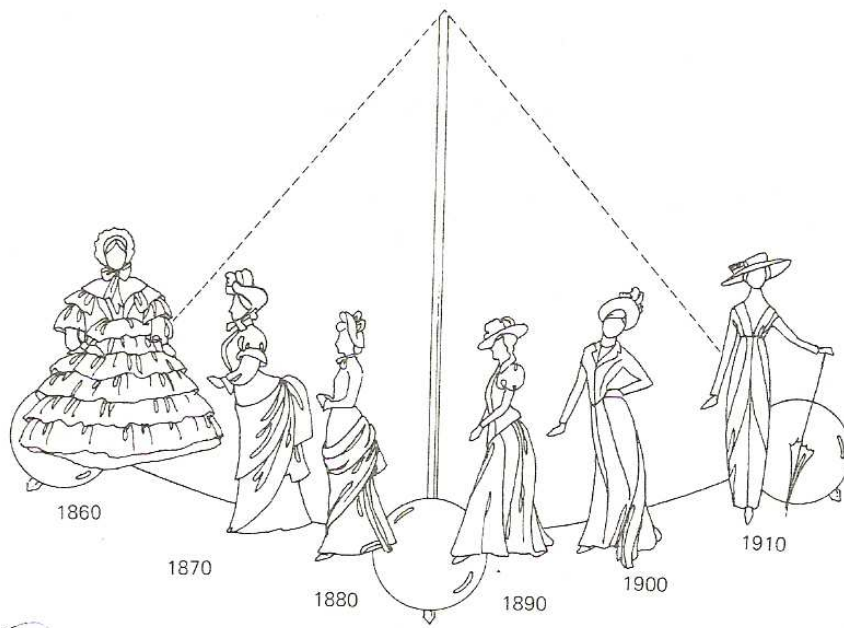
② 로맨틱(Romantic)스타일(1815-1848): 앰파이어 스타일의 머리 모양이 이어지다가 귀족문화의 부활로 낭만주의가 나타난 시대를 ‘로맨틱 시대’라고 한다. 1820년 중엽부터 모자의 챙이 넓어지고 장식도 화려해지면서 리본, 깃, 조화 등의 장식의 풍부함으로 이는 18세기 로코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⁵²⁾ 복식은 고전적 스타일이 사라지고 X자형의 실루엣이 이뤄졌다. 아폴로 노트(Apollo Knot)이라는 머리를 하고 다녔는데, 바른 가리마를 타서 양옆이나 뒤에 가발을 붙여 크게 결발(結髮)하고 옆머리를 roll 하여 귀를 덮게 하고 뒷머리는 **땡거나 꼬아서 뒤로 고정 시켰다**. 뒷머리를 땡아서 뒤로 고정시키는 것은 **로마적** 요소이다.

③ 크리놀린(Crinoline) 시대 (1848-1870): 19세기 후반, Napoleon III 세의 즉위기간 기점으로 복식사에선 ‘크리놀린 시대’라고 일컫는데, 붉은 머리카락과 가운데 가리마를 타고 켄을 양쪽으로 빗어 넘기거나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형이 유행하였고, **머리를 뒤로 묶어 쉬농**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색의 **비단이나 망(網)**으로 썼다. 가발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스·로마 식도 쉬농**을 했다는데 맥락(脈絡)을 같이한다<그림 54>.

④ 버슬(Bustle) 스타일과 S 자형 스타일 시대 (1870-1910): 스커트의 부풀림을 뒤로 집중시킨 버슬 스타일엔 뽕빠두르 형으로 앞에서 뒤로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거나 자연스럽게 웨이브진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린다든지, 굵게 땡아 쉬농(Chignon)을 하거나 머리위로 높게 올리고 여기에 꽃을 꽂거나 아름다운 빗과 핀을 꽂았다. 크게 쉬농한 머리 뒤로는 레이스, 리본 줄을 늘어뜨렸다. **웨이브진 머리를 어깨에 늘어 뜨린다든지 굵게 땡아 쉬농(Chignon)을 한 것도 그리스, 로마적인 것과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52)김 두임, 앞의 글, p. 84.

53) 박 하나, 앞의 글, p. 35.



<그림47> 유행의 진자.-오던 길을 되밟는다. 의복: 제2의 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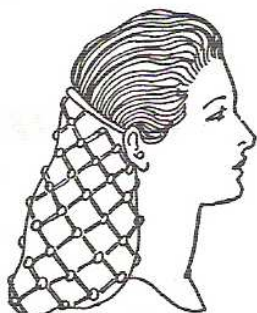
<그림48>17세기(1630)여자의 머리출처: 황의선, 근세 서양복식의 두형과 발형에 관한 연구, 1985, p. 31.



<그림49>로맨틱시대의 복식과 여성머리(1830). 패션&뷰티이야기 p. 112.



<그림50>재현된 머리 양식. 2005년 June. W



<그림51>12세기 금줄과 진주로 실크 bag위에 엮어 놓은 그리스적 쉬농을 전승한 망(網) 스타일의 중세 여인(좌), The mode in costume, p. 45.와 이의 재현으로 추정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오하라의 머리(우) 상호 비교

이렇듯 일부분의 요소만을 떠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분위기를 따서 다시 재창조하고 **확장, 과장, 축소, 강조, 환상** 등의 요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재현이다.



<그림52>1799년, 그리스·로마의 부활. 출처: 의복 - 제 2의 피부, p.281.



<그림53>18C 말의 그리스 식 엠과 이어스타일의 재현. Taschen , p. 501.

19세기말의 번성했던 아르누보(Art-Nouveau)양식과 더불어 발전했던 여자 복식은 흐르는 듯한 주름의 움직임이 그리스를 연상하게 한다<그림 52>. 이 시기는 기계문명에 반발하는 ‘자연에 대한 동경’으로 그리스와 상통한다. 역사 속에서도 머리 형태나 복식은 **반복, 재창조, 공존**을 거듭하면서 한시기에 국한 되지 않고, 답습되어지는 형태로 존재한다.⁵⁴⁾



<그림54>19C 크리놀린시대의 헤어 양식.(1868) Boucher, p. 335.

(5) 현대의 그리스·로마적인 요소의 재현

1)신고전주의(20 세기 초)

(1) 레온 박스트(Léon Bakst,1866-1924).

그는 초상화이자 삽화가로서 당시 러시아를 대표하는 예술가였다. 러시아 발레단의 무대의상을 디자인하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당대 유명한 무대의상가로서 손꼽히게 되었다. 러시아 발레단은 색상과 패턴에 있어 대담성과 적절함을 표현하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었으며, 이국적인 것과 고대적인 것에 심취하였고, 그의 활동은 러시아의 문화유산이 유럽으로 전파 되도록 조장하였다.

그는 대담한 색과 러시아 민속예술의 패턴과 아르누보양식에서 나타난 물결모양의 장식곡선을 이용하여 고대 그리스의 특징적 디자인을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은 아르누보양식의 요소를 변형하여 인상주의적인 관찰법을 수용하였으며, 색채표현에서는 야수파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천재성은 음악으로 야기된 분위기를 색채로 조화롭게 나타내고 그 영감의 근원은 환상적인 동양의 화려함과 헬레니즘으로 비롯되었고, 이것이 뿌아레와 같은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어 20세기의 패션에 이정표를

54) 박 하나, 앞의 글, p. 36.

만들었다.

(2) 뽀뿌아레(Paul Poiret, 1879-1944).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 패션계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는 코르셋을 제거한 그리스 스타일에서 이미지를 딴 헬레닉 드레스로 여성에게 자유를 부여했다. 이 헬레닉 드레스는<그림 55> 고대 그리스의 키톤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하이웨이스트와 드레이퍼리로 인체의 자연미를 표현한 대표적인 실루엣이다.

시미즈 드레스(Chemise dress)와 쉬스 드레스(Sheath dress), 페그-탑(Peg-top dress)등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이들 드레스는 후에 관형 실루엣(Tubular silhouette)을 특징으로 하는 샤넬의 가르송느 룩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사료되며, 샤넬의 의상과 더불어 신고전주의적인 스타일로 불려지기도 한다.⁵⁵⁾

전통적인 딱딱한 의상 속에서 여성들의 아름다운 자연스런 인체를 그리스의 조각에서 영감을 구하여 그리스식 드레스에서 강조하게 되었다<그림 60>.

(3)마들린느 비오네(Madeleine Vionnet,1876-1975)

뿌아레에 앞서 코르셋을 제거하였고, 모든 인공물을 제거하고 자연스런 인체위에 만들어 주는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인체를 구속하는 구조물들을 거부하고 인간체형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보아 인간 본성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복식미를 추구했다. 그리스식의 복식미가 이상적으로 나타났던 엠파이어 드레스<그림 56>를 도입하여 그리스시대와 같은 여성미의 비례를 강조해 재현시켜주었다.

즉, 그리스 복식과 같은 드레이프를 이용해 매우 간결하고 현대적인 외형을 창조하였다⁵⁶⁾<그림 61>.

이들의 복식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로마의 재현은 의복에서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에서도 같이 실루엣의 완성(完成)을 위해선 필연적(必然的)으로 나타나다.

하나의 실루엣에 다른 화려한, 예를 들어, 로코코식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적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우아한, **여성스러운 올림머리나 띠 장식**으로 다분히 헤어스타일도 그리스·로마적이다<그림 57, 58,과 59비교>.

55) 채 금석, 『현대 복식 미학』, (서울: 경춘사, 2004), p. 401.

56) 채 금석, 앞의 책, p.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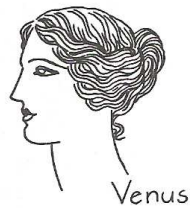
<그림55>뿌아레의 헬레닉 드레스(좌)와 조세핀튬닉(우). 경춘사, 복식미학, p. 401.



<그림56>비오네의 그리스풍 헤어 스타일. 같은 책, p.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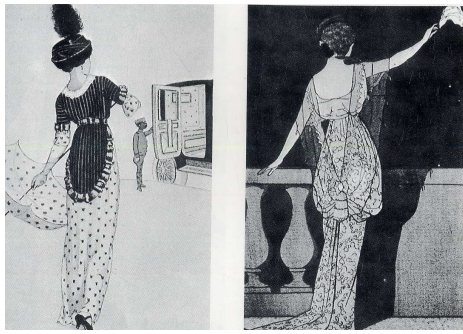
<그림57>로마 여인의 머리, 로마 카피톨레 박물관 소장. 미용문화사, p. 31.



<그림58>그리스의 비너스, The mode in costume p. 17.



<그림59>비교를 위한 그림<그림56>의 헤어스타일 클로즈업



<그림60>1차 세계대전 이전 실루엣. 패션의 역사-라사라. p. 161.



<그림61>엠파이어스타일(Empire Style)의 드레스와 헤어스타일. 복식미학, p. 418.

2) 20세기에 나타난 고대스타일의 재현 사례

<그림 66>은 고대 그리스 B.C 1500년 Mycenaean 의 그림인데 <그림



<그림 62>그리스의 늘어뜨린형 재현사례 추정,



<그림63>로마의 컬이 많은 머리의 재현, 뷰티라이프, 2005. 2월



<그림 64>그레이스 켈리, 1955. Fashion in film, p. 146



<그림65>1945,로마식 머리의 재현. Fashion in film, Prestel, p. 178.

68>와 비슷한 실루엣을 보여준다.

<그림 62, 67>은 이를 재현한 국내외 잡지의 그림인데 <그림 66>그림의 모티브를 느슨하게 늘어뜨린 모습이 그리스식과 흡사하게 재현되었다.



<그림66>B.C.1500, 고대 그리스 여인의 머리. 출처: The mode in costume p. 16.



<그림67>그리스식 늘어뜨린 머리형 추정-국외



<그림68>그리스의 늘어뜨린 머리를 재현 추정-모델 Iman, 美 100년사 p.126.

<그림62>그리스식 늘어뜨린 머리형의 재현 국내사례. 출처: 뷰티라이프, 2005. 2월

<그림67>그리스식 늘어뜨린 머리형의 국외 사례. 출처: Hairflair, 2001. 11월 p. 123.

20세기의 선두주자인 뽀 뽀아레(Paul Poiret, 1879-1944, 프랑스 출생)의 스타일은<그림 60> 그리스의 요소가 보이는데, 대개 하이웨이스트에 콜셋을 하지 않은 자연스런 실루엣에 우아한 주름의 늘어짐으로 그리스와 유사함을 찾을 수 있었고, 이는 1945년에도 그리스풍이 유행하였는데, slim-line의 원피스에 쇼울을 걸쳐 키톤위에 히마티온을 입은 실루엣을 보였다는지, 1968년의 Pierre Cardin의 Sexual Image 창조를 위한 Slit의 사용으로 인한 다리의 노출은 움직임에 의한 변화하는 조형을 시도한 것으로 그리스와 유사성이 있는 예이다.⁵⁷⁾ <그림 64, 65와 그림 63>는 로마

57)유 순례. 앞의 글, 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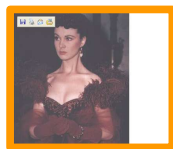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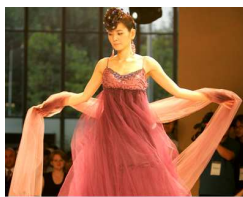
의 컬이 많은 여인의 틀어 올려 얹은머리의 모습을 20세기와 21세기식의 각 표현의 차이점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다. 20세기와 21세기까지도 그리스·로마식의 헤어스타일이 다시 나타나는 사례와 재현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들어 패션의 실루엣을 매 10년 주기로 보면 하나의 유행은 실루엣이 40년의 주기로 반복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헤어의 변화는 당시의 시대적인 예술사조와 실루엣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서 보면 과거의 실루엣이 그리스의 정통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몇 번씩 등장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사례로서 열거한 적이 있다

프랑스혁명 이후 나폴레옹 제정시대의 복식인 엠파이어 스타일시대에 여자의 머리는 곱슬 거리는 컬을 부분적으로 늘어뜨리고 나머지 머리를 뒤쪽으로 묶는 그리스시대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의복의 외관적인 특성이 머리형과의 비례미와 조화미에도 상관하며 시대사조를 직·간접으로 반영한다. 19세기말의 아르누보의 양식과 더불어 발전한 여자 복식에도 그리스를 연상시키는 선의 흐름이 있었다.

20세기 복식의 선주주자인 뽀 뽀아레의 스타일엔 그리스적인 요소가 있다. 또 1945년에는 그리스풍의 유행이 있었다.

그리스시대와 관련한 재현의 모습은 하이웨이스트의 드레스 실루엣과 어울려진 쉬농의 재현이 21C 현재도 종종 국내외 배우들의 각종 시상식 장면에 등장한다. 이러한 실루엣은 그리스·로마식의 쉬농의 재현을 또 다시 볼 수 있다<그림 70, 71>.





<그림69>쉬농의 다양한 연출들의 사례. 출처: 네이버 검색 / 오드리: 『Fashion in Film』



<그림70>그리스·로마식 재현
-2000년대의 할리우드 배우. 출처:
네이버 검색 2005년 8월.



<그림71>2005년에도 끈을 한 그리
스의 여인 재현한 영국배우, Emma
Watson. 출처: 다음 검색, 2005년 11
월.

이렇듯 유행의 중심의 변화는 곧 그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
술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
흐름엔 시대를 따라 흐르는 정신(情神)이 있다.

바로 비례와 조형미 그리고 이와 함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여성스러
움을 드러내는 헤어가 바로 올림머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이 의복을 착용하게 된 동기에도 상관되는데, James Laver 가 언급한
“여성의 의복은 유혹의 원리에 영향이 있는데, 여성의 매력을 더욱 돋보
이게 하는데 의복의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성적(性的)인 매력의 포인트가

된다고 하여, 이는 이성(異性)을 즐겁게 하는 동시에 자신(自身)도 즐거운 것”이라고 하였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목적도 바로 본능적인 것인 만큼, 헤어의 연출로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시대적인 공통(共通)된 아름다움을 가진 스타일’이 바로 자연미과 비례미를 가진 ‘그리스의 원형(原型)적인 쉬농 헤어스타일’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헤어를 올림으로 인해 복식으로 연결되는 여성이 가진 아름다움의 하나인 여성의 목을 타고 흐르는 듯한 아름다운 목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쉬농 스타일이 가지는 가변성(可變性) 내지는 융통성(融通性)이다. 응용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이는 길거나 또는 짧더라도, 백콤의 볼륨에 따라, 늘어뜨릴 웨이브의 크기에 따라, 묶임 점의 위치에 따라, 스트레이트하게 올리느냐 웨이브를 주어 올리느냐, 올리는 기법을 달리해 올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려서 원래 자신의 머리대로 펼쳐 연출할 수도 있는, 헤어 수요자의 변화하는 심성에 따라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컷트 만으로는 이러한 그리스와 로마식 쉬농이 갖는 특성에 비해 비교적 부동적(不動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한번 이뤄진 상태에선 또 다른 컷트의 시술 방법으로는 보여 줄 수 있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쉬농은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 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장소와 경우는 주로 웨딩, 파티, 직장, 미인대회, 각종 시상식, 영화 ‘무랑루즈’ 같은 특수한 무대헤어, 발레리나나 일상의 헤어모습으로도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다.<그림 69>

위에서 보듯 그리스·로마식의 지속적(持續的)인 재현이 꾸준히 되어 왔음을 사진의 사례들을 통해 간단히 알 수 있었다. 90년대에 들어 어느 시대의 특정한 한 요소 보다는 어떤 시기의 ‘분위기(雰圍氣)’가 복고(復古)되었다.

즉, 1990년대는 과거의 복식사적인 패션이 혼재하여 각 시기마다의 뚜렷한 유행스타일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변화하는 속도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테크닉한 미래이미지와 아방가르드한 형태로 미니멀리즘에서 초현실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었으나, 위의 시대에서 언급되었던 유행의 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더 이상 패션에서 고정된 법칙이란 것이 제한되지 않게 되었으며 미

술에서는 영역간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세기말적인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여 첨단적으로 가기보다는 현대문명이 가져오는 편리성 이면의 지나친 무미건조성과 인간성의 외면, 그리고 자연 파괴로 인한 과거에로의 향수 등이 인간중심적이고 자연지향적인 방향으로 현대 패션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 인해 환경과 자연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웰빙(Well-being)’이라는 새로운 신조어에 열중하게 되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용계에서도 과거엔 유행스타일을 위해서만 꾸준히 변화시키던 발걸음이 점점 클리닉과 자연성분위주의 약제의 사용이 늘고(천연헤나가 그 일례)이며, 손상된 머릿결상담을 하러 미용실을 방문하고 그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복식의 단순화, 구조의 파괴, 색상과 소재와 유행길이, 계절구분이 없어지고, 여성과 남성 간에 성의 구분이 허물어지고, 국경과 문화와 인종간의 경계가 없이 혼합에 의한 새로운 양상은 국경과 문화를 가로질러 모든 시대와 전통까지도 다양하게 받아 들아 들일 수 있는 무한함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재현이 나타나게 되는 동기들과도 통하는데, 그리스인들의 자연관은 자연이 인간에게 대립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생명적 자연의 일부로써 그것에 포괄되어 있다.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과 동질적으로 조화하고, 신마저도 자연 속에 내재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인의 자연관은 중세 그리스도교세계에 이르러서야 서양인의 의식구조에도 인간과 자연이 신의 피조물이란 의식에 기초하기 시작한 것이다. 58)

그러므로, 인간의 옛 것에 대한 향수(鄉愁),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의 발견,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자연으로의 회귀(回歸) 등의 요소들이 ‘그리스 정신에 흐르는 인간(人間)과 자연관(自然觀)’과도 만나서 2000년대 현재에 이르러선 복고적인 것의 재현은 이 시대적인 요소와도 맞물려 ‘고전적인 고찰의 필연성(必然性)’을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58)최 혜숙, 「미술 감상 교육을 위한 동·서양 회화 비교」,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p. 20.

IV. 고대 스타일의 현대적 재현을 위한 조형적 접근(接近)

1. 그리스·로마식 헤어스타일의 유형별 연구(쉬농을 중심으로)

1) 타(他) 올림머리 스타일과의 비교 고찰(考察)

(1) 그리스, 로마식 헤어스타일(쉬농)과 타(他) 올림머리식과의 형태적인 비교 고찰(考察)

여기서 고찰범위는 그리스와 로마의 장식적인 다양한 스타일중에 그리스·로마의 유형 중(Chignon)스타일만으로 제한한다.

그리스·로마식 헤어스타일(쉬농)과 타(他)올림머리 식들과의 스타일을 형태상 비교 고찰하기 이전에, 올림머리는 머리를 빗어서 묶든지, 땅아서 묶든지, 꼬아서 묶든지 그 머리를 모으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가 있다. 빗어 올린머리, 땅아 올린 머리, 비틀어 올린 머리 간엔 형태의 유사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 업스타일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롤 스타일, 쉬농 스타일, 토대가 있는 스타일이다.

쉬농 스타일은 머리를 한곳에 모아 묶고 그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쉬농(Chignon)은 원래 프랑스어로 ‘상투’, 또는 ‘상투처럼 묶음 머리로 한 곳에 묶어 올린 머리의 종류’를 지칭하며, 또 다른 정의내림에 의하면 ‘머리의 뒤에 어떤 요소들의 결합이나, 함께 가깝게 모아져서 생겨난 헤어다발의 틀이나 매듭’⁵⁹⁾을 의미하며, 그 묶음점이 결정되면 머리다발을 처리하는데, 그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주 많아 응용의 면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9) Pivot Point. 『Long hair Design』, p. 118.

올림머리형 구분	쉬농(Chignon) 스타일	토대가있는 스 타일	롤 (Roll)스타일
다리사용여부	X	O	O
묶음점(토대)여 부	O	O	X

<표2> 타(他)올림머리와 의 비교 (O: 있다 / X: 없다)

토대가 있는 스타일(대표적 예: 콘헤어)<그림75>은 두 스타일간의 복합적인 면을 가지며 높이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 스타일간의 차이점을 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쉬농의 변형된 모습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성행되었던 여자머리 모양으로 머리를 땋거나 목 뒤에서 묶은 형태이다.⁶⁰⁾라는 정의에 근거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이 현주씨(1988)의 논문에 의하면 그리스의 여자머리 형은 크게 5 가지로 나뉘는데,

㉠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방법<그림5>

㉡ 타래머리(Chignon),또는 카울(Caul)이라는 망으로 머리 전체를 덮는 방법<그림 7>

㉢ 커다란 타래머리(Chignon)를 밴드로 받쳐서 앞이마에서 묶어주는 방법 <그림 145>

㉣ 커다란 타래머리(Chignon) 중간에 땡기머리(Pony-tail)이 형성된 경우<그림66>

㉤ 컬(curl)한 머리전체를 올려 묶어서 풍성한 머리타래를 이마위에 흘트리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그림12, 13>. 가는 끈으로 올려 머리뒷면에 타래머리(Chignon)를 하는 머리장식<그림158>은 칼데아(Chaldea)⁶¹⁾와 바빌론(Babylon)에 존재했으며, 또한 그리스의 알카익(Archic)시대에도 발견된다.⁶²⁾ 여기서㉠을 제외한 나머지의 올림 머리식(쉬농)을 고찰한다.

60) 정 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1), p. 332.

61) Chaldea; 페르시아만에 있었던 고대 제국

62) Margot Lister, op. cit.,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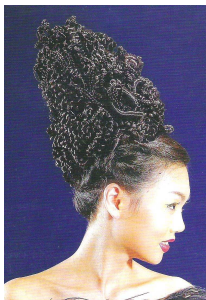
<그림72> 진행. 연구자 디지털촬영.



<그림73> 지배성(원포인트 쉬 놓). 출처: 네이버 검색



<그림74> 좌우 대칭적 디자인. 출처: 네이버 검색



<그림75> 콘 헤어, 이운숙 노블레스 스타일 광고면.

<그림76> 비대칭(상)과 리듬(하)의 예: 뷰티라이프, 2005. 2, p. 23.

①그리스·로마식 쉬농(Chignon) 스타일

이 롤 스타일과 그리스·로마식의 쉬농,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땃음의 차이이다. 쉬농 스타일은 머리를 한곳에 모아 묶고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롤스타일은 통 모양의 웨이브로 일정한 영역을 둥근 선이 나오게 띠 모양으로 장식한다.

둘째, 쉬농 스타일은 한곳에 모으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반면, 롤 스타일은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잘 펴서 빗질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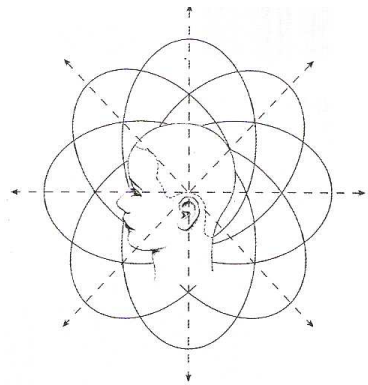
셋째, 쉬농 스타일에는 묶음 점이 매우 중요한데. 대개는 탑, 골든 포인트, 백 포인트로서 많이 사용 되는 지점이며, 토대가 있는 스타일에도 같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한점으로 묶은 쉬농 스타일은 아주 다양할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이 스타일들이 어떤 규칙적인 차이를 알 수 가 있다. 묶음 점의 분석으로 스타일의 분별이 가능하다. 백 포인트에서 묶은 건지 사이드에서 묶은 것인지, 스타일의 숙지를 도와줄 뿐 아니라, 새로운 모양을 창조 할 이니셔티브를 제공해 주기도 용이하다<그림 77, 78,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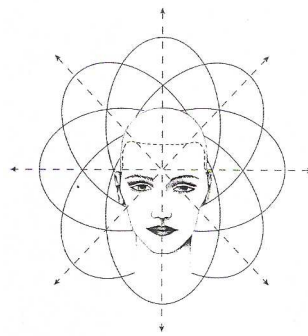
쉬농이 가지는 특징의 하나가 바로 유연성(flexibility)이다. 같은 머리



<그림77>묶음점. 연구자의 일러스트



<그림78> 묶음점을 가질 수 있는
방향들, 측면



<그림79> 묶음점을 가질 수 있
는방향들, 정면



<그림81>20대 묶음점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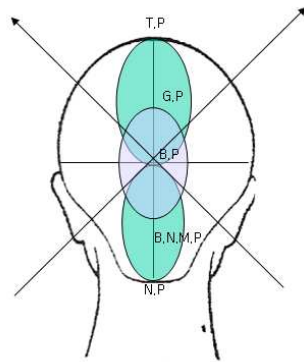


<그림82>30대 묶음
점 연출

<그림 80, 81, 82> 출처: 네이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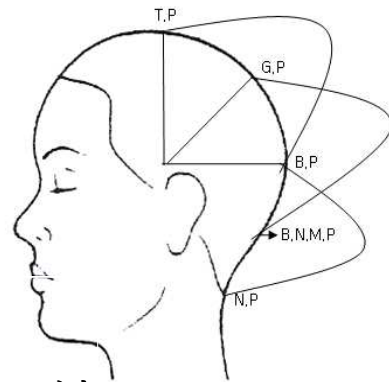


<그림80> 10대의 뭉
음점 연출



N.P~B.P 성숙하고 단정한 느낌
(30대)
B.N. M.P~G.P 지적, 상큼한 느낌
(20대)
B.P~T.P 귀엽고 발랄한 느낌(10
대)

<그림83> 뭉음점에 따른 쉬농의 이미지 변화표(연구자 고찰)



↑ 갈수록 무게감이 경쾌 · 발랄해진다
X 역동적, 개성적 느낌 앞모습에선 귀여운 느낌이
난다
○ 뭉음점의 위치 표시

※뭉음점의 움직임이 위와 같이 변할 때
각기 다른 느낌을 가진다.

묶음 점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그림 80-83>.<그림 78>에서 $\uparrow$ 갈수록 즉, N. P $\rightarrow$ T. P로 갈수록 점차 무게감이 상큼, 경쾌해지고, 발랄해진다. $\downarrow$ 로 갈수록 즉, T. P $\rightarrow$ N. P로 갈수록 성숙하고 지적 느낌이 난다(T.P중심: 10대, B.P중심: 20대, N.P중심: 20후반-30대 연출에 주로 쓰인다)<그림 79>에서 $\swarrow$ 방향은 역동적, 개성적인 느낌을 주고, $\searrow$ 로의 방향의 묶음은 앞모습에서 보면 귀여운 모습이 난다.

②롤 (Roll) 스타일

롤 스타일이란 머릿 단을 원통 상태의 웨이브를 만들어 머리를 치장하는 것을 ‘롤 스타일’이라고 한다. 쉬농과 다른 점은 롤 말기 바로 전의 상태로 모발을 브러쉬로 잘 펴서 롤 말기에 용이하게 해놓았다. 모발을 한곳에 모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식할 수 있는 반면 롤 스타일은 ‘브러쉬로 골고루 빗어서 핀으로 넓게 핀으로 뿔음을’ 하는 것이다. 이점에선 토대가 있는 스타일과 유사한점이 있다. 그런데 쉬농의 묶음 점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스타일의 변화와 동일하게 질서가 나타난다. 이러한 일종으로 소라머리도<그림 89>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③토대가 있는 스타일

토대란 머리를 올릴 때 골든 포인트나 백포인트 등의 주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삼각형이나 원통 등의 베이스로 스트랜드를 떠내 묶거나 땀아서 그대로 두거나 또아리처럼 도톰하게 말아 놓은 것을 토대라고 한다. 이 토대는 건축물을 쌓을 때 토대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올림머리에서의 토대도 같은 원리다. 이를 가장 잘 이용한 스타일이 콘헤어다<그림 75>.

20C 그리스·로마식 헤어의 재현성<표 3>여부와 디자인 개발 하기 위한 분석을 위해 살펴보면, 20세기 초에서 현재까지 전체적인 실루엣에 있어서 각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대의 여성 복식은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복고화(復古化)의 물결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예로 1987년도 실루엣의 1930년과 1950년으로의 고전으로의 부활을 들 수 있다.⁶³⁾ 여성의 헤어도 결국 돌아가려는 욕구로써

63) 윤 수경, 「20세기 서구 여성복에 나타난 실루엣의 변천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8, p. 62.

의 출발점을 가지고 거기에 시대마다의 특이성을 가미시켜 표출 될 뿐이다. 21세기에 있어서 특이할 점은 자신이 나타내고자하는 개성미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유형의 헤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성(活動性)과 기능성(機能性)이 중점적으로 더 다뤄진 것이 이전 시대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맞는 재현을 위한 머리를 찾고자 우리고유의 머리의 재현여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2)과거 우리나라 올림머리와의 변형(變形)과 재현(再現)여부(與否)와의 상호비교(比較)

우리나라 옛 스타일의 형태에 따른 시대적인 흐름의 변천(變遷)을 보면 정수리 부분을 높임으로써 우아하고 품위있게 보이는 아름다움이 나타났고, 정수리는 높이지 않고 이마에 볼륨을 줌으로써 귀엽고 사랑스러운 연출을 나타내고 있었다.⁶⁴⁾ 여성의 해방과 사회의 다양한 진출은 여성 스타일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 계기를 만들었고 약간의 형태만을 조금씩 달리하여 반복되는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흐름을 가지고 왔고, 이로 인해 발전적인 재창조적인 헤어스타일을 나타나게 되었지만, 이를 또, 그리스·로마식 올림 유형과 우리나라의 현대까지 재현 되는 고유올림스타일을 나눠서 비교해보면서 본 연구자는 다음 <표 3>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 고유의 머리가 현대의 재현에 나타난 연구를 한 김 향란(2002)씨의 개화기 여자머리 양식과 재현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하였고, 그리스와 로마식의 현대적 재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헤어스타일 유형과 그리스·로마식의 쉬농의 올림 유형을 우선적으로 상호 비교·정리하고자 함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식과 우리나라 쉬농을 올림 식에 있어서 어떠한 유사성과 더불어 동과 서가 함께 공존하는 현대인에 맞는 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재현(再現)에 필요한 커다란 맥(脈)을 찾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64) 이 선심, 「Creative 와 hair by night style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55.

그리스·로마식 쉬 농 (올림) 유형	우리나라 고유형태 의 종류	머리 모습 설명
없은 머리형	둘레머리(터번 식) 없은 머리, <그림 85>	머리위에 두르거나 틀어 올린 머리< 그림 88>
쪽진 머리형	쪽진 머리	머리를 땅아서 쪽 지거나 푼 머리로 쪽지는 형
묶어 늘어뜨린 형	땅은 머리 종종 머리 다리미자루머리<그 림 84>	뒤에서 머리를 땅 아서 또는 땅지 않 고(구부려)묶는 형 태
말아 감싼 형	펌프도어<그림 86, 87> 히사시가미./롤말기, 도넛츠머리	앞머리와 옆머리를 차양처럼 부풀린 형태/뒤통수 아래 묶어서 안에 동그 란 머리 심을 대어 말아서 감싸 올린 형

<표3>고대 그리스·로마식 쉬농과 우리나라 개화기 시기 올림머리의 유형 비교와 재현 여부



<그림84> 묶어서 늘어뜨린형. 출처: 패션과 뷰티 이야기 p. 54.



<그림85> 우리나라 엷은 머리형. 같은 책 p.45.



<그림86> 우리나라 땡머리(펌프도어형). 같은 책 p.45



<그림87> 현대 펌프도어, 뷰티라이프. 2005.2월호



<그림88> 로마의 엷은 머리, The book of costume p. 78.Fig 274.

2)올린 방법에 의한 유형 고찰

이상을 고찰해 볼 때 우리가 구현하고자하는 그리스·로마식 쉬농 유형은 총체적으로 정리해 볼 때 뒷머리를 말아 올리는 응용방식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1)엷은 머리 형 【뒤에서 한 가닥으로 땡아 터번처럼 돌림-우리나라<그림85>, 혹은 핀을 사용해 엷은머리-그리스·로마식<그림 88>】 <그림88>는 우리나라의 <그림 85>의 식과 비슷한 방법을 썼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2)쪽진 머리형 【유행에 따라 쪽의 크기가 달라짐/ 커다란 타래머리를 밴드로 받쳐서 앞이마에서 묶어주는 방법-그리스식】 <그림158>

(3)묶어 늘어뜨린 형 【뒤에서 땡은 머리를 한번 구부려 뒤통수에 고정하고 리본 장식/머리로 귀를 가린 머리 모양/머리를 양쪽 귀 뒤에서 묶음/땡은 머리/머리 뒤에서 하나로 모아 머리 밑과 머리 끝 가까이를 핀으로 고정/쉬농 중간에 포니테일이 형성된 경우】 <그림84,66>

(4)말아 감싼 머리형 【예: 팜프도어<그림 86, 87>-머리를 치켜 올려 정수리에 말아 올림. 꺾힌 머리전체를 올려 묶어서 풍성한 머리타래를 이마위에 흘트리는 방법. 리본장식/머리를 말아 감싸서 뒤통수에 낮게 붙임<그림 145>/머리에 핀을 이용하여 위로 말아 올려 뒤통수에 붙임/도넛츠형; 뒤통수중간에 도넛츠 형으로 말아 감싸 붙임/타래머리(Chignon),또는 카울(caul)이라는 망으로 머리전체를 덮는 방법<그림7>/링(ring)머리; 뒷머리에 나선형으로 말아 붙임】

여기서 각각의 유형에 앞머리를 자를 경우가 더 생기면 또 느낌이 다를 수 가 있다. 그리고 기타적인 것으로 뒤통수 아래에 나선이나 가로모양의 팔자로 붙이는지 다른 쉬넵 스타일이 되겠지만, 크게 4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⁶⁵⁾

우리나라 개화기 머리양식은 옛날부터 전래되어 온 고유머리와 서양과 일본에서 유입된 과도기적인 머리로서 여성의 의식변화와 사회진출의 확대 등으로 여성들의 개성 표현이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워졌으며 실용적인 방향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비교해봄으로써 올림 식을 서양의 그리스식과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대에 어울릴 수 있을 재현 방식을 4 가지로 유형으로 얻어냈다.

2. 고대 그리스·로마식 헤어스타일 재현(再現)에 필요한 조형적 접근

20세기 기호학자 다이아나 브릴란드(Diana Vreeland)에 의하면 '여성의 스타일은 hair에서 시작하여 의상 쪽으로 이동한다'고 하였다.⁶⁶⁾ 현대에 있어서 패션이란 의상영역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표현 되어 질 수 있는 패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헤어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 되면서 의상전체에 있어서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데 큰 역할'을 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헤어스타일은 패션을 결정함에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패션의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이 같은 조화에 의해서 '패션의 조형적인 실루엣의 완성되어 지는 것'이다. 여기서도 바로 헤어는 입

10) 이는 김 향란, 「개화기 여자머리 양식과 재현에 관한 연구」, 2002, P 34. 에 근간한 분류임.

66) 오 문균, 「테크놀로지 이미지적 헤어 스타일의 동시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63.

체적(立體的)인 형태로 공간의 영역을 확대(擴大)하고 있다. 과거에 쓰인 뽕빠두르 스타일이 대표적인 공간구성적인 헤어로서의 응용은 1960년대의 부푼트(Bouffant)스타일, 또 60년대의 아프로(Afro)스타일<그림 90>, 1970년대의 펑크스타일로<그림 91>이어지며 과도하게 부풀리는 형식의 머리 형태로 공간 구성적인 면을 강조한 실례라고 하겠다. 쉬농도 역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조각의 형식을 취하며 건축양식을 다루듯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는 공간예술의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방법으로 필요한 조형적인 이론 및 기술적인 면을 다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림89>소라머리,
출처: 다음검색



<그림 90>Afro 헤어
스타일. 의복-
제 2의 피부
p. 159.



<그림 91>
펑크스타일.
패션&뷰티이
야기, p. 138.

1) 기초 조형의 원리

(1) ①점②선③면④양

형태를 구성하는 기초요소로서, 어떤 형태의 모서리에는 점, 윤곽에는 선이 있고, 선이 모여 평면을 형성하고 어떤 평면이 모여서 양을 형성한다. 점, 선, 면, 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개념적인 요소로 분류한다.⁶⁷⁾ 이런 개념 요소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점(point)은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식이며 모서리가 형성하는 선들이 만나는 지점이며 색과 명도가 없다. 유일성, 단순성, 독립

67) 최 길렬, 디자인과 형태론(서울: 도서출판, 국제, 1994), p. 42.

성을 갖고 공간의 위치를 나타낸다. 크기를 갖지 않고 위치만을 나타낸다. (디자인에서는 형을 갖지 않으면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갖는다. 포인트, 밀도, 교차, 초점, 강조의 속성을 가진다.

② 선(line)은 하나의 점이 이동하여 만든 궤적이다. 1차적인 존재이며 길이는 있으나 넓이가 없다. 단지 위치와 방향만을 나타낸다.

사물의 외곽을 형성하는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도식의 역할을 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서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성질을 갖는다. 기본적인 선은 직선, 곡선, 절선이 있다.

③ 면(plane)은 선의 이동에 의해 생기며 길이와 넓이를 가지며 깊이는 없는 2차원적인 세계다. 색채효과에 의해서 공간감이나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다. 원근감과 질감을 포함하며, 선의 길이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으며 선의 성격에 의해 면의 성격도 영향을 받는다. 최소로 축소했을 때 점으로 환원되는 성격이 있다.

④ 양(volume)은 면이 이동한 궤적으로서 길이와 넓이와 깊이도 있으므로 3차원적인 입체, 즉 부피를 가지며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 자연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인공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2) ①형태(shape) ②색(color)③질감(texture)

① 형태(shape). 형태의 분석은 선을 이해함으로 시작되며 선, 방향, 모양이 그 특성이다. 윤곽, 바깥경계를 나타내는 3차원적인 영역이다.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인 면모를 가지며, 어떤 형태의 윤곽을 나타낸다.⁶⁸⁾

② 색(color). 모든 색채는 형태를 가지며, 모든 형태는 색채를 가지므로 색채가 풍부해지면 형태도 충실해진다. 형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색상, 명도, 채도를 갖는다. 그 자체가 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68) 김 가연, 「헤어 디자인의 형태 도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21.



이미지 1. (좌측 배우)



<그림92>

이미지 2.(우측모델)



<그림92>동일 인물에 칼라가 주는 다른 이미지1,출처: www.naver.com (좌측),

동일 인물에 칼라가 주는 다른 이미지2,출처:www.hairworld.co.kr(우측)

색을 갖고 있는 백색광 가운데 어느 색을 흡수하고 어느 색을 반사하느냐에 따라 그 사물의 색이 정해진다. 칼라가 있음으로 해서 올려진 스트랜드의 흐름이 보여질 때 색이 주는 느낌과 함께 강조되기도 한다. 모발색이 주는 색채 이미지는 다음<그림 92>과 같다.

③ 질감(texture).



<그림93>동일한 인물에 다른 텍스춰라이징으로 인한 다른 이미지



<그림94>활동적 느낌의 웨이브. 출처: 네이버 검색(좌, 우 동일)

표면 성격에 관한 것 즉, 시각과 촉각을 통해 느낄 수 있으며, 디자인 요소로서 머리질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 층이 없고 곁이 없는 머리는 비활동적 이어보이고 <그림 93,우>, 웨이브진 레이어는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그림 93 ,좌 와 그림 94>.

<그림 93>은 동일한 인물에도 텍스춰라이징에 따라 인상이 확연히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발형이 갖는 조형의 요소들은 우리의 인상을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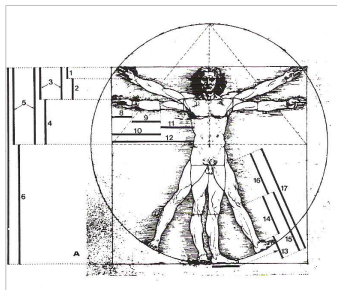
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조형 구성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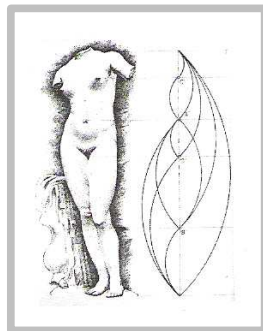
<그림 95, 96>출처는 복식미학의 이해, p. 140, 141.이고, <그림 97>는 두상과 얼굴의 이목구비를 드로잉할 때 이상적인 배치를 계획하는 분할 계획도에 관한 연구법이다.<그림 98>은 최 미현씨의 Fashion Illustration Workbook, p. 71. 의 도안만을 아이디어적인 연구 제시상 인용했다.

(1) 비례(Propor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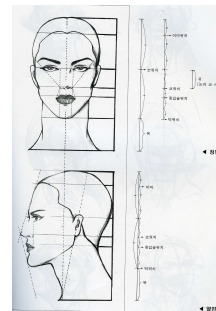
황금 분할은 고대부터 형태미를 연구 규정하는 여러 비례에서 가장 이상적인 비례로 여겨져 왔다. 이는 주어진 대상을 이 비율로 할당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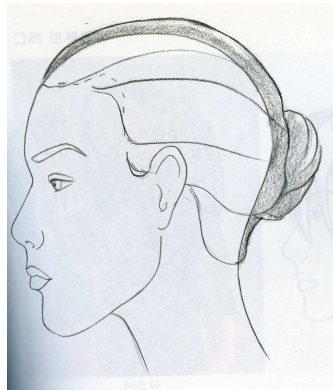
<그림95>레오나르도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의 비례론'에 대한 도해,(1485~90)



<그림96>인체의 황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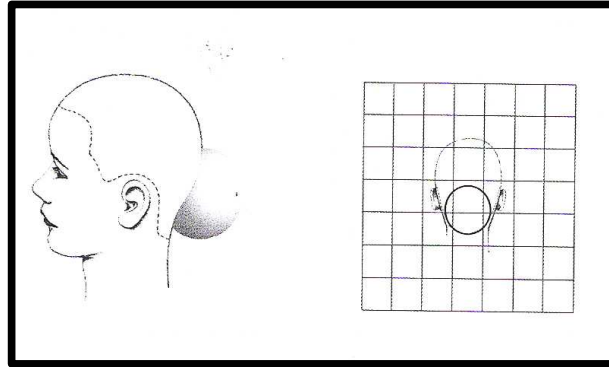


<그림 97>두상과 얼굴의 분할과 비례 연구



<그림98>쉬농의 계획적 위치와 사이즈 결정 제안

으로 숫자는 **1: 1.618**이며 골든 섹션 (Golden Section)이란 이름이 붙은 비례법이다. 실제로 이 비례의 적용은 서양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대회랍 신전의 건축이나 조각품, 도자기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르네상스이래의 조형 예술품에도 정밀한 황금비가 나타난다는 것이 금세기 실측 조사나 결



<그림99>연구자의 두상에 황금비율 적용 제안

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디자인과 건축에 이르기 까지 이 황금 분할의 관심은 세계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여러 분야에서 디자인의 원리로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식 디자인의 비례응용요소는 면적이나 길이를 분할하는 선과 트리밍이나 디테일, 또는 색채의 구성을 통해 비례미를 구하게 된다. 이 길이를 조절하는 인체의 비례미<그림 96>는 바로 이러한 황금비의 원리에 준하였던 르 꼬르뷔제의 모듈러 인체비와 레오나르도의 비트루비우스<그림 95>로 이해된다. 이것은 건축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가 황금비를 기본으로 한 하나의 실용적이고 흥미 있는 비례체계를 만든 것으로 그의 말을 빌리면 **모듈러(Le modulator(佛)/module(英))**는 인체의 치수와 수학과와의 결합에서 만들어진 것을 계량하는 도구이며, 인체뿐 아니라 여하한 디자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척도라고 설명했다.⁶⁹⁾ 어떤 선을 2등분하여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의 비를 큰 부분과 전체의 비에 같게 한 분할을 말한다. ‘안정성, 역동성, 긴장, 활기’를 불어 넣는 기본적인 비례다.

의복은 옷이 입혀지는 체형을 기준으로 길이가 정해지며 헤어도 역시 두상이라는 기본적인 형태위에 각 부위가 이 요소에 장식적인 기법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그림 97, 98, 99>을 보면 두상의 길이와 너비에 대

69) 김 영자 저,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1998), p. 141.

한 쉬농된 머리부분의 사이즈의 제안 안(案)그린 것이다. 이 비례 적용에 따라서 계산하면, 우선 우리나라 여성의 이상적인 얼굴의 길이⁷⁰⁾와 넓이는 각각 18.6cm과 너비 12.96cm으로 기준 되어 있다. 그러나 두상길이는 얼굴길이보다는 더 길므로 또 다른 자료 동아일보자료에 의하면, (2004.12.5 일자) 우리나라 20대기준하여 1979년 여성의 신장이 6.7등신과 여성의 머리길이는 23.3cm에서, 2004년엔 7.2등신으로 신장이 커지고, 서구형으로 두상이 작아져 22.3cm으로 머리의 세로길이가 줄었다. 따라서 두상의 길이가 **22.3cm**를 기준으로 하고 얼굴너비를 **12.96cm**로 기준하여 현대 우리나라 여성에 어울릴 이상적 두상 대비 쉬농 사이즈를 **1.618 : 1**의 비율로 길이와 너비를 계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여성들의 두상이 점점 작아지고 한국 복식사자료에 따르면, 고구려여인은 5.8 등신, 조선은 6.3 등신으로 1979년 6.7 등신에서 현재 7.2등신으로 점차 서구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고대 서양에서부터 형태미를 구성하는 당시의 미의 기준은 비례와 수의 조화에 따른 객관성에 두려고 했다는 것이 고대 서양의 미(美)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현대 서양의복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의 객관성에 사이즈와의 조화감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자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 물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이상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평균적인 수치를 이해하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확실히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밖에도 헤어디자인에 있어 비례의 예는 사이즈 외에도 색의 양, 텍스춰, 형태 등이 있다.

(2) 밸런스(Balance)

균형은 원래 '저울'이란 뜻이며 두 개의 것을 저울에 달아 양자가 똑같은 중앙 지점을 가리키는 상태를 말한다. 디자인상으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준다.

디자인 균형은 정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으며 동적 균형을 포함한다. 이는 형태, 질감, 색채, 위치, 방향 등으로 얻어진다.

크게 대칭 (Symmetry) 와 비대칭(Asymmetry)로 구분된다.

대칭은 <그림 74>에서 보여지 듯 헤어스타일에서도 좌·우 대칭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같을 때 이루어진다.

70) 허 순득, 「이미지 메이킹의 표현 -얼굴형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분장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p. 13.

비대칭은 부정형의 균형이 갖고 있는 다양성은 대칭보단 훨씬 매력적이고 은밀한 신비스러움을 준다.<그림 76, (상)>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균등하지 않을 때 비대칭적인 형을 이룬다. 좌우 대칭이 균등하지 않거나, 상하가 대칭적이지 않을 때도 이에 속한다.

(3)리듬(Rhythm)

리듬은 하나의 단위(Unit)가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그림 76, (하)>가장 단순한 질서가 형성되며 되풀이되는 단위의 비례나 균형에 복잡한 변화를 가지면 매우 다채로워진다. 선, 형태, 질감, 색, 그리고 밝고 어두운 패턴과 공간적인 간격으로 이뤄진 패턴이다.

①반복(Repetition)

반복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동일 요소나 대상을 두 개 이상 배열시켜 이동하여 동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율동감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요소들이 위치를 제외하고 동일할 때에 반복적인 이미지를 주고, 시각적으로는 힘의 강약효과 라고 할 수 있다. 크기의 반복, 색채의 반복, 방향의 방법 등이 있다.⁷¹⁾

②교체(Alternation)

각 부분이 동일하며 간격이 일정할 때는 단조로운 반복이 생기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이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교대로 반복하는 것은 교체라고 한다.

(4) 대조(Contrast)

서로 다른 반대의 조합에 의해 생기는데 직선이 곡선을 만났을 때, 크기가 다른 형태들이 만났을 때, 형태의 대비, 공간의 대비, 중량감의 대비 등으로 분류된다.

(5) 지배성(Dominance)

디자인에 있어서 얼굴표현의 주된 포인트나 주된 흥미를 주는 요소로서 형태와 텍스춰, 색상으로 지배성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73>.

(6) 진행(Progression)

비례적인 단계의 연속적인 변화. 각부분의형태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색상이 점차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질감이 점차 변화해서 강에서 약, 약(弱)에서 강(強)으로의 배열을 말한다.<그림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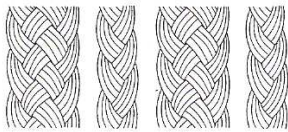
(7) 조화(Harmony)

71) 윤 영미, 「디자인 기초 교육에서 입체 조형의 모듈 학습에 관한 연구」, 건국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0, p. 33.

심리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 총체적인 부분으로 모든 디자인형식의 기초이다. 두 개 이상의 요소 또는 부분의 상호관계에 대한 내적인 가치판단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일된 전체로서 높은 감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3) 텍스춰에 의한 기법 연구.

(1) 땀기 기법(Braiding technique)



<그림100>땀기의 종류

땀기는 테크닉에 쓰여 지는 숫자에 등급이 매겨질 수 있다. 3-strand 브레이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기술이 기초되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 3-strand의 기초 하에 그 이상의 숫자의 스트랜드가 하나씩 추가되어지면서는 센터를 향해 조직이 짜여지듯이 두상의 바로 위에 또는 두상에서 떨어져서 이 기술이 형성 되어지는 것이다. 브레이딩된 사이즈는 크게 또는 작게도 될 수 있는데, 패턴의 섹셔닝과 스트랜드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100>.

요구되어지는 결과에 따라 섹셔닝 패턴이 달라질지라도 기본적인 땀기의 테크닉 법은 똑같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다양성을 위해 천체 축(Celestial axis)의 어느 선을 따라서든 브레이드가 포지션 되어질 수 가 있다.

(2)꼬기 (Twisting)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돌려서 하나의 단단한 루프형태가 되도록 감아놓는 방식을 말하며 스트랜드의 사이즈와 텐션이 트위스트 기법이 사용된 후의 꼬기 기법의<그림 101>모양을 결정한다. 싱글 스트랜드 트위스트, 2-스트랜드 트위스트, 더블 트위스트 방식이 있는데. 싱글 스트랜드는

시계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냐가 결정된다. 2-스트랜드 트위스트는 두개의 스트랜드가 서로 한데 꼬아져서 부드러운 로프의 형상을 가진다. 더블 트위스트는 두 세 개의 스트랜드가 서로 얹혀 짜지고 꼬아져서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준다. 스트랜드의 사이즈의 변화함에 따라 트위스트 되는 자리매김만큼 텐션의 양이 생기는데 디자이너에게 끊임없는 창조를 제공한다<그림 101>.

(3)고리(Loop)로 말아 올린 머리

루프 모양들은 다양하게 연출된다. 예를 들면, 원형의 루프들은 둥근 느낌을 주고, 좀 더 길게 늘어지는 루프들은 원통모양이나 삼각진 모양처럼 보인다. 루프를 통해서 그사이로 속이 비칠 수도 있 한쪽 끝이나 양쪽 모두가 닫혀 질 수가 있다.

더블 루프는 꼬아진 방향과 형성된 컬의 형태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방향과 형태의 다양한 조합으로 콤비가 되어 질 수도 있다

백코밍(Backcombing)은 양감과 형태를 보존하기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세이프의 안쪽에 놓여져야 하고, 따라서 백코밍 이전에 어느 방향으로 루프를 놓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한다. 브러싱(Brushing)이나 콤밍(Combing)은 스트랜드의 표면에 매끄럽게 사용되어져야한다.

루프의 사이즈는 손가락으로 스트랜드를 집어가는 위치에 따라 컨트롤 될 수 있다. 큰 루프는 베이스에서 손가락을 얼마나 더 멀리 잡는가의 위치에 창조되어진다.

일단 루프가 자리 잡고 안정되게 형성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펼쳐놓을 수 있다.

네이프에 위치한 루프를 이용한 쉬농의 클래식한 형을 만드는 법을 일례로 살펴보면, 일단, 옥시피탈 본(Occipital bone)에 포니테일이 위치하도록 한 후, 헤어의 약간의 모량을 잡아서 고무줄로 랩핑(Wrapping)한다. 끝에 남은 모량 끝은 실 핀 속으로 돌돌 감아 두른 후 머리끝을 반대쪽에 서부터 회전시켜 두피에 고정시킨다. 이 후 포니 테일된 머리를 반으로 나누어 백코밍을 한다. 탑 표면을 매끄럽게 한 후,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으로 길이를 집어서 넣는데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 루프의 사이즈가 결정된다. 루프의 위단과 아랫단을 핀(Bobby pin)으로 고정시킨다. 모발의 끝은 약간 트위스트 시키며 안으로 접어 넣고, 루프를 약간씩 펼쳐 확장

시키고 루프를 정리한다. <그림 102>와 같은 루프에는 싱글 루프(Single loop)와, 더블 루프(Double loop) 가있고 하프 루프(Half loop), 플랫 루프(Flat loop)가 있다. colored 되어진 헤어피스를 사용하면 루프의 방향을 강조시킬 수 있다. 컬러를 통해 헤어디자인의 깊이를 더할 수 가 있다.

(4) 매듭짓기(Knotting)

헤어 스트랜드 여러 개나 하나를 묶거나 섞어 짜서 얹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림 103>, 가운데를 통해서 끝을 가져와 하나의 스트랜드로 원을 형성하는 싱글 스트랜드의 매듭과 더블 스트랜드 기법이 있다.

(5) 롤(Roll) 말기

Roll 말기란<그림 104>이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발 자체를 가지고 둘러싸거나 감아진 머리의 구성을 말한다. 버티벌(Vertical roll) 과 컨투어롤(Contour roll)이 있으며 이 롤은 네이프에서 시작되어서 위로 진행 되어진 버티컬 방향의 세로축을 따라서 위치하는 것이다.

컨투어 롤은 헤어라인을 평행하게 따라가면서 라인을 커브로 돌아서가며 따른다.

롤의 사이즈는 패션의 트렌드나 개인적인 선호경향이나 등을 생각하기 앞서서 헤어의 기장(length)에 따라서 먼저 적합성이 결정된다. 보다 더 긴 기장을 가진 사람일수록 추가적인 볼륨이 형성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롤은 원통형이나 원추형인데, 천체축의 어느 방향을 따라서도 위치가 만들어 질 수 있다.

(6) 겹치기(Overlap)

열십자모양(+)을 만드는 효과를 내기위해서 두개의 스트랜드를 이용하여 반대편 사이드로 교대하면서 크로스 시키는 테크닉이다<그림 105>.

2-strand overlap을 소개하면, 두 개의 작은 센터 스트랜드를 잡아서 시작하여 오른쪽 스트랜드 위로 왼쪽 스트랜드를 크로스오버 시킨다. 그 후 오른쪽에서 또 다른 작은 스트랜드를 잡아서 왼쪽으로 크로스오버 시킨다.

이제 왼쪽에 작은 스트랜드를 잡아서 오른쪽 안쪽으로 크로스오버 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각 스트랜드의 바깥에 닿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다.



<그림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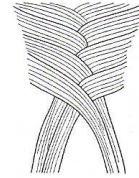
<그림102>



<그림103>



<그림
104>



<그림105>

- <그림101>꼬기(Twist)기법
- <그림102>루프(Loop)말기
- <그림103>매듭(Knot)짓기
- <그림104>롤(Roll)말기
- <그림105>겹치기(Overlap)

V. 연출을 위한 도구 및 사례

올린 연출방법에 대해 위에서 유출된 현대에 재현될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분류의 문항은 우리나라 개화기의 김 향란(2002)씨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재현되는 개화기 올림머리형태와도 종합·분석한 결과이며, 그리스 식 헤어스타일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재현되는 스타일을 보고자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자가 분류하였다. 유형별 그림은 아래그림<106, 107, 108>과 같다.

없은 머리형/쭙진 머리형/묶어 늘어뜨린 형

/말아 감싼 형(펌프도어/뒤통수 아래 묶어서 안에 둥그란 머리 심을 대어 말아서 감싸 올린 형):



<그림106>쭙진형. 출처: 네이버검색



<그림107>묶어서 늘어뜨린형. 출처: 네이버 검색



<그림 108>↑

<그림108>없은 머리형. 출처: Pivot Point

여기서 펌프도어는 우리나라에서 쓰여 올리는 방법이므로 분류상, 편의상 넣었다.

1. 셋팅(Setting)을 이용한 웨이브연구

셋팅은 올림머리 기술을 하기위한 기본적으로 헤어가 갖춰져 할 텍스춰 라이징의 조건이다. 올렸을 때 볼륨을 형성시켜 줄 뿐 아니라 컬이 부드럽게 말려들어가 두상을 따라 웨이브가 흘러가기에 필요한 선(先)조건 이다.

세팅의 크기는 자유이지만, 대·중·소가 고르게 사용되도록 한다.

벽돌쌓기로 와인딩하며<그림 109 ,110>, On the Base<그림 113>이다. 핀 컬은 2단으로 하며 상단은 시계방향, 하단은 시계반대 방향 컬로 마무리한다. 이것은 이사도라식 형으로 컷트 형태가 되어있을 때이고, 길이가

13-15cm 정도의 스파니엘 커트된 사진도면이며<그림 111, 112>, 기본적으로 5등분하여 와인딩하며, On the base로 시술 한다<그림 113 >.

후두부 측면은 슬라이스를 사선으로 한다. 시술 순서는 프론티에서 네이프 까지 중앙을 와인딩 하고, 오른쪽 후두부 측면을 비스듬하게 와인딩, 왼쪽 후두부측면을 비스듬히 와인딩, 오른쪽과 왼쪽 측면을 와인딩 한다.



<그림109>셋팅된 정면



<그림110>벽돌쌓기와 뒷면 모습

<표4> 셋팅 와인딩 방향에 따른 볼륨감의 차이

구분	호로존탈 셋팅	버티컬 셋팅	전대각 슬라이싱 셋팅	후대각 슬라이싱 셋팅
볼륨감의 대소	가장 크다	적다	중간	크다
웨이브기장상태	짧아 보인다	가장 길어 보인다.	기장 중간	길어 보인다.

셋팅을 하는 방식에 따른 웨이브의 차이는 마르셀이 고안한 고대가 퍼머넌트웨이브의 창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 72)최 중석씨 (2005)의 논문의 퍼머넌트 룯드의 와인딩시 얻어지는 웨이브 형성원리와 결국 같은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연구자의 연구한 바에 따라 위 <표4>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원리와 결과를 생각하면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기 전 올리기 전단계의 시술로서 완성해야 다양한 디자인을 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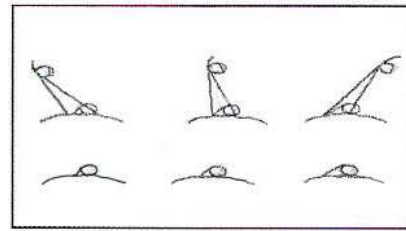
72) 정 현진 外 5인, 미용문화사, (서울: 광문각 , 2004), p. 160.



<그림 111>
스파니엘컷
헤어에 셋팅
후면



<그림 112>스
파니엘컷헤어
에 셋팅 측면



on half off base

<그림 113>베이스의 개념들

2. 아이롱을 이용한 웨이브 연구

아이롱은 1875년 프랑스의 마르셀 귀라투(Marcel Guratou 1852-1936)에 의해서 마샬 웨이브(Marcel wave)가 소개되었고, 우리나라는 1942년 오엽주 선생에 의해서 처음 일본에서 미용을 도입한 후 한국에서 일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아이론은 프롱(Frong)과 그루브(Groove)로 겹말음(베벨업, 소두마끼)<그림 114.>과 안말음(베벨 언더, 우찌마끼)<그림 115>으로 완성한다. 마셀 웨이브의 특징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웨이브이며, 그러기 위해서 웨이브가 자연스럽고 균등한 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S자 상의 웨이브가 물결상이 연결되며 폭도 가지런히 이뤄줘야 한다. 아이롱이 360도 1회전을 하면 C-curl<그림 116>이 나오면 이것을 반복하면 S-curl<그림 117>이 나온다. 아이롱과 웨이브의 간격은 균등한 폭만큼 벌리도록 해서 유지한다. 이 간격이 웨이브의 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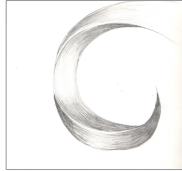


<그림 114>소두
마끼. 출처: 장
피엘 스타일북
p.141



<그림 115>우
찌 마 끼, 출
처:New Hair
Trend,2005.p
60-17

감고 난후 10초간의 시간차를 두면서 모발 사이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푼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펌과 같은 일시적 효과를 낼 수가 있다⁷³⁾<그림 118, 119>.



<그림116>C컬과 일러스트. 연구자의 그림



<그림117>S컬과 일러스트. 연구자의 그림



<그림118>아이롱의 S자컬 제작과정. 연구자의 시술



<그림119>아이롱 완성컬. 연구자의 사진 촬영

3. Hair- filler사용과 피스, 헤어 액세서리, 헤어제품

1) Hair- filler사용.

73) 이 군자 , Perm, Iron, &Dry , p. 36.

백코밍(Backcombig)은 새로 나온 기법이 아니라 머릿결의 방향과 거스르는 방향으로 빗질을 거꾸로 하는 것이다. 올림머리에서 필히 볼륨 감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기법인데, 판넬의 면에 고루고루 씨실과 날실이 교차되는 섬유와 직조물과도 같이 촘촘히 고루게 들어가야만 균일하고 매끈한 두상을 만들 수가 있다. 사람의 두상이 반듯하게 생기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볼륨을 이용해서 동그란 타원형의 두상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다. 60년대 비히이브(Behive) 스타일이 백코밍을 이용한 대표적인 스타일의 모습이다. 이 머리를 하려면 영킨 더미처럼 머리를 만들어 위로 살려서 머리길이와 상관없이 짧은 머리에도 사용된다.

올림머리를 할 때 겉 표면에 드러나 나오지 않게 안쪽으로 백코밍을 넣어 야만 텍스처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볼륨은 살면서 스타일이 형성된다..

백코밍과도 같은 이치로 filler는 머리안쪽에 부피감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며, 인조나 인모를 사용해 그물망을 씌워 사용하면 훨씬 부피감이 아름답게 형성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되나, 미용실 현장에서 사용되는 머리카락을 담아 그때 필요한 사이즈로 볼륨감에 맞게 Hair-filler를 만들어 쓸 수 있다<그림 125>. 연출 필요에 따라 위그렛을 사용할 수도 있다<그림 121>.

2) 피스의 사용.

그리스나 로마식의 연출에도 쓰일 브레이딩된 또는 긴 피스를 사용하여 길이의 연장이나 땡은 머리를 이용한 스타일 연출에 가능하다.<그림 122 , 123>는 그 모습을 일례를 보여준다. <그림 120>은 <그림 124>와 같이 길이 연장에 쓰인다.



<그림120>헤어피스.
출처:David@cyber
coiffeur.com



<그림 121>
> wiglet. 출처
David@cyber
coiffeur.com



<그림122> 브레이딩 피스. 연구자 촬영



<그림 123>
브레이딩된 피스를 사용한 연출.



<그림124> 헤어
피스 응용. 출처:
그림<120>과 동
일
<그림123> 브레이딩된 피스를 사용한 연출. 출처: <120>과 동일



<그림 125>
>Brown 헤어
filler. 연구자
제작·촬영

3) 헤어 액세서리

10대는 화려하지 않은 상큼함을 엿볼 수 있는 컬러가 좋고, 개버딘헤어 밴드나 민무늬 일자선을 사용한다. 20대엔 파스텔 톤의 액세서리가 무난하다. 시선이 분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윗머리를 고정할 때는 심플한 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시중에 나와 있는 비녀 중엔 U자 핀 형태의 비녀가 있다<그림 127>. 이런 형태는 크라운 부분에 섹션을 떼서 반 머리를 따로 묶어서 처리 시 용이하다.

긴 머리에 사용되는 이집트 시대부터 살펴봤던 일자로 된 비녀가 있는데, 단색-화려한 색까지 다양하다<그림 128>. 머리를 틀어 올려서 분위기에 따라 사용하며, 심플하면서도 고풍적이고도 동양적인 신비감도 준다.



<그림126> 사용될
바비핀과 U핀, 핀
셋류. 다·카 촬영



<그림127>나비모
양 U자핀. 출처:
네이버 검색

이것도 역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장식 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그림 129>, 오늘날까지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패션의 좋은 모티브였다고 생각한다. <그림 126>은 손을 대신하여 스트랜드를 잡아 주는 부속 핀 과 고정하게 해줄 핀들의 사진이다.

4) 헤어 제품

·포마드(pomade)

점성유지와 납의혼합물로 만든 정발료(整髮料) 화장품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으로 라틴어로 ‘사과’란 뜻이다. 향료나 수지를 사과 속에 채



<그림128>현대의 일자
형 비너. 네이버 검색



<그림129>그리스
의 비너 식 핀

<그림129>그리스의 핀. 출처: Accesories of dress p.119.fig 146.↑

워 넣어 소나 말의 기름 속에 담가뒀다가 나중에 꺼내어 지분을 분리하여 만든다. 고대 이집트는 두발과 전신미용에 다 쓰였다고 전한다.⁷⁴⁾ 그 후 꽃을 지분에 담아서 채취하는 화정유가 남유럽에서 널리 행해졌는데 한국에서는 켈리나 반고체 상태의 기름으로 광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며, 식물성으로는 피마자유, 목랍, 올리브유 등으로 배합되며 적당한 정도와 점성이 있고 퍼짐성이 좋기 때문에 동양인의 모발과 같이 굵고 단단한 모발의 정발에 좋다. 광물성은 바세린, 유동 파라핀 등 광물성유를 구성 성분으로 하는데 식물성보다 접착성이 약해서 정발력이 떨어지나 끈적임이 없이 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가늘고 부드러운 모발에 사용할 수 있다. 두발에 광택을 주고 올린 머리모양을 윤기 있게 정리하는데 쓰인다.

·헤어 오일.

올리브유, 동백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 유동 파라핀을 함유하는 것 혹은 두 가지 혼합한 것이 있으나, 우리나라 일본 등에선 동백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 왔었으나, 사용감이 좋지 않아 최근 감소 추세다.

74) 정 현진 외, 앞의 글 . p. 101.

·헤어스프레이

셋팅한 모발위에 고루 분사하여 셋팅된 모발의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마무리용 정발제로서 스프레이를 분무한 후 굳기 전에 브러싱을 하면 정발이 깨끗이 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헤어디자인을 결정하는 3가지는 머리형태(Form)와 머릿결(Texture)과 컬러(color)의 3가지요소이다.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각되는 사물의 이미지는 다르다. 이들의 요소들의 바탕이 되는 소재인 사람의 골격과 얼굴의 이미지에 따는 머리형태를 보면서 디자인을 전개해 본다.

4. 골격 유형의 분석.

두상은 전두부, 두정부, 측두부, 후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두, 두정, 후두에는 돌출된 부분이 있다. 동양인의 경우는 두정 융기가 발달 하고 후두골이 눌린 경우가 많다. 개인에 따라 사람의 두상은 차이가 나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두개골이 크고, 융기가 발달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두개골이 외 후두부 돌출 부분과 곡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그림 130>.

5.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분석(分析)과 디자인 전개(展開)

두상과 얼굴은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스타일을 해도 다른 느낌의 머리 스타일인 것처럼 느낌과 분위기가 다르게 된다. 얼굴의 형태에 맞는 묶음 점과 디자인을 응용하기에 앞서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를 먼저 구분하여 변수와 한계 설정 등의 아이디어를 수집 하고 아이디어 합성·편집을 하여 구체적인 디자인 원칙에 맞춰 컨셉을 구현하는 준비단계로서 분석이 필요하다.

1)라운드 형(round)

주로 한국인에게 많고 둥글고 가로, 세로, 골격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 통통한 느낌을 주므로 턱 부분에 묶음 점을 두든지 볼륨 감을 살려서 실어 보이게 연출한다. 가운데 가리마는 피하는 게 좋고, 이마 윗부분은 부

풀려서 연출하고 옆머리의 컬이 강한 볼륨감은 실루엣상의 단점을 강조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즉 넓이는 피하고 길이는 강조하는 디자인이나 비대칭 디자인도 좋다. V넥이나 뾰족한 칼라를 댄 의상을 입는 것이 좋다.

2)장원형(oval)

얼굴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이고 얼굴 폭보다 길이가 약간 길고, 이목구비의 균형이 적당한 얼굴형으로 표준형이라고 하지만, 한국인에게 많지는 않다. 턱 부분에 너무 많은 볼륨 감을 주면 길게 보이므로 사이드 쪽을 약간 볼륨 감을 주는 것이 좋다. 가운데 가리마나 올백 스타일을 권장해 볼만한 형이다.

3)장방형(rectangular)

얼굴이 긴 사각형인, 얼굴 폭이 좁고 대개 코가 긴 사람이 많다. 수평라인을 이용한 넓이 감을 착시효과로서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평느낌을 굵게 해준다. 톱 부분은 살리지 않고 이마 부위는 가려주고, 볼 부위는 볼륨감 있게 턱 부위는 굵은 웨이브를 내려주어서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4)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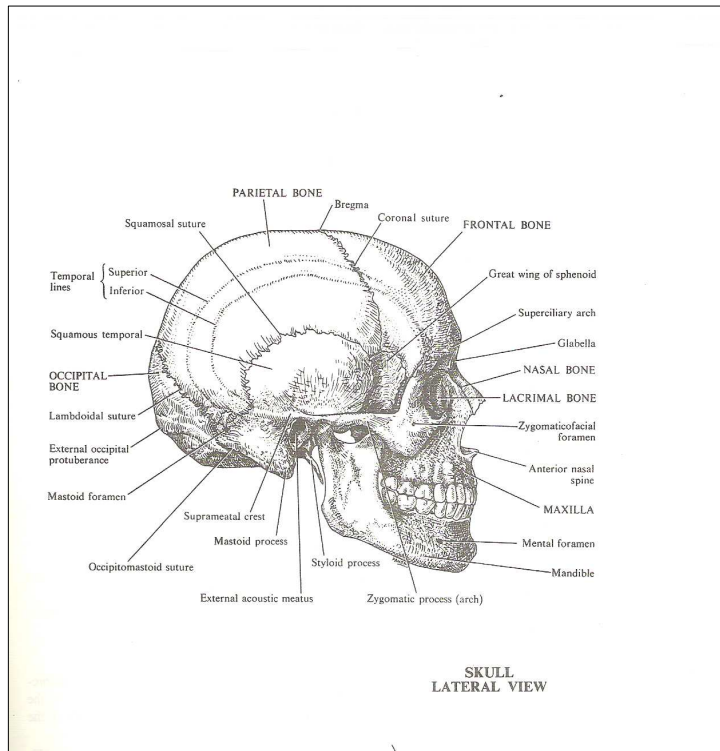
두상과 양 이마 부위가 넓고 턱 부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는 형이고 마른 느낌을 주고 지적인 이미지고 현대적인 느낌은 주나,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우며, 빈약해 보이므로 컬러 대비를 이용하여 협소한 아랫부분을 양감을 주고, 이마의 결점을 피하기 위해선 턱 부분엔 둥글게 볼륨 감을 주고 가르마를 타거나 내려, 이마를 조금 덮어준다. 옆 부분은 웨이브 넣어서 볼륨 감을 주고 모발 끝은 둥글게 한다.

5)마름모형(diamond)

광대뼈가 나온 얼굴이고 지적인 이미지면서 자신감과 적극적인 느낌을 준다. 이마와 턱은 살이 없는 형 이므로 자연스런 흘러내림으로 광대뼈를 커버하며, 여성스러움을 연출하도록 한다. 볼 부위에 강한 컬은 광대뼈가 강조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마를 노출 시키면 볼이 강조되고 나이드 들어 보인다. 턱 선은 부드럽게 한다. 비대칭 연출을 하면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6)정방형(Square)

광대뼈와 턱 부분에 각이진 얼굴로 골격이 굵고 다부진, 강한 인상의 개성적인 얼굴이다. 이마와 턱의 넓이가 넓어 보이는 형으로 부드러운 선으로 착시효과를 주어 부드러운 인상이 되도록 한다. 톱을 너무 살리지 말고, 양쪽의 이마 부위를 살짝 내려 커버해준다. 볼 위치엔 볼륨이 있는 비



<그림130>두상의 골격(skull). 출처: Review of Gross Anatom Fifth Edition-Ben Pansky, ph. D., M. D., p. 9.

율의 디자인을 하며, 사선을 이용한 비대칭 라인을 강조하여 각진 선을 완화 시키는 것이 좋다. 턱 선은 가볍게 얼굴 턱 선을 감싸는 둥근 느낌의 율동감을 부여하면 이미지를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31>은 이러한 얼굴 타입별의 이미지들의 사진들이다.



1) 2) 3) 4) 5) 6)

<그림131>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그림들

VI. 재현을 위한 작품의 디자인 설계 및 해설

1. 설계를 위한 전개 방법

이미지의 시각화를 돕는 이들 형용사들을 이미지의 유형과 형용사에 따라 적절한 느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좌표가 되는 그림이 이미지 맵(Image map)이다.

이러한 좌표는 패션의 예술이나 헤어조형이 갖는 주관적인 평가들을 보다 더 객관화 하고 다수에게 나타내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형용사가 갖는 추상인 표현되는 것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각적(視覺的)인 근거자료가 되며, 디자인 방향 설정에서도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지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각 이미지에 사용되는 형용사로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맵으로 그 느낌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얻어진 이미지의 형용사에 맞는 각각의 자리를 하나의 점(點)으로 표시해서 구체적인 형용사적인 느낌을 가진, 조형적인 구현이 가능해지도록 돕는다. 위의 얼굴형과 골격에 맞는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사람마다 갖는 특성과 개성을 살린 디자인을 설계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객의 이미지와 고대의 조형적 디자인 이미지와의 조화를 창출해 낼 과정에선 다양하게 표현되어 질 수 있는 키워드(key word)를 생각하면 좋다. 이들 형용사에 들어갈 다양하게 파생되어지는 키워드로써의 지표가 될 연상 형용사들은 이들 형용사가 다양하게 파생되어지는데 일정한 기준점이 있어야할 것이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상대적인 개념을 그려 놓은 것이 이미지 형용사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객관화 시키고 구체화 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map을 사용했다.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평가에 형용사를 map을 통해 그려보면 <그림 133>과 같다.

다음의 <표 5>는 유형을 8 개로만 나누어 쉬놓에 접목시켜서 연구자 고찰한 바에 따라 평가되는 이미지 형용사를 맞춰서 만든 사례 표이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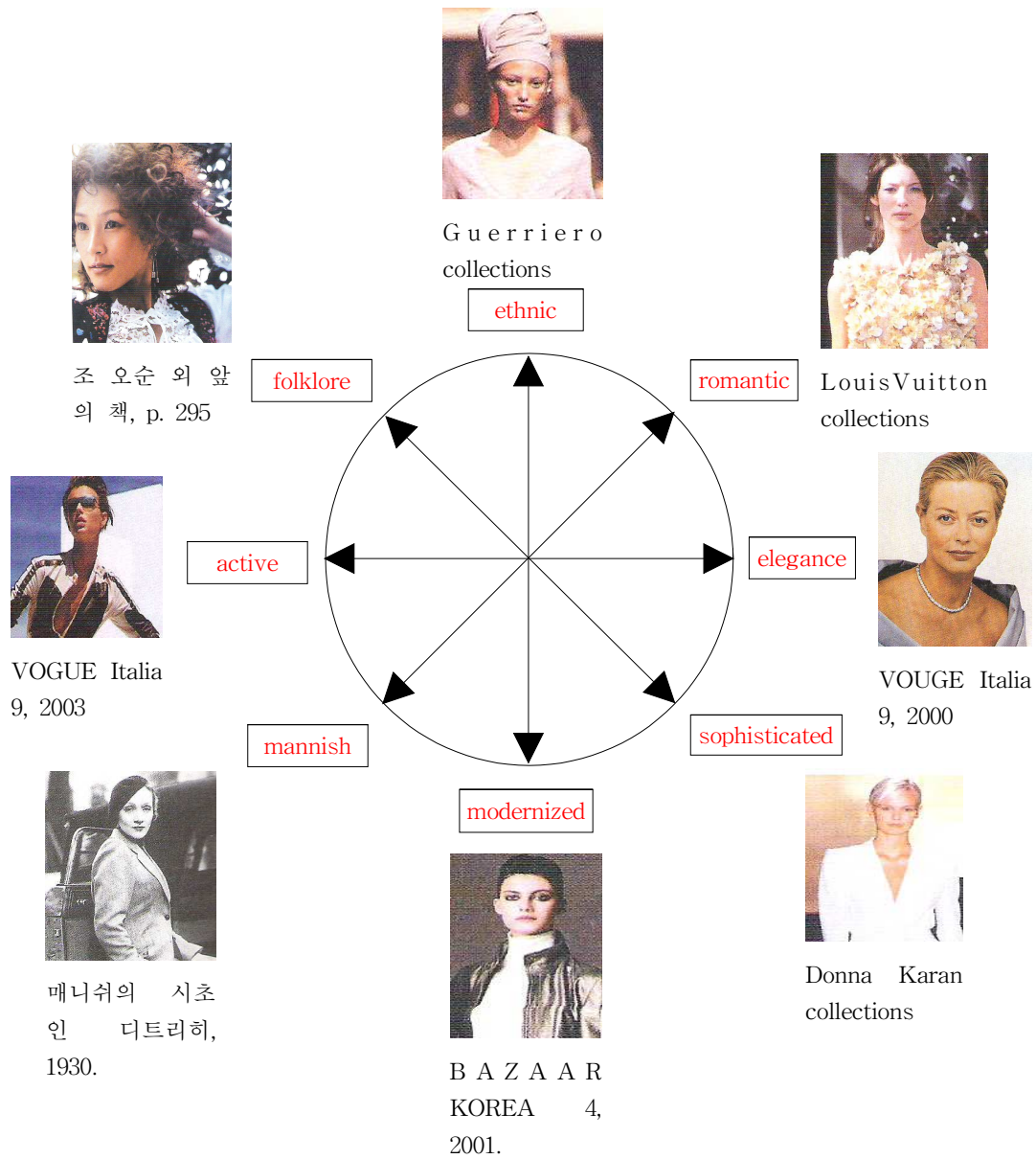


기에서 모던보다 더욱 '전위적인' 위치에 있다고 map 상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고대에로의 주제와 거리가 먼 '아방가르드한(Avant-garde)' <그림 132>은 <표 5>에서 제외 시켰다.

<그림132> ㄱ

<그림132> '아방가르드한' 이미지. 출처: Jean Paul Gaultier collections.

<그림 133> 쉬농(chignon)스타일의 이미지 맵(map)



유형	구체화된 이미지 형용사와 사례들 *():사례내용
에스닉(ethnic)	소박한, 자연스러운, 민속적인, 비기독교적, 토속적, 민족적(기하학적 문양의 액세서리나 비기독교적인, 종교적인 헤드드레스의 착용)
로맨틱(romantic)	공상적, 비현실적, 꿈을 좇는, 밝은, 소녀적 취향의, 부드러운, (프릴이나 레이스, 끈 등을 사용한 사랑스럽고 탱글한 느낌의 곡선의 컬 느낌)
엘레강스(elegance)	우아한, 여성스러운, 고귀한, 고급스러운, 품위가 있는, 균형 잡힌, 성숙한, 은은한, 다소 보수적인,(대부분의 여성들의 소망적인 스타일)
세련된 (sophisticated)	다소 직선적>곡선적, 어두운>밝은, 차가운>따뜻한, 남성적>여성적, 다소 성숙한, 다소 무게감 있는, 클래식성도 가진, 지적인, 세련된,
현대적인 (modernized)	근대적, 현대적, 미래를 동경하는, 도회적, 진취적인, 하이테크한,(간결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날카로운 느낌의, 헤어 스타일 링제를 사용한 듯한 윤기성이 부여되면 더욱 부각됨. 차가운 분위기 연출, 무채색 중심, 실버계 액세서리 주사용)
매니쉬(mannish)	남성풍, 남자와 평등적인, 중후한, 강한, 직선적인, 자립심이 강한,(부드러운 컬 형태 보다는 직선적인 모발을 사용한 느낌이 더욱 돋보이게 함. 장식성배제, 간결, 단순, 어두운 톤 중심)
액티브(active)	밝은, 활달한, 기능적인, 단순한, 활동적, 대담한, (정교성을 요하는 스타일 보다는 일순간에 손질하기 쉽고 바로 손쉽게 연출 할 수 있는 컬이나 직선적 모발 상태에서의 쉬농법이 요구된다.)
포클로어(folklore)	서민적인, 유럽기독교 문화권의 소박한 농부적인, 폐전트한, 소박한,(유럽 농촌의 민간전승적인 머리스타일과 옛부터 쓰인 헤드 드레스 사용 시 더욱 부각된다)

<표 5> 쉬농 헤어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이미지 평가 형용사

<그림 133>의 맵 위에 그 외에 파생되어질 수 있는 이미지를 대입하여 구분하면 조형적 구현에 도움이 된다.

이미지분석을 통한 작품 디자인전개 단계순서이다. 디자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얼굴의 구조와 얼굴의 각각의 Need에 맞게 아이디어를 구상한 후 컨셉을 구상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수정작업을 통해 점차 완성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식의 재현을 위한 방법으로는 ①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 ② 이전에 응용된 모델의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든가, 연상되는 형용사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③단어 추출법에 의한 연상어휘를 통해 이미지를 조형화하는 방법이다. 즉, 연상되는 단어와 상징물을 생각하며 수집된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을 하도록 한다.

2. 작품 제작 의도 및 해설

20세기 후반부터는 시대사조에 맞아야 하고 유행이라는 물결에 크게 휩싸이지 않는 것과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주기성(週期性)이 없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다. 단지 룰만 적용될 뿐이다. 유행에 상관없이 시대의 정신으로 흐르고 있는 고대 복식을 고찰(考察)하여 이를 디자인에 적용(適用)하고자 한 것이다.

동·서양의 교류(交流)는 21세기의 패션에서도 또한, 헤어스타일에서도 나타난다. 각국의 패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재와 실루엣, 색채감각이 패션산업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연스러우면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민속풍(ethnic)의 헤어스타일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ethnic은 '민속학', '인류학적'이란 뜻을 가지며, 패션 계는 때때로 각지의 민속의상이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는데 있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현대 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⁷⁵⁾ 고대에서 아이디어를 수집(收集)하고 모티브를 선정했던 이전 작품들을 참조하기도 하고, 연상되는 키워드를 추출(抽出)하는 방법, 기타 디자인의 원칙이나 요소, 컨셉 구현 등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면서 분석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선정(選定)하는 순으로 했다. 고대복식의 가치(價値)를 인식하고 표현 영역을 확대하여 독창적인 디자인개발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자는 그리스의 흐르는 듯한 드레이퍼리 식 선의 실루엣을 유념하여 그리스 시대에서 영향을 보여준 미적특성을 바탕으로 작품제작을 하였다.

그리고, 여기의 작품들은 기능성(機能性)과 활동성(活動性)에 중점을 두

75) 조 오순 외 5인, 『함께 알아보는 패션 그리고 뷰티 이야기』, (서울 : 경춘사, 2005), p. 293.

어 작품에 적용(適用)하였고, 가급적이면 인조 피스 등의 액세서리 사용을 자제하였고, 아방가르드 함을 지양하고 내추럴리즘에 바탕 해서 자연색상의 자연모발을 이용한 인모를 가진 마네킹에 시술하였다. 즉, 개성미에 중점을 두고 여러 실루엣이 나타나므로 실루엣에 맞춰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시술될 사람의 지위와 연령과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와 성격, 사용될 때와 장소에 맞춰 묶음의 높이 점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그러므로 여기서의 제한점은 표준식의 마네킹에 제작함 인해 얼굴형과 개성에 따른 컬러의 사용과 사람마다의 두상 크기에 따른 비례미의 표현범위가 제한적 범위라고 볼 수 있다.

1) 테마적 모티브와 작품을 위한 기법 및 해설

(1) 작품 I

①모티브: <그림 134>는 그리스 벽화에 그려진 미노안의 늘어뜨린 머리이다. 긴 머리에 키워드로서의 형용사로 쓰일 '여성스러운 컬'을 주어 이어 포인트 주위에 띠를 두른 모습이다. 마치 물결이 흐르는 듯한 컬을 리드미컬하게 살려 또 다른 키워드인 '유동성(流動性)'을 보여준 그림이다.

②기법 및 해설: 이를 형상화하여 일러스트하면 <그림 135>는 묶어서 늘어뜨린 형으로 백 포인트 보다 약간 위 지점에 묶임 점으로 해서 묶음에서 생긴 두개의 스트랜드로 오버랩하여 감싸서 안쪽으로 핀 고정하였다.<그림 136>은 이를 작품으로 구체화 시켰다.



<그림 134>벽화에 그려진 minoan여인의 모습. 같은 책, p. 51.



<그림 135>작품의 일러스트



<그림 136>작품 I

(2) 작품 II

① 모티브: <그림 137>에서 보여준 그리스 여인의 묶어서 길게 늘어뜨린 머리에서 영감(靈感)을 얻었다. 머리를 반드시 묶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반은 내려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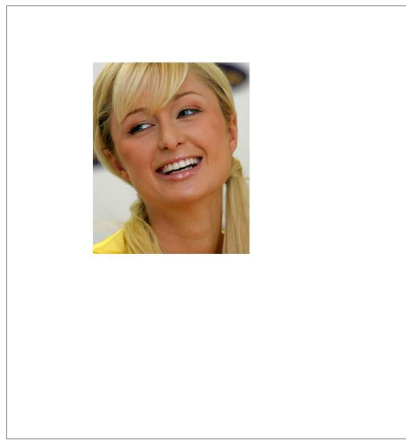
② 기법 및 해설: 만든 작품 II는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사이드

방향으로 묶음점을 정한 후 세 스트랜드 모두를 각각 롤 형의 웨이브로 말아서 돌리듯 꼬아서 하나의 묶음점을 향해 모아서 핀으로 고정하였다. 원 모티브가 보여주는 컬의 규칙적이고 정연한 웨이브 느낌의 안정적이고 대칭적인 것을 다소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그러나 modernized한 느낌의 표현 방식으로써 사이트에 묶음점을 두었다.

묶음점의 사이드로의 변형(變形)으로 앞모습에 귀염성을 줄 수 있게 변형하였다. 운동선수들의 헤어스타일로도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으며, 발랄한 소녀적이고, 캐주얼한 느낌<그림 139>으로도 표현 될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림137> 화병에 그려진 그리스 고전시대의 헤어스타일. 출처: Survey of historic costume. p. 51.



<그림138> 현대적인 side묶음방향으로의 변형 점 착안 출처: 네이버 검색

느낌에 있어서 자유스러움과 해방감을 줄 수가 있고 표현감이 대칭적이지 않아 너무 무겁지도 않아서 현대와 같이 활동성과 기능성, 개성미를 추구하는 시대에 맞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올림식의 머리가 보다 보편화 되어있고(특히 여름에), 다양화 되어 있는 추세이므로, 가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잘 선택하여야 한다.

이렇듯 쉬넵은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다양한 연출의 스타일을 단시간에 바꿔 가면서 연출하므로 두상에 관한 연구와 미의 세계를 관찰하기에 좋



<그림139> 캐주얼한 느낌의 쉬
농 연출, 출처: 네이버 검색



<그림140> 작품 II

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3) 작품 III

① 모티브: 원 모티브인<그림 66>의 꺾이 있는 머리를 하나의 묶음
점을 향해 올리고 네이프 쪽의 머리는 느슨하게 늘어 뜨려놓은 형이다.

② 기법 및 해설: 작품 III는 다른 방법으로 늘어뜨린 형태의 묶음점
을 달리 표현해서 달라진 스타일의 변형을 보여주고자 했다. 즉, 뒤의 묶
음가닥을 4등분하여 각 스트랜드의 안쪽을 백코밍하여 롤의 형태를 형성
하여 지지시켜 주도록 하며 브러쉬로 윗부분을 가지런히 정발하여 스프레



<그림141> 작품 III

앞의 <그림66> 작품 III의 모티브, 고대 그리스의 여인. 출처:
The mode in costume.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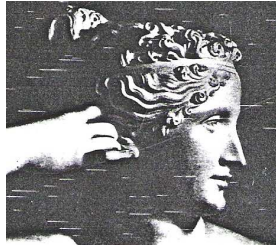
이를 분사하며, 끝을 안보이도록 핀으로 정돈한 것이다. 아랫부분의 흐름은 디자인적인 의도로써 롤을 만들지 않고 늘어뜨렸다.

쉬넵은 직선상의 헤어스타일에서 바로 변형(變形)할 수 있는 아주 유동성(流動性)이 쉬운 디자인임을 보여주고 늘어뜨린 형의 또 다른 변형 범위를 볼 수 있었다.

(4) 작품IV

① 모티브: 그리스의 여인조각상의 여인들이 두른 끈과 카울(Caul)에서 보듯 그리스식의 연상되는 키워드로서 '끈'과 '카울 식 띠·망'을 이용한 스타일이다. 여기선 IV-A 식(끈)과 IV-B식(망)로 나누어 각각을 만들고 설명하였다. 작품IV-A, 와 B는 각각<그림 142>, <그림 145>에서 보여 지는, 이들을 이용한 머리 장식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하였다.

② 기법 및 해설: 작품 IV-A를 만들 때의 재현 영감을 받은 <그림 143>은 21세기에도 재현으로 나온 한 모델의 사례인데, 런던 패션쇼 주간에 디자이너 매튜 윌리엄슨에 대한 헌정무대에서 미국배우 시에나 밀러에



<그림142>작품Ⅳ-A의
모티브가 된 그리스식
여인 조각상. 아래⊙참조



<그림143>조각상의 재현.
metro신문, 2005. 2월.18일
자 p. 16.

게 재현된 모습이다. 여기서 작품Ⅳ-A는 이 <그림 143>를 보고 그리스의 끈을 이용한 디자인의 접목이다. 올린형태는 잔잔하고 깨끗한 쪽진 형이며, 수반 부위를 크게 뜨고 그 안쪽의 밑 부분을 Backcombing한 후, 수반의 윗 부위를 스프레이를 분사 하고 윗부분을 브러싱하여 정발한다. 묶음 점 아래 부분은 땅아서 안으로 넣어 고정하고, 양사이드의 분할된 섹셔닝은 각 이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하여 이 부분에서부터 끈과 함께 묶은 후 브레이딩을 엮어 끝까지 땅았다. 각각의 땅은 끝을 백코밍하여 풀리지 않게 한 후 묶음 점 부위를 상호 감싸 핀으로 고정시켜 완성 했다.

작품 Ⅵ-B는 <그림 146>처럼 21세기에 어울릴만한 모던하고 활동성도 부여하여 패셔너블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앞장에서 살펴본 네가지 유형 중 말아서 감싼 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짧은 단발 형이기 때문에 볼륨감을 더욱 주기 위해서 안쪽에 원형의 filler를 대어 두상에 볼륨감을 살리고 감싸서 말려고 하는 스트랜드 안쪽에 백코밍을 한 후 브러싱하여 핀으로 고정하였다. 그리스의 묶음점을 감싸는 밴드 식 처리로 깔끔함을 줄 수 있게 쉬닝 부분을 감쌌다.

복고적 느낌을 주면서도 현대적이고 캐주얼 하다. 사회진출이 많은 현대 여성의 모던한 자기 개성연출과 내재적인 강인함을 요구되는 시대가 요구하는데 잘 부합하는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림 142>는 대리석 조각상, <승리의 비너스로 분장한 ‘파울리나 보르헤스’>. 파울리나는 나폴레옹 황제의 여동생임- 안토니오 카노바 作, 1808. 로마, 보르헤스 미술관 소장품.



<그림144> 작품 IV-A



<그림145>그리스적 모
티브. 미용문화사 p. 27.

(하)
<그림146> 현대적 느낌의
밴드 연출 착안. 사진 출처:
스트리트 헤어 2002.(상)



<그림147> 작품 IV
-B의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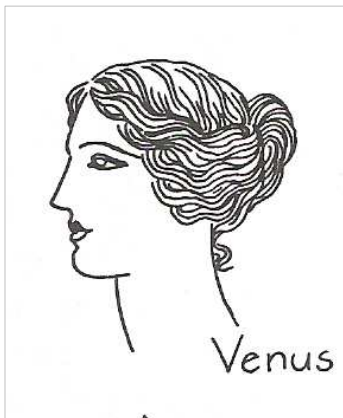


<그림148> 작품 IV-B의 측면

(5) 작품 V

① 모티브: <그림 149>와 <그림 150>의 재합성(再合成), 즉, 그리스 '비너스'의 영감과 '비잔틴시대의 헤어스타일'의 특징적 아이디어를 얻었다.

② 기법 및 해설: 원래 모티브에서 보이는 방법처럼 '루핑(Looping)' 방법만을 이용하여 쉬닝 부분을 감싸 고정시킬 수도 있지만, 사이드의 두 개의 스트랜드를 부드럽게 꼬아 가면서 하나의 묶음위치를 선정하는데에 이르러 지적이고 상큼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Back point 위치에 묶음을 핀 고정했다. 묶음점의 위치는 20대에 적합한 높이이기도하다. 직선적인 두발을 이용해서 바로 curly한 헤어 연출을 대신할 수 있는 쪽진형의 변형이다.



<그림149> 작품 V의 모티브,
그리스의 비너스 출처: The
mode in costume, p. 17.



<그림150> 조각상에 보여진
비잔틴시대의 여인의 머리 출
처: 김 두임씨 논문, p .29.



<그림 151> 작품 V

(6) 작품 VI

① 모티브: 테마는 로마시대로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curl'로서, 'curl'이 많은 뒷머리를 틀어 올린 스타일<그림 152, 154>을 응용한 스타일이다.

② 기법 및 해설:

자연스럽고 묶음점이 높아 10대-20대에까지 접할 수 있다. curl의 크기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자연스러움에서부터 아방가르드하고, 평키한 느낌까지 주는, 자아의 표출 하고자하는 현대사회의 욕구와 함께 이 같은 조형적 디자인에 변형(變形)을 줄 수 있는 스타일이다. 굵은 컬의 표현으로 자연미(自然美)가 있는 자연으로의 회귀(回歸)를 보여주는 내츨릴리즘에서부터<그림 153>, 컬이 작은 표현으로 이국적인 느낌까지도<그림 154>에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T·P까지로 묶음의 포인트를 올렸고, 시선은 상향(上向)으로 방향성을 주었다. 컬의 자유스러움으로 율동미를 강조하였고, 입체성이 있게 전체적인 양감(量感)을 주면서 공간감을 부여하였다. 위의 유형 중에 엮은머리 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152> 로마의 컬이 많은 여인의 머리형, 출처: Survey of historic costume, p. 51.



<그림153> 내추럴 이미지로의 응용 이미지. 출처: 헤어월드 검색.



<그림154> 이국적인 느낌의 응용 이미지, 출처: 뷰티라이프 2005, 2월호



<그림155> 작품 VI

(7) 작품 VII

① 모티브: VII-A를 위한 영감의 모티브식인<그림 156>에선 수평적 느낌이 나는 브레이딩을 가로 방향으로 가로 지르게 하고, 앞머리의 컬을 살린 채 뒤에는 쪽을 진 형태이다. VII-B는 오버랩 되어지는 기법을 연상하게 한 쪽진 부분의 천으로 감싸진 형의 그리스 여인의 머리다.

VII-A와 B, 모두는 로마시대의 쪽진 형의 변형으로 연령 대에 있어서는 20-30대까지도 어울리는 묶음 점에 위치한 스타일이다. 다소의 모티브 재합성(再合成)과 재융합(融合)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자한다.

② 기법 및 해설:

작품 VII-A의 로마식의 쪽진 머리형을 대신한 스타일 변형을 하기에 앞서 먼저 두상의 둥근 형태 감을 살리기 위해 두상안쪽에 백코밍을 하였다.



<그림157> 작품 VII-A

<그림156>작품 VII-A의 모티브,
로마 여인의 쪽진 머리 출처:
Taschen. p. 41.

두발의 곁에 포마드를 바르고 정발하듯 브러싱 하여 모임 점을 향해서 단단히 묶는다. 트위스트 기법으로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 트위스트 되어진 가닥들을 수직적 리듬감을 주며 배치하여 핀 고정하였다. 쪽진 형태의 각 나뉜진 스트랜드의 배치는 원내의 수평적 배치<그림 156>에서 보이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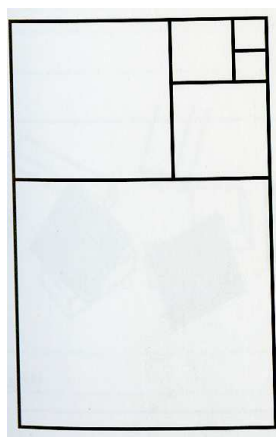
래의 모습에서 다소 변형을 주어 수직적인 느낌으로 변형을 주었고, 더욱 입체감과 볼륨 감을 살리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도록 트위스트 되어진 안쪽의 가운데 진주를 장식한 디자인이다. <그림 159>와 <그림 160>의 황금 분할 비례를 염두에 두고 작품 구상에 들어간다. <그림 159>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황금 분할된 전체 면적내의 부분적인 크기의 응용을 구상할 수도 있다.

작품 VII-B는 또 다른 쪽진 형의 변형한, 이를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림 161>는 이를 일러스트하여 보여준 것이다. 브레이딩한 쪽진 쉬농 형을 양 사이드의 두 가닥의 스트랜드로 오버랩(Overlap)기법으로 감싸 둘렀다.

이집트 시대의 나일강의 잿은 범람에 의한 계측법에 의한 수리 탐구식 비례체계의 추구, 그리스 시대는 인체에 황금비례의 추구, 로마시대의 대칭적 비례의 추구 등이 현대에 와서는 비례체계의 발전과 확립이 조형작업에 도움을 주는 지름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나친 하나의 원리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미적인 감각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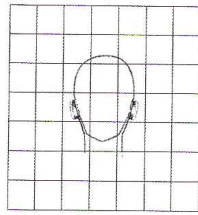


<그림158> 작품 VII-B의 모티브, 화병에 그려진 그리스 고전시대의 두식과 발형, 출처: Survey of historic costume p. 51.



<그림159> 황금면적분할의 적용범위로서의 제안. 아래 ⊙표시 내용 참조

⊙김미옥 외 1 인, 『입체조형의 이해』, (서울: 그루 2003), p. 53. 그림을 이에 적용하고자함-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 의미함



<그림160> 두상에서의 황금비율을 쉬농의 사이즈에 도입 제안



<그림161> 작품Ⅶ-B에 대한 연구자의 일러스트



<그림 162> 작품Ⅶ-B

(8) 작품 Ⅷ

① 모티브: 그리스, 로마식의 타래머리(Chignon)이나 카울(Caul)이라는 망으로 머리전체를 감싼 형과 쪽진 형의 로마 쉬농을 한<그림 163>의 융합(融合)형으로 그리스 식의 키워드로서 '그물망'과 '진주'를 장식적으로 이용한 재현에 필요한 영감(靈感)의 키워드로서 '망(網)'을 이용한 스타일이다.

② 기법 및 해설: 묶음점은 네이프 쪽에 가깝게 두어 성숙(成熟)한

30대 이상 여인에 적합한 디자인이고, 양 사이드 부분은 시작은 3-strand로 시작하여 사이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모아 브레이딩 기법으로 하나의 모임 점으로 끝으로 감싸 고정하는 테크닉이다. 가운데는 filler를 안쪽에 대고 트위스트한 스트랜드를 감싸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가운데 수반의 부위는 형태 감, 볼륨 감을 위해 백 코밍을 이용하고, 쉬농될 부분을 그물망으로 감싸 올려 핀으로 고정한 디자인이다.

작품 VIII-A는 구슬의 수는 홀 수 갯수를 이용해서(7개) 다른 색의 진주 구슬을 사용한 예이고, 작품 VIII-B는 같은 흰 색 진주 구슬(7개)을 사용해 느낌의 변화를 보았다. 굳이 홀수를 사용한 것은 짝수 사용보다 비대칭의 느낌으로 보다 여성스럽고, 은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림163>로마의 쪽진 여인의 조각상. 출처: 김 두 임 씨 논문



<그림164><그림 163>으로 부터의 쪽진 형의 영감. 연구자의 일러스트



<그림165> 작품 VIII-B에 대한 연구자의 일러스트.



<그림166> 작품 VIII-A, 다른 색의 구슬 연출



<그림167> 작품 VIII-B, 같은 흰 색의 구슬 연출

VIII- B가 같은 수의 진주를 썼으나 백색(白色) 한 가지 색의 사용으로 안정적이고, 더욱 엘레강스한 느낌을 준다. 묶음 점도 더욱 내려가서 B는 더욱 성숙함과 엘레강스한 여성스러움을 보여준다. <그림 165>는 작품 VIII의 진주와 망을 이용한 작품스타일을 일러스트한 것이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각각 그리스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계승(繼承)한 이집트와 로마, 비잔틴의 범주까지의 조형적 형태(形態)가 갖는 디자인적 특징과 복식사와 관련했을 때의 실루엣상의 두식과 발형(髮型)의 특징들을 보았고, 시대가 갖는 유행에 따른 특징도 보았다. 여기에 디자인적 원리와, 기술적인 면, 이미지별, 연령별로 제시(提示)함으로써 새로운 조합을 가능할 수 있는 요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요소간의 조합은 새로운 구성요소간의 융합(融合)을 통해서 새로운 뉴 아이템으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대의 스타들은 이들 쉬농을 연출하여 영상매체(映像媒體) 등에 등장함으로써 오늘날까지 패션과 헤어의 스타일의 이상적인 쉬농을 연출(演出)한 여성상을 제공하며 이미지의 원형으로 되어 이를 모방(模倣)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대중적인 쉬농 패션스타일을 낳기도 한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는 대중적인 인물로 인한 패션 스타일의 창조도 이러한 쉬농 스타일 디자인의 다양한 원리를 이용해 창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창조(創造)란 것이 근본적으로는 무(無)에서 새로운 유(有)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인간의 모든 활동 즉, 과거의 경험, 고정관념, 이미 존재하는 의식요소의 활동, 새로운 것과의 재결합(再結合), 의식적인, 사고력의 표출 등을 가리키며 근본적으로는 재결합(再結合), 재구성(再構成), 재통일(再統一)이라는 넓은 뜻을 가진다.⁷⁶⁾고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시(注視)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새롭게 만들기 이전에 창조(創造)란 개념을 독창성을 넘어선 모방(模倣), 새로운 조합(組合), 시간과 공간을 초월(超越)한 개념으로 확대(擴大)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전문화(專門化), 세분화(細分化) 되어갈수록 필요로 하는 창작과 새로움에 대한 갈망(渴望)의 욕구는 더욱 커졌다. 여기서 창조를 하기 이전에 과거의 흐름을 알고 계승·발전시킴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에 바탕이 되고 있음을 유(有)를 창조하는 사람들에게겐 좋은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 누구나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생활 속에 인지(認知)하고 실행(實行)하는 것

76) J. E. Drevdahl(1956), 『Factors of Importance for Creativity』, pp. 22-26.

김경희, 「제품 디자인에 나타난 패러디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연구」, 숙명 여자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9, p. 49.

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과거의 의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의식은 지금의 세대에도 여전히 통용(通用)되고 있다. 그 바탕에 인간이 갖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은 인종과 민족,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바탕에 창조의 원천(源泉)이 되어온 여성의 아름다움의 욕구의 표출의 한 부분으로, 패션의 실루엣을 위한 장르일 뿐 아니라, 크게는 전체이기까지 발달되어온 그리스·로마식의 쉬농 헤어스타일이 다양(多樣)한 모습으로 현재까지 맥(脈)을 이어 변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고대의 이집트여인들이 입었던 쉬스 가운(Sheath Gown)이 최초의 Empire Line의 시초이었음⁷⁷⁾을 보았고, 그리스·로마와 이를 이은 비잔틴을 거쳐 중세와 근대까지 각기 형태 모습은 비록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근원적인 바탕에 깔렸던 의복의 드레이퍼리 성에서 볼 수 있는 인체미(人體美)와 헤어의 실루엣이 보여주는 인체와의 비례미(比例美)는 현재 전 세계까지 전파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유구한 전통성(傳統性)인 것을 알았다. 여기서 새로운 전통을 이어나갈 21세기를 맞아 지나간 20세기 복식의 유행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고, 그럼으로 해서 실루엣과 헤어스타일과의 상관성(相關性)까지를 알아낸 것이 이 연구의 또 다른 발견이었다. 재현을 한 사례(事例)들을 통해서 가까이에서 생각보다 쉽게 그리스·로마의 전통(傳統)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이유로 새로운 창조의 모티브로 과거의 정신적인 산물(產物)까지도 계승시키고 발전 시켜 재현시키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황금비례(黃金比例)에 관해 본 연구자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술적 고찰(考察)과, 묶음점으로 인한 이미지 관련한 예시(例示)를 먼저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화(開化)기의 머리올림양식이 서구에서 온 것임에 감안(勘案)하여 종합 비교(比較)하여 공통(共通)되게 재현(再現)되어온 유형을 나누어 보았고, 이 흐름 속에서 계승(繼承)과 발전(發展)의 차원에서 4 가지 유형의 8 점의 작품으로 구현하려고 해보았다. 결국, 본 연구자는 연구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도출(導出)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첫째, 서론(序論)에서도 언급했었던 본능이기도한 여성의 미(美)의 욕구(慾求)를 충족(充足)시킨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의복의 동기를 그리스·로마식의 헤어스타일도 이미지와 관련해서 연구한 본문에서 미적인 욕구와 충족을 동시에 가지며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앞에서 설

77)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 Y: Harper & Row Pub. 1965), pp. 26-27.

명한 올림식으로 인해 여성의 목선이 드러나 이성유인설에 근거함)

둘째, 항상 복식(服飾)과 같이하며 신체의 표현과 헤어스타일은 뗄 수 없는 성질을 가지며, 하나의 패션 실루엣의 완성(完成)이 바로 헤어스타일인데, 서양인들의 정신적 근간(根幹)이 되어온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특성과 복식과 두식(頭飾)과 발형(髮型) 등을 살펴봄으로써 시대마다 유행되어지는 주류(主流) 가운데서도 기본에는 그리스·로마 적 요소가 깔려있었고 또는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세대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고찰이라고 생각되는 지난 한 세기의 고찰이 필요한데, 21세기를 조명하기 위한 본 연구 과정에서 20세기의 현대를 되짚어봄으로써 앞의 <표 1>과 같은 결론도 부수적(附隨的)으로 얻어냈다.

넷째, 연구자는 본문에서 그리스 식 헤어스타일과 더불어 그들의 자연관(自然觀)과 건축양식(建築樣式), 인체의 비례미에 까지도 고대인(古代人)들이 중시한 황금(黃金) 비례미(比例美)에 대해서 헤어스타일에서의 접목(接木)을 제안했다. 황금비율(Golden Section)은 고대부터 형태미를 연구·규정하는 여러 비중에서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비례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그리스의 복식(服飾) 또한 건축물의 양식을 따랐었고, 건축(建築)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례는 중요시 여겨져 조형물 뿐 아니라 인체(人體)를 포함하여 자연물(自然物)에 이르기 까지 모두 적용(適用)된다고 생각해 왔다. 이는 미를 구현하고자했던 고대로부터의 서양인들의 미적 표현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의 조형미의 산물인 고구려 벽화의 저고리, 치마 간(間)에도 적용되어져왔던 것이 놀랍게도 밝혀졌고⁷⁸⁾한복의 깃과 동정, 깃 너비와 셔의 너비 등에 까지도 무의식(無意識)중에 제작된 것은 각 시대를 초월(超越)해서 복식과 인체의 조형미간 비례는 어떤 연관(聯關)성이 있는 것이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서양의복인 현대의 복식디자인에서도 이 비례가 적용되며 중요(重要)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상의 모든 사물은 엄격한 질서가 있고 비례가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인간과 관련된 디자인에 비례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러한 점을 인체의 일부인 헤어에도 첫 적용, 이를 헤어 디자인에 도입하자

78) 김 영자, 「한복의 황금비 분석에 의한 연구」, 복식, (한국복식학회지,1984), p. 55

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안한다.

다섯 째는 본문(本文)에서,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技法)과 영감(靈感)의 key가 되는 액세서리 몇 가지만을 찾아서 이를 이용하였으며, 타(他) 업스타일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올림과도 하나의 공통의 맥(脈)을 찾아서 4 가지 유형(類型)을 도출하였고, 이를 스타일 별로 작품으로 구현하였다. 창조의 범위는 두발을 묶는 지점의 높이와 방향에 따라 연령 대와 느낌이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가급적 절제된 모던한 선과 면적의 표현으로 동·서양의 근간이 되어 온 비례미를 가진 그리스와 로마의 헤어스타일을 재구성(再構成)함으로써 21세기 현대의 성향을 복고풍(復古風)으로 즉, 여기서 전통성과 현대성의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찾아내고자 했다. 서양문화의 근간(根幹)이 되어온 그리스·로마 정신의 흐르는 맥을 현대로 오면서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그 전통이 전승(傳承)되어질 수 있음을 알아냈다. 이를 응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를 표현 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로마식의 쉬농은 바로 과거와 현대를 잇는 시대정신을 볼 수 있는 스타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민족과 시대, 경제성 여부, 성의 구분 등이 허물어지고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동시대에 공존(共存)하는 현시점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정형화된 스타일에서 벗어나 활동하기 편하고 소화하기에도 적합(適合)한 복합적(複合的) 스타일의 개발(開發)을 하여 장소와 목적에도 잘 부합하는 스타일을 헤어 장르의 한 아이템으로 개발 확대(擴大)할 필요가 있다. 변화가 많은 21세기와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것을 찾고 갈구(渴求)하며, 문화적 융합(融合)까지도 수용적(受容的)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먼 고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창조되어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새로운 영감(靈感)을 얻고 이를 현재와 미래에 제시함으로써 더욱 창조적이면서도 이러한 실용성을 가진 스타일에 까지 개발해 내려는 노력이 새 주류(主流) 창조에 한몫 하리라고 생각한다. 인공적(人工的)인 물질이 범람(汎濫)하는 산업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고대인들의 자연스러움을 추구(追求)하는 이미지에 쉽게 매료(魅了) 된다. 따라서 고대인들의 복식과 헤어스타일 속의 미적인 감각이 오히려 쉽게 현대인들에게도 따뜻함을 전달하면서 소박함과 자연의 느낌으로도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

오래전부터 이미 써왔고 알려져 있던 일명 후까시(ふかし)라고 쓰여져 왔던 것이 근래엔 백코밍(Backcombing)이라고 대중적으로 차츰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렇듯 그리스·로마 전통의 쉬농에 쓰일 수 있는, 소개한 기술적인 용어들이 보다 더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어지게 하길 기대한다. 패션의 이미지 구축에 한 몫을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들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깝게 인식되어져 쉬농은 여전히 여성미를 한껏 드러내서 여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또한 그 변화성(變化性)과 유연성(柔軟性)면에서 창조를 위한 기법들이 다양한 쉬농에 보다 많은 일반인, 아이디어맨들로 인한 의외적(意外的)이고도 창의적(創意的)인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도 해주는, 실용적(實用的)이고 발전적인, 그럼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대는 유행속도가 빠르고 예측(豫測)하기 힘들만큼 변화가 많은 시대다. 전통성의 공존(共存)과 현대적 개성의 분출, 과거와 미래적 요소의 혼용(混用)의 시대에 현재의 세심(細心)한 관측(觀測)으로 미래를 예견(豫見)하고 대처할 수 있는 통계적(統計的) 연구와 복식과 헤어스타일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만큼 기존의 복식(服飾)과만 관련된 많은 자료에서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미흡한 헤어관련연구에서도 학문적으로나 미학(美學)적으로 분석(分析)적인 연구가 향후 후속(後續)되길 기대하면서 부족하나마 본 연구를 마칠까한다.

참고문헌

국내 학위논문집.

- 1) 김 두임, (1972). 서양 현대 여인의 머리형태와 수식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가정대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 논문
- 2) 박 경희, (1979). 현대 복식의 양식에 관한 연구-1960~1970년대 복식을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가정대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 논문
- 3) 조 봉아, (1983). 한국과 서양 여인의 용도별 두식에 관한 비교. 충북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유 순례, (1983). 고대 그리스 복식의 조형성. 숙명 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5) 유 근순, (1984). 칼라(collar)와 헤어스타일의 관계에 관한 고찰. -16~19C Paris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논문
- 6) 양 점숙, (1984). 근대 여성복의 실루엣에 관한 연구-프랑스 중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논문
- 7) 이 현주, (1988). 고대 그리스와 신고전주의 시대의 여자 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복식의장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8) 이 은영, (1989). 현대 복식에 있어 예술성의 개념-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복식의장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9) 전 선정, (1994). 서구 여성의 머리 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과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 10) 안 현경, (1995). 20세기 서구 여성의 머리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과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 11) 조 신연, (1998). 고대 그리스 복식의 조형미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논문
- 12) 김 미진, (1999). 복고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 디자인연구-버슬(Bustle Style)을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의상 디자인전공 석사학위 논문
- 13) 이 귀영, (2002). 큐비즘 회화를 응용한 헤어스타일의 조형성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석사학위 논문

- 14) 김 향란, (2002). 개화기 여자 머리양식과 재현에 관한 연구. 부산 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15) 정 순복, (2002). 서양 현대 연기자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 대학교 뷰티코디네이트과 석사학위 논문
- 16) 정 임숙, (2002). 20세기 서구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한성 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 17) 오 문균, (2002). 테크놀로지 이미지적 헤어스타일의 동시화에 관한 연구. 세종 대학교 대학원 의상학 박사학위 논문
- 18) 박 하나, (2003). 구성주의 조각을 응용한 헤어 조형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논문
- 19) 김 가연, (2003). 헤어 디자인의 형태 도출에 관한 연구-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미용산업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 20) 이 윤선, (2003). Make-up과 Hair style에 의한 패션 이미지의 변화 연구. 동덕 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과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논문
- 21) 임 석종, (2003). 패션 트렌드와 헤어 스타일변화의 상관성 연구. 한성 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 22) 최 혜숙, (2004). 미술 감상 교육을 위한 동·서양 회화 비교.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 23) 신 정미, (2004). 1980년대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사회요소와 헤어스타일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한성 대학교 뷰티예술학과 헤어 디자인학과 석사학위 논문
- 24) 이 용란, (2004). 헤어스타일의 텍스춰 표현에 관한 연구, 비율과 리듬을 중심으로-용인 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5) 이 선심, (2004). Creative 와 Hair by night stlyle에 관한 연구-작품연구를 중심으로, -남부 대학교 산업 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6) 이 상화, (2004). 헤어 폼(Form) 디자인의 원리와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한성 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석사학위 논문
- 27) 유 미금, (2004). 1960년대 헤어스타일 변천과정에 관한 분석. 한성 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 28) 한 혜숙, (2005). 서양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1910~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9) 김 현지, (2005). 컨슈머 스타일의 이론과 실제-한남대 사회 문화 과

학 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석사학위 논문

30) 정 소영, (2005). 헐리우드 스타의 패션아이콘-1930~1950 년대 여성 스타를 중심으로-이화 여자대학교 가정대학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박사 청구 논문

국내문헌 및 국외문헌

1. 국내서적

- 1) 김 영자, 1998. 복식 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 2) 마를린 혼, 루이스 구렐, 이 화연, 민 동원, 손 미영 옮김, 1987. 의복: 제2의 피부. (서울: 까치사)
- 3) 백 영자, 유 효순 공저, 1989. 서양 복식문화사.(서울: 경춘사)
- 4) 이 군자, 2002. Iron & Dry (출판사미정)
- 5) 이 정옥, 최 영옥, 최 경순 공저, 1999. 서양 복식사. (서울: 형설 출판사)
- 6) 조 규화, 1987.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 7) 정 현진, 조 진아, 장 경옥, 김 성남, 유 우정, 박 종순 공저, 2004. 미용 문화사. (서울: 광문각)
- 8) 조 오순 외 4명, 2004. 함께 알아보는 패션 그리고 뷰티이야기. (서울: 경춘사)
- 9) 정 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 A history of fashion.(서울: 絢文社)
- 10) 채 금석, 1995. 현대 복식 미학. (서울: 경춘사)
- 11) 케인즈(Cairns, Grace Edith), 이 성기 옮김, 1990, 역사철학 : 역사 순화론 속에서의 동양과 서양의 만남. (서울: 대원사)
- 12) 한 순자, 서 옥경, 이 민주 공저(共著), 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예학사)

2. 국외서적

- 1) Baudot, Francois, Chanel, London: Thames and Hudson, 1996.
- 2) Boucher, Francois, 20,000 years of Fashion :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H. N. Abrams, 1987.
- 3) Brooke, Iris, History of costume in pictures. New York: Dover, 1975.

- 4) Franck, Lavina M., History of costume: a study of guide, Minneapolis: Burgess, 1978.
- 5) Gold, Annalee, 75 years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75.(본문의 실루엣 그림:18/19/22/33/34/35의 출처)
- 6) Gorsline, Douglas W., 1913-A history of fashion : a visual survey of costume from ancient times. London: B. T. Batsford, 1993.
- 7) Koehler, Carl, A history of costume ; edited and augmented by Emma von Sichart ; tr. by Alexander K. Dallas. New York: Dover, 1963.
- 8) Laver, James, Costume through the age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c1963].
- 9) Laver, James, 1899-De La haye, Amy Tucker, Andrew. 정 인희 옮김.(서울: 시공사, 2005)
- 10)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 from the ancient Egyptians to the twentieth century / Blanche Payne ; Drawings by Elizabeth Curtis. New York : Harper, [c1965].
- 11) Peacoak, John, 20th Century: the complete masculin. London: Thames and Hudson, 1993.
- 12) Racinet, Auguste, The complete costume history, Koeln ; London : Taschen, 2003.
- 13) Russell, Douglas A., Costume, history and styl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1983.
- 14) Turner, Wilcox. R.,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 15) Wilton, Mary Margaret Stanley Egerton, Countess of, The book of costume or, Annals of fashion (1846) / Annotated ed (R. L S91846)hep:1986)

의학책

- 1) Pansky, Ben ph. D., M. D, Review of gross anatomy : text and illustrations 5th ed. New York : Macmillan, c1984

학회지

- 1) 김 인숙, (1980). 서양 고대 사회의 발형과 두식에 관한 연구. 복식 3호, 서울
- 2) 김 영자, (1984). 한복의 황금비 분석(黃金比 分析)에 의한 연구. 복식, 한국 복식학회지, 서울
- 3) 이 정호, 한 영숙, (1997). 올림머리의 체계 및 분류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 3권 제 1호. 1997년 12월

일간신문

- 1) Daily Zoom, 2005년 10월 21일자, 14면.
- 2) 조선일보 웰빙 특집, 2005년 11월 23일자, D1.
- 3) 동아일보 2004년 12월 5일자

정기간행물

- 1) New Hair trend I, 2004. (서울: 도서출판, 美山)
- 2) 장피엘 헤어스타일북, 2004. (서울:(주) 영진 닷컴.)
- 3) Beauty Life, February, 2005.
- 4) W Korea, June, 2005.
- 5) Allure Korea, July, 2005.
- 6) Hair flair, 2004, Hairflair magazines Ltd. Essex
- 7) Pivot Point, 2001, 룡 헤어 디자인

국내·국외의 쉬농(chignon) 관련 참고 인터넷 사이트

1. 국내 사이트

- 1) <http://tab.search.daum.net/dsa/search?w=imag&q>
- 2) http://movie_image_hanmail.net/images/photo/photo_still
- 3) <http://ilovejunghwa.com>
- 4) http://imagebingo.naver.com/album/icon_view.htm?uid=fkqhd12&bno=35953&page=1
- 5)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dt_photo&query=%B4%CF%C4%DD%20%C5%B0%B5%E5%B8%B8&c=150&sort=0
- 6)

http://www.hairworld.co.kr/index.html?menu=info&menu2=view&bbs_db=trend

2.국외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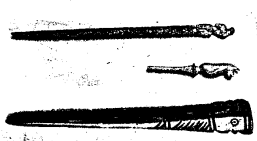
- 1)<http://www.en.wikipedia.org/wiki/chignon>
- 2)<http://i-mariage.com>
- 3)<http://www.i-mariage.com/i-mariage/backstage.asp?pid=1001>
- 4)http://users.swing.be/la_danse/ton.htm
- 5)<http://en.wikipedia.org/wiki/Chignon>
- 6)<http://www.wordreference.com/definition/chignon>
- 7)<http://www.todaystylist.com/chignons.htm>:Chignon Hairpieces Catalog Collections
- 8)http://www.cyber-coiffeur.com/_chignon/coiffure_chignon.html
- 9)http://cyber-coiffeur.com/chignons_mariees/
- 10)<http://www2.ac-toulouse.fr/col-jmoulin-toulouse/coif1.htm>
- 11)<http://www.hairfinder.com/hub.htm>

부록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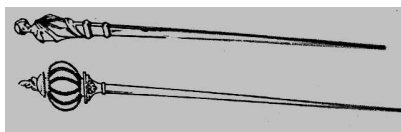


<부록1> 20세기 실루엣의 변천과정. 출처: 박 경희, 「현대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1960~1970년대 복식을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 학위논문, 1979. 부록 편

<부록1> 20세기 실루엣의 변천과정



<그림㉔=본문그림10>이집트 비너



<그림㉔=그림11>로마의 긴 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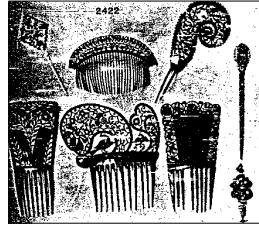
<그림
㉔>2005,12,3일



<부록2> French Twist style



<부록4> A visual survey of costume from ancient times. p. 210



<그림 ⑤> 19세기 머리핀과 빗-현대식핀의 거의 그대로이다.

<부록2> 프렌치 트위스트 스타일⁷⁹⁾

<부록3> 고대의 모티브의 현대적 응용 사례

<부록4> 엠파이어 스타일의 그리스적 헤어스타일과 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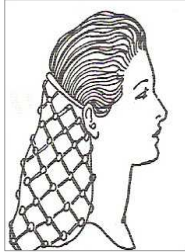
창작에 쓰일 원래 모티브	현대적으로 응용한 재현 사례	
이집트의 상서로운 상징적 동물 뱀 (uraeus)이용 <그림 ④>	→ 할리우드의 시대극 영화 '클레오파트라' 카리스마적 재현 (www.naver.com)<그림 ⑤>	한국의 시대극 창작 → 인기TV 창작사극 '해신'의 자미부인의 카리스마의 상징적 재현 (www.daum.net)<그림 ⑥>
그리스의 망(網)을 이용한 쉬농의 재현 중세여인<그림 ⑦>	→ 할리우드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www.naver.com)<그림 ⑧>	→ 자미부인의 망과 구슬을 이용한 쉬농(다음-'해신'카페 검색)<그림 ⑨>
비너식을 이용한 이집트·그리스·로마의 장식핀<그림 ③>	<그림 ⑤> 19세기 빗식핀 ⁸⁰⁾ 및 현대의 비너 ⁸¹⁾	

<부록3>

79) 출처: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p. 452.

* → : 연구자의 재현에 관한 연구 결과임

⇔ : TV 창작사극 '해신'의 헤어디자이너, 손 혜경씨의 모티브로서의 설정 동기 설명에 의거함.(2005년 6월 30일. 신촌 미용학교내 세미나, 초빙 강의 내용 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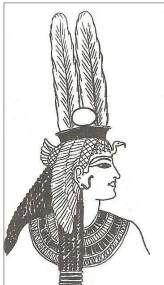
<그림㉔>=본문그림 51>망+구슬의 중세 여인



<그림㉔>=본문그림51> 스칼렛 오하라



<그림㉔>망+구슬이용해서 창작된 슈농



<그림㉔>상징적 동물-이집트 네페르티티 여왕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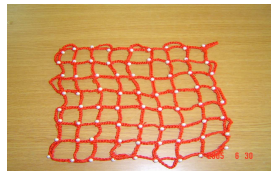
<그림㉔>영화'크레오파트라'에서



<그림㉔>뱀머리장식한 자미부인



<그림㉔>연출에 쓰인 뱀 소품, 연구자 실제소품촬영.-2005년 6월30일



<그림㉔>에 실제 쓰인 구슬을 엮은 망(網), 연구자의 소품촬영.- 2005년6월 30일

80) 김 두임, 앞의 논문, p. 91.

81)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search/search_total.asp?keyword=%BA%F1%B3%E0&jaehuid=200000826

Abstract

A study on the ancient Grecian and Roman hair styles and their influence on current styles, including a proposal for their fusion into current forms with a focus on Chignon styles.

eehnoesnooY
rgisednoljM
rgisednoljM
stilesSaraG
ytisrevgitH

From the quite distant old days beauty care is a part of human being life. Due to the various materials, the technique, and demand of culture, time and space, it is a method of expressing beauty with clothing style. As the hair is a part of the body to remove and attach to be possible as changeable variety, it gives always the interest and a change of the human being and become popular. It comes it leads about times to come. In popularity of the dress, the hair design had a popularity characteristic to balance a silhouette. Like the building where the popularity and fine arts form appears, it comes to be freely built but it is a space where it is restricted.

The number of hair over 100,000 in the circular head as material and frame can be designed in human body by creative hair designer as spatial art to accomplish concept of beauty and 3 dimension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pretty well comparison with architecture. When the dress is as the plastic art which is the center of material, shape and color, we can say that the hair is a part of the human being body and is a part of material to mould. It reaches until a present time from past and changing in hair design, and Chignon also has pretty much variation and the characteristic transition can be realized variously. Until the present time, shape transitions of Chignon as a part of history are to be various and to change. Therefore, to re-illuminate how it reaches to the present time with a silhouette at that time we look over hair styles and used decorations. Current creation is to take over and recreated past popularity. Taking over beauty desire for human being and past fashion can be often found from design and accessories of our fashion. I will put objective to observe and variously apply for shape method of Chignon which follows spirit from Greek and Rome. With continued beauty expression, I intended that it is harmonized and becoming the help in development of re-creation of the hair styles from the ancient times. For that, the contents of the ancient times is historically researched about a head form and a decoration. As researching characteristics of 20 century, I am as a new generation to meet a new 21 century to take over beauty concept, and started to research for a new creation. Not built accurate concept of Chignon style as up style I knew from conceptual comparison and meaning of the style with other up style and researched the characteristics of that. Simultaneously, I tried to pointed out 4 types spirit about reappearance of traditional Korean hair style. Whether the re-appearance can be possible, I analyzed composition principle as Chignon style re-appearance for us who live 21 century with approach of shapes and introduced from methods and examples for production as observed method for presentation. Furthermore, from a point of time which is excessively considered against a hair style freedom and expression desire without sex difference like current society, I observed photographs of foreign and domestic famous actresses' hair styles and the accessories as fashion icon with various

Chignon and analyzed with a silhouette. I tried to discover inside of past ancient aesthetic sense. Beauty concept discovered from past concept is popular use and it is coming to become as ever even in current generation. Even though the human being has in that character and the sense against the human race, the nation, and time frame is different little by little, I understood that Grecian and Roman Chignon style is various until now and it changed. Though there are many research materials about the dressing code, the recognition is insufficient in the value against a hair culture. I wish that it becomes one shape arts. At this point of view where many people has the interest of this field, I tried to research with expectation that it develops a study with the dress that everyone can approach and express more functional style. For practical and functional use of Chignon, the re-appearance instances of the western Chignon and Korean civilization times Chignon was analyzed, and I researched with study and produced 8 application works. For a design development process, he collected ideas of a history inside and illustrate some of works to embody and to collect with design element and it was already used existing design method of models and from that was set up for design with observation method. With this same chain research it led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the instinct which it refers from introduction is, to fill up demand for women's beauty. I concluded that it is to simultaneously take demand and sufficiency of beauty with that motive of the clothing above from main subject researched about hair style of Greek and Rome with the image. Second, it always shares with the dress. Expression and hair styles of the body has the nature which is not the possibility of taking off. Completion of one fashion silhouette is a right hair style. When we look over culture quality, clothing and hair style of the Greek and Rome from spirit foundation of the westerner, every times it was effected by the Greek element basic to become popular.

Third, it is necessary for us, a new 21 century generations. For

illumination of 21 century, it pointed out 20 century from the research process and like<Table 1> it comes to additional conclusion.

Fourth, researcher suggest to graft in Grecian hair style with view of their human being, nature and construction form, and even up to proportional beauty of the human body that ancients even personally has an interest in. Golden Section was the most proportion among other proportions about research and defining shape beauty from ancient times. The dress of the Greek also follows the form of the building and very important so all in even construction this proportion is seriously considered with not only shape but also human body and nature. This is expression method for the ancient westerners who were willing to embody beauty and it was disclosed that it surprisingly applied to jacket of Ko-koo-Ryo wall painting as Korean shape beauty and even skirt. [Kim, Young Ja (1984)]

Research by Golden Section of Korean tradition dress Dress style, Korean dress paper, P. 55)

Up to a collar and a collar strip for Korean jacket, and width of a collar and a gusset, in unconsciousness they were produced in each time frame. It was discovered there was in relationship with dress style and human body's shape beauty proportion regardless each time frame and Western dress style design is applied and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Therefore, I propose that hair design should be introduced with first applying to the hair which is a part of the human body.

Fifth, in main context, I used with finding restriction only about currently applied various technique and key point accessories. As compared with other up style (A style based on roll style) and finding commonness with Korean traditional up style, I get 4 types and embody works by each style.

The scope of creation, followed in height and direction of the point the hair ties, makes the image which the age and impression. With

re-making the Grecian and Rome hair style that have proportion beauty based on easterners and westerners with expression of modern line and the area, the researcher thought the propensity of 21 century was kind of restoration and tried to find out the commonness with ancient and modern beauty.

I recognized that the foundation of the western culture becomes from the Greek and Rome spirit and this tradition is taken over by popular and practical method. With applying this, various shapes were expressed. Therefore, I concluded that Chignon of the Grecian and Rome is the style which is seen by taking over from past to current days. According to up styles of the Greek and re-appearance of hair styles until now, there are 4 types of taking over. However, without difference with people and time frame, economic efficiency and sex, various hair styles coexists. Simultaneously units overflow. There are homesickness against the old thing in this times, beautiful discovery of body, and nature and human being becomes one with the human being body where the elements of the flow in the Greek spirit. Re-appearance of restoration is one of elements and inevitable characteristic of the study regarding the ancient times.

21 century is very changeable and many things are quick. Even people search for new and there is culture fusion where we live in. By developing creative idea, taking new inspiration and presenting to current and futur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hat the effort of research to develop style which will be more creative and practical.